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총비서

6.15주간 편집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총비서

6.15주간 편집부

김일성주석님께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하신 교시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론의 대가이며 강한 실천형의 지도자입니다. 인류역사의 위대한 사상이론과 강한 실천력, 그리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모두 겸비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 중에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합니다. ≫

≪우리 나라에서의 대전성기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은 강위력한 불패의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으며 우리 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세인을 놀래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라를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 세운 **김정일**동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운명이며 태양입니다. 오늘 조선은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전진하고 그의 세련된 영도 밑에 **김정일**조선으로 융성번영하고 있습니다. ≫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앞으로 주체혁명위업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 것입니다. 나는 21세기에 대하여 마음을 놓습니다. ≫

혁명의 뿌리를 가꾸며

세기와 더불어 제 8권



혁명이란 투쟁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에는 투쟁도 있고 생활도 있습니다. 투쟁과 생활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투쟁 속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여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난신고속에서도 공산주의자들만이 설계할 수 있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도덕의리의 리상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들은 투쟁 속에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투사들의 생활에는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더욱 풍만한 발전의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바야흐로 항일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줄달음치던 1940년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것은 혁명의 2세들이 태어난 사실이었습니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새벽에 백두밀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은 우리 일가로 볼 때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대경사였습니다. 나와 김정숙은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장에서 조선의 남아로 태어난 **김정일**의 장래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해주었습니다.

나는 **김정일**이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였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장손, 장손 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끔찍이 사랑해 주었을 것입니다. 두벌 자식이 더 곱다고도 하는데 그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고향에 계시다나니 증손자의 출생을 알리는 소식마저 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린시절에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대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한 사람처럼 나를 가문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의 사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는 집안 자손이니 더 살뜰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린시절에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여 명이나 되는 대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한 사람처럼 나를 가문의 기둥이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는 집안자손이니 더 살뜰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백두밀영과 원동의 훈련기지에는 인가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소도 없고 번지도 없는 귀틀집과 천막에서, 때로는 빙설로 덮인 로천에서 청춘시절을 보냈습니다.

김정일의 유년시절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집안어른들한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나의 전우들한테서 받았습니다. **김정일**은 내 사랑보다도 빨찌산대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나의 동무들은 백두산에서 또 한 사람의 장군감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김책은 유년시절의 **김정일**을 늘 어린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세대가 항일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백두산의 이깔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와 투지를 가다듬고 조국해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더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을 공동의 경사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심없이 보살펴주는 전우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 나는 우리 일가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사랑이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는 참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전에도 말한 것이지만 나는 한평생 동지들의 사랑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올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동지들과 인민들의 덕분입니다.

나는 열다섯살 때 어머니의 슬하를 떠난 이후로는 줄곧 인민들과 동지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항일 혁명의 나날이나, 새 조국 건설의 나날이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이나 동지들은 나를 시종일관 성실하게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어 총알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병마도 막아주었습니다. 내가 마음고생을 할 때도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나도 힘이 진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동지들과 인민들로부터 찾군했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캄캄하던 앞길도 트이었으며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무들한테 원동의 훈련기지에 가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제련합군을 조직하고 우리가 북야영에 집결했던 그해 겨울 만주와 원동 지방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산짐승들까지 먹을 것을 찾아 민가에 내려오는 판이었습니다. 무릎을 치는 눈 때문에 거리로는 얼마동안 자동차도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소부대공작을 나갔던 김일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지에 돌아와 김정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빵이 주식으로 되어있는 그곳 형편을 생각해서 쌀을 좀 구해왔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사령관에게 꼭 밥을 대접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김일이 나를 위해 쌀자루를 메고 다닌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자기는 만날 통강냉이만 먹으면서도 나한테만은 어떻게 하나 쌀밥을 마련해 주려고 항상 마음을 썼습니다.

류경수도 후방부에서 쌀을 조금씩 공급해주면 김정숙이한테 맡기고 가면서 소문을 내지 말고 나한테 밥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나와 전우들사이에 오고간 혁명적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도덕의리는 **김정일**이 태어난 후부터 김정숙과 **김정일**에 대한 도덕의리로도 표현되었습니다.

김정일이 갓 태어나자 김정숙은 그에게 나와 자기 군복을 줄여서 지은 옷을 입히었습니다.

훈련기지에 있을 때도 형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쏘련사람들도 전쟁을 치르느라고 배불리 먹지 못하였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자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자는 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녀대원들이 자투리 천들을 모아다가 그에게 쪽무이포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그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냈습니다.

나의 전우들은 자기 사령관의 아들이 쪽무이포단을 덮고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몹시 가슴아프게 여기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던지 해방후 림춘추는 중국 동북지방에 가서 사업하다가 휴가차로 조국에 나올 때 모포 500장을 사다가 나와 김정숙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모포를 모두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었습니다.

생활형편이 몹시 어려운 때였지만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온갖 지성을 다하여 김정숙과 **김정일**을 돌보아주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려서부터 군대를 몹시 따르고 군인들의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우들은 **김정일**이만 만나면 그의 머리에 군모부터 씌워주군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김정일**에게 선물하려고 적구공작을 하면서도 나무권총을 깎았습니다.

백두밀영과 달리 원동에 있을 때는 우리 집과 부대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여가나 휴식일이 되면 많은 대원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김정일**을 안고돌면서 걸음마도 떼주고 목마도 태워주고 노래도 배워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르강변에 데리고나가 발동선이 지나가는 광경도 구경시키고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 수 있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 것도 빨찌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찌산들이 지니고 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만한 자양이 되어 그의 넋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뢰부리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김정숙과 **김정일**을 돕는 데서는 남대원들도 짝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대원들이 우리 집에 와서는 김정숙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

백두밀영도 그렇지만 원동의 훈련기지라고 해야 영양제가 될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사람이 다 허리띠를 조이며 어렵게 사는 때여서 돕고 싶어도 마음 뿐이지 사실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이런 때에 림춘추랑 많은 동무들이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빵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김정숙이한테 가져다 주군했습니다. 쏘독전선을 지원하느라고 누구나 다 배를 곯던 때였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빵을 모아주었습니다.

김정숙은 전우들이 가져온 빵중에서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간수해두었다가 그들에게 도로 돌려주군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림춘추가 무전기를 메고 만주에 소부대공작을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령부와 무전련계를 가지면서 몇 달동안 정치공작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였는데 기지로 들어올 때에는 적구에서 닭알까지 수십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소부대공작지에서 우리 훈련기지라는데가 거리가 먼데다가 거기로 오가는 길이 평탄한 대통로도 아니고 총검이 숲을 이룬 사지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한몸 건사도 하기 어려운 사지판으로 등에 무전기를 짊어진 사람이 닭알짐까지 들고오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림춘추가 그 닭알보따리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하는 그의 고결한 진정에 감복하였습니다.

사실 림춘추와 김정숙은 서로 오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부암동에서 야학에 다닐 때 림춘추는 곽지산과 함께 강사로 출연하였습니다.

림춘추는 병고로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많이주었습니다. 김정숙의 가족도 림춘추한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제인가 김정숙이 병에 걸렸을 때 그를 구완해준 사람도 림춘추였다고 합니다.

림춘추는 국제련합군시절만이 아니라 한생을 나와 김정숙과 **김정일**을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림춘추는 김정숙의 일가친척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도 여러모로 마음을 썼습니다.

그는 후대들에게 김정숙, 김철주, 김기송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소개선전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고 여러해 동안 자료작업을 한데 기초하여 그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림춘추는 손에 무장을 잡고 싸우면서 지식으로써 우리 사업을 보좌한 대표적인 인테리입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항일무장투쟁초기부터 력사기록과 저술활동을 하였습니다.

림춘추가 력사가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은 연길현 조양천에서 당 및 공청간부들과 내가 한 담화를 기록으로 남긴 때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선인민혁명군 종군력사가로서 남호두회의와 남패자회의, 소할바령회의를 비롯한 주요회의들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충실하게 회의기록을 하였습니다.

림춘추는 국제당이 관계하는 출판물들에도 여러건의 글을 써보냈습니다.

어느해 였던지 잡지 ≪태평양≫이 그 잡지 특파원과 림춘추의 회견기를 실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회견기를 보고 림춘추가 특파원에게 우리 부대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전투전에 잘 세운 계획과 오묘한 전술과 신속정확성, 용감성으로 하여 실패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우리 대오가 독자성이 강하고 문화적이며 락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잡지특파원은 그 회견기에서 림춘추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과에 대한 글과 아동단원 김금순의 영웅적 최후에 대한 글을 써보낸 사실까지도 다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림춘추는 늘 전우들에게 대내출판물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제당에 보내는 보고서나 문건을 작성하는 것도 좋고 혁명군의 전과자료를 종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김사령의 투쟁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다, 내 비록 필치가 무디고 지성도 천박하지만 **김일성**동지의 전기를 써서 후세에 길이 전하겠다고 말하군 했습니다.

우리 빨찌산 대원들 중에 무장을 가지고 혁명위업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림춘추와 같이 굳은 신념을 가지고 빨찌산의 력사를 자발적으로 수록해서 후세에 남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림춘추는 당사업을 많이 한 로숙한 정치일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일군으로서의 림춘추보다 문필가, 력사가로서의 림춘추를 더 내세우게 되는 것은 그가 우리의 혁명력사를 정립하는데서 해놓은 일이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림춘추는 풍부한 사료를 가지고 우리의 혁명력사를 종합체계화하고 깊이 있게 고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이렇게 고증하게 된 것은 그때 일기를 계속 썼기 때문입니다.

림춘추와 같은 문필가, 력사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자료들을 정리해두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활동력사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림춘추는 우리의 혁명력사를 정립하는 데서 뿐 아니라 그것을 소개선전하는데서도 많은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해방직후에 평남도당에서 당사업을 하던 그는 조기천, 정관철을 비롯한 여러 문화인들에게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우리의 항일빨찌산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림춘추는 혁명전통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도서들과 수많은 회상실기들을 집필완성하여 우리 당 력사문헌고를 풍부히 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그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빛내이는 일이라면 그 어떤 장애도 박차고 나갔습니다.

림춘추는 내가 발표한 론문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가지고 국제련합군시절에 정치강의에 출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의 일부 지휘관들이 우리의 론문을 강의안에 포함시키겠는가고 하면서 좀 고려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림춘추는 우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김일성**사령관을 조선민족의 지도자로, 수령으로 모셔오고 있다, 자기 수령의 로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은가고 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림춘추는 내 건강을 위해서도 왼심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는 련대당서기를 할 때 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라고 하면서 나에게 통지해준 일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내가 배낭을 절대로 메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림춘추를 불러 동무는 혁명년조가 오랜 사람인데 어떻게 회의에서 그런 문제까지 다 토의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사령관이 배낭을 지고 다니는걸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합니다, 대중의 의사이니 받아주



서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림춘추는 어떻게 되어 림춘추가 그처럼 자기 수령과 령도자를 열렬히 경모하고 그 령도에 충실한 혁명가로 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김혁, 차광수나 김책과 마찬가지로 종파의 해독성을 잘 알고 실지 체험을 통하여 수령이 귀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통감한 사람이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일동무는 림춘추를 혁명의 1세로 내세우고 존대하였습니다. 림춘추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참으로 극진하였습니다.

림춘추가 외국에서 대사로 있다가 원칙을 지켜 그 나라 당국자들과 되게 다투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안에 있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외교관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면서 조직문제까지 보아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동무만은 림춘추가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잘 싸워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그에게 우리 집 정원에서 딴 막물 복숭아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는 림춘추가 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함께 싸운 수많은 혁명렬사들의 투쟁을 고증하여 우리 당의 력사적 재보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 외교대표로 사업하는 동안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도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를 완성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우리의 투쟁력사,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력사로 정식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 수고를 치하해 주었습니다.

림춘추가 저술활동을 하면서 **김정일**동무의 지도와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의 인간적 매력에 탄복하였으며 그를 스승으로, 령도자로 따르고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림춘추는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김정일** 동무에게 보고하고 그의 결론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그의 위대성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강연도 하고 책도 썼습니다.

림춘추가 저술활동에 전념하던 1960년대 후반기 국제공산주의운동무대에서는 혁명위업계승문제, 특히 후계자문제가 론의의 초점으로,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후계자를 올바로 선정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 나라와 인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문제입니다. 후계자를 잘못 내세운 탓으로 혁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실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월 혁명후 쏘련인민이 짧은 기간에 자기 나라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기본요인은 레닌이 후계자를 잘 골랐기 때문입니다. 레닌의 충실한 전우이며 제자인 쓰딸린은 한평생 자기 수령의 위업에 충실하였습니다.

레닌이 서거한 다음 쓰딸린은 그의 령구앞에서 6개 조항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후 그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그 결의들을 다 실천에 옮기였습니다.

쓰딸린은 독일군대가 모스크바 코앞에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다른 정치국위원들과 간부들은 소개지로 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냥 크레믈린에 틀고앉아 전선지휘를 하였습니다.

쓰딸린이 살아있을 때는 쏘련에서 만사가 다 잘돼나갔습니다. 그런데 흐루쑈브가 집권한 다음부터 일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쏘련당안에서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고 쏘련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흐루쑈브는 자기를 길러준 수령의 은덕도 다 잊어버리고 개인미신에다 걸면서 쓰딸린을 헐뜯었으며 쓰딸린에게 충실한 로혁명가들도 모조리 정치국에서 쫓아내고 당대렬에서까지 추방해버리었습니다.

그후 언제인가 림춘추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레닌묘를 참관하다가 우연히 심각한 몰로또브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몰로또브는 그때 림춘추에게 당신들은 쏘련당의 전례를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수정주의를 하지 말고 자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충실하게 계승해 나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림춘추는 그때 후계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도 망치고 혁명도 망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력사의 쓰라린 교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후계자의 표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수령과 수령의 위업에 대한 충실성이며 도덕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도덕의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 이것은 후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첫째가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질과 령도풍모를 지닌 실력가만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빛내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확립하는 데서 **김정일**동무가 발휘한 비범한 수완과 혁명적 원칙성, 수령의 로선과 구상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데서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력, 고결한 충성심과 효성에 경탄하였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향도하고 완성해나갈 수 있는 령도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그를 존경하고 받들어왔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받드는 데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장에 서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 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 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 최현, 오진우와 함께 림춘추는 **김정일** 동무를 우리 당과 국가의 수위에 추대하는데서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나의 후계자로 한사코 추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이 늘 **김정일**동무처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 림춘추는 **김정일**동무처럼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혁명전통을 열렬히 옹호하는 사람은 없고 **김정일**동무와 같은 위대한 사상의 대가, 령도의 대가가 없다고 하였으며 오진우는 **김정일**동무처럼 무비의 담력과 뛰어난 지략을 소유한 령장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현과 리종산은 종종 **김정일**동무처럼 인정미가 풍부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김정숙, **김정일**을 돕는데서는 리을설이도 력사가 깊은 사람입니다.

해방후 그가 부관으로 일할 때 아침일찍 일어나서는 경비상태를



세기와 더불어

돌아보고 우리 집 부엌에서 **김정일**과 함께 식사를 하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정도로 리을설은 어린 **김정일**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내가 현지지도를 나갈 때마다 리을설은 **김정일**을 곁에 앉히고 다니였습니다. 그는 **김정일**을 언제나 잘 리해해주고 보살펴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쟁때 신의주에서 **김정일**을 만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소개지에 가있다가 오래간만에 내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부관장으로 나를 따라간 리을설에게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군님을 잘 돌봐달라고 하던 말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합니다.

김정일 동무가 왜 지금도 리을설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리을설이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따뜻이 돌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까지 겪다나니 그는 어린 동생과 함께 얼마동안 나와도 헤어져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경제를 복구하느라고 내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나니 그들 남매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린시절을 쓸쓸하게 보내고 있을 때 부모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그를 육친의 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준 사람이 바로 리을설과 같은 나의 전우들이였습니다.

리을설이 어린시절의 **김정일**을 얼마나 위해주고 보살펴주었는가 하는 한가지 실례를 말해주겠습니다.

1953년 여름에 내가 우리 나라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쏘련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방문일정을 마치고 모스크바를 떠날 때 쏘련측에서는 환송연회를 차리었는데 그 연회상에 오른 수박맛이 특이하였습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 숙소에 가니 지함을 포함하고 있던 리을설이 나를 보자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무슨 지함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좀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다가 자제분들 생각이 나서 수박 한개를 마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함안의 수박은 물동이만큼이나 큰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그때 그 수박을 받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인민들에게도 이런 수박을 맛보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씨를 받아 수박농사를 지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날 **김정일**과 함께 받은 수박씨로 리을설은 이듬해부터 우리 집 정원에서 수박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박이 새끼를 쳐서 많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리을설은 어려서 부모의 슬하를 떠난 한생을 내곁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십년동안 경위대원으로 복무하면서 제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대국주의자들과도 싸우고 반동들과도 싸우고 종파들과도 싸우다나니 쓴맛, 단맛도 다 보고 산전수전도 다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는 무서운 배짱군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바롭스크회의가 끝난 다음 나는 인차 박영순과 리을설을 워로쉴로브에 있는 무전강습소에 보내면서 강습을 마치고 곧추 부대에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부대를 데리고 백두산동북부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리을설은 무전강습을 마치고 부대를 돌아올 차비를 하였습니다.

리을설이 무전강습총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날 쏘련군대의 한 고위간부가 국제당의 요구라고 하면서 그더러 조선으로 나갈 차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리을설은 조선으로 나가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쏘련의 군사일군은 당신이 믿음직해서 그런다, 우리가 전략상으로 중시하는 성진이 당신의 고향이니 거기에 가 배겨있으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무전으로 우리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리을설은 고향에 가서 공작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사령관동지한테서 강습이 끝난 다음 부대에 돌아와 무전교관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 리해해달라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쏘련사람은 다음날에도 리을설을 설복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허락은 차후에 자기네가 받을터이니 조선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국제당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좀 터세를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리을설은 그때 나는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어데도 갈 수 없는 몸이다, 지난날 무전기술을 소유한 통신병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사령관동지의 명령대로 부대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들이댔습니다.

그때는 원동에 림시로 들어가있었고 또 아직은 국제련합군이 조직되지 않은 때여서 통합된 지휘체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선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련군이 각기 자기의 독자적인 지휘체계와 질서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쏘련군사일군이 우리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국제당을 걸고 무전강습소를 졸업하고 부대에 돌아가게 되어있는 리을설을 다른 일에 빼돌리려고 한 것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리을설이 사령관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 어떤 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은 우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리을설은 소년중대시절부터 현재까지 나를 위한 호위사업에 한생을 바치면서도 나의 뜻을 어기거나 임무수행에 태공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자기 수령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왔습니다.

내가 1939년에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할 때에도 내뒤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호위사업을 한 사람은 경위대원 리을설이었습니다.

리을설은 해방 후에도 나를 잘 호위하였습니다.

전쟁때 최고사령부주변에 반혁명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운명과 직결된 극비자료들이 박헌영과 리승엽을 통해 계속 미국사람들에게로 날아갔습니다.

1952년 여름에 리승엽은 졸개들을 시켜 무전련락으로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 있던 건지리골안에 미국비행기들을 수십대나 불러들였습니다. 그 비행기들이 최고사령부주변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고사령부건물 곁에는 큰 시한탄까지 떨구고 달아났습니다. 내가 있던 집에서 그 시한탄까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때 리을설이 비상회의를 열고 부관들과 호위성원들에게 결사전을 호소한 다음 당원증을 바치고 목도로 그 시한탄을 메다가 골짜기에 내던졌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리을설은 최고사령부 주변에 잠복해있던 암해분자들과 반동분자들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리을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아주 잘하였습니다.

내가 1956년에 쏘련을 비롯한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부관장으로 사업하던 리을설이 하루는 지금 뒤에서 최창익이랑, 박창옥이랑 노는 꼴이 심상치 않은데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까밝혀놓는 것이었습니다.

남일이도 나에게 전화로 최창익과 박창옥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리을설은 김창봉의 군벌관료주의와도 정면으로 맞서 잘 싸웠습니다.

리을설은 나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것처럼 **김정일**동무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을설과 박영순은 남야영에 돌아와 많은 무전수들을 키워냈습니다.

리을설은 그후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이 벌어지게 된 중요한 작전지점들과 일본군대의 기본력량이 배치되어있는 전략적 요충지들에서 소부대공작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그는 소부대에 망라되어 무전기를 메고 왕청현 로흑산일대에 나가 정찰활동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적들이 로흑산일대에 큰 비행장을 건설하고 수백대의 비행기들과 수백문의 대포, 수백대의 자동차들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 작전준비에서 큰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쏘련사람들도 그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부대를 로흑산에 보냈습니다. 소부대성원들은 비행장안에까지 대담하게 뚫고 들어가 거기에 있는 새 비행기와 새 자동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형포들이 전부 나무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리을설은 정찰을 끝내자마자 나에게 무전으로 소부대활동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령도의 계승문제를 훌륭히 해결했다고 하는데 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령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어린시절의 **김정일**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걸음마를 떼주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김정일**의 마음속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싹텄고 항일혁명투사들의 마음속에서는 그에 대한 믿음과 친애의 감정이 싹텄습니다. **김정일**동무의 사상정신적 성장과 감정정서발전에서 가장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입니다.

김정일 동무가 지니고 있는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혁명적 락관주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 더욱 풍부하게 터득하고 굳건히 련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동무와의 접촉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그가 지니고 있는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효심과 도덕의리,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선렬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완성해가려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따라배우게 되었으며 **김정일**동무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책임적으로 훌륭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한결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동무를 우리 위업의 계승자로 추대하는데서 뿐 아니라 그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데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후계자를 추대한다고 해서 만사가 저절로 다 잘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항일혁명투사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서 **김정일**동무를 잘 도와주자고 호소하군 합니다.

수령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후계자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갈 수 있는 핵심의 육성, 후비대의 육성입니다. 핵심을 잘 꾸리지 않거나 후비대를 잘 육성하지 않으면 후계자의 령도체계도 올바로 세울 수 없고 후계자로 로선과 방침도 관철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백두산에서 싸워온 핵심들을 가지고 혁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원들과 군인들과 청년들로 이루어진 수십수백만명의 핵심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령도자가 있고 핵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김정일**동무가 령도하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저 푸른 하늘처럼 밝고 창창합니다.

김정일 동무의 생가가 있는 골짜기를 소백수골이라고 부릅니다. 소백수골안은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뛰어난 절경입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이 밀영을 발굴하기전까지만 해도 소백수골안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천고의 밀림이었습니다.

군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천험의 요새나 금성탕지라고 할만한 곳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소재지로서는 명당자리었습니다.

정일봉의 이전 이름은 장수봉입니다. **김정일**동무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장수봉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지금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온 세상에 정일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령도자로 키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 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굳건한 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자란 민족의 령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령도자가 될 **김정일**동무의 위업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당관련 노작 목차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주체84(1995)년 10월 2일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 갔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온 우리 당의영광스러운투쟁로정을감회깊이 돌이켜 보며우리 당을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 없는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우리 당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혁명을 이끌어 나갈 혁명적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을 벌리시였으며 당창건을 위한 사업도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 대중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키워 내고 기층 당조직을 꾸리는 방법으로 아래에서부터 기초를 쌓아 나가시였다.

우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20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공고화되였다. 온갖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투쟁속에서 공산주의핵심대렬이 자라 나고 단련되였으며 수령을 중심으로 한 혁명대오의 진정한 통일단결이 이룩되고 공산주의운동의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닦아 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으므로 하여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이 제때에 창건될수 있었으며 창건 첫날부터 새 조국건설을 향도하는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 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투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당의 창건으로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건설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온 력사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여 온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정되며 당의 전투력과 위력이 좌우되게 된다.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위대한 당으로 될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정확한 길을 밝혀 주시고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로운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과학적세계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의 사상리론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 당은 일관하게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것으로 하여 가장 공고한 토대를 가진 강유력한 혁명적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는 위대하고 권위 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 온 여기에 우리 당건설의 근본특징이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령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밝히시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데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의 본질이 있다. 당의 공고성과 위력, 당건설의 모든 성과는 당을 이루는 간부들과 당원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결속시키며 당의 사회계급적지반을 이루는 군중을 당의 두리에 얼마나 튼튼히 묶어 세우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사람과의 사업은 당건설의 기초이고 당사업의 기본이며 사상을 무기로 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령도할수 있다.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히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은 최고뇌수이고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떠나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이 대중과 결합되지 않고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없다. 수령을 중심으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동체가 될 때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으로 건설되여야 하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하여 나가야 할 근본원칙이다.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관철하여야 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와 원칙, 방도들을 밝혀 준것으로 하여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 나갈수 있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선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수령의 령도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를 세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당대렬의 사상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당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로, 조직적전일체로 되여야 한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한 투쟁인 동시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배치되고 통일단결을 저해하는 이색적인 사상들과 분파적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을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끊임 없이 강화하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과 분파적요소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혁명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종파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였으며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이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종파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막아 낸것은 당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이룩한 력사적인 승리였다.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인 통일단결로 심화발전되였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해 나가고 있다. 전체 당원들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여기에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요구이며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전투력의 기본담보이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보장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떠난 통일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조직성과 규률성이 없으면 혁명을 령도할수 없을뿐 아니라 당 자체가 무기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여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규률을 확립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은 중앙집권적규률을 확고히 세우는 기초우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당의 조직원칙이다. 중앙집권제는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이며 이것을 떠나서는 당의 통일단결도 행동의 일치성도 보장할수 없다. 민주주의는 당원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것이다. 중앙집권적규률이 약화되고 무원칙한 ≪민주주의≫가 허용될 때에는 당안에 무질서가 조성되고 당이 사분오렬되게 된다. 우리 당에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정확히 적용됨으로써 수령의 령도가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거침 없이 관통되게 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 들이고 높은 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우리 당은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당사업체계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며 언제나 산 조직으로서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련결되며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 당의 숨결을 받아 안게 된다.

당생활은 당원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우는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당생활을 떠나서는 수백만을 헤아리는 당원들의 사상의 일치성, 행동의 일치성이란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소속되여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따라 정상적으로 당생활을 하며 당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정연한 당생활체계와 혁명적당생활기풍이 철저히 섬으로써 당원들의 당생활이 정규화, 생활화되고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전당이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숨쉬고 움직이는 가장 조직적이고 규률 있는 당으로 되였으며 전투적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박은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만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원래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대표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로동계급자신뿐 아니라 전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자주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를 구성성분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을 건설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마치와 낫과 붓을 함께 새긴 우리 당의 기발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시대 혁명적당의 빛나는 상징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민대중의 단결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당은 대중적당건설로선에 따라 로동자와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당에 받아 들이고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당의 로동계급적,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당을 끊임 없이 확대강화하여 나갔다. 당이 대중적당으로 건설되고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 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 당의 대중적당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됨에 따라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는 과정,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이며 대중적당건설로선은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다. 우리 당은 대중적당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당의 로동계급적성격을 견지하면서 당대렬을 끊임 없이 늘이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더욱 강화하게 되였으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과정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해 나갈수 있도록 전망성 있게 건설하시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하여 나갈 때에만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변함 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옳게 계승해 나가자면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 지고 혁명의 배신자들이 나타나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망쳐 먹는다는것은 력사가 보여 준 심각한 교훈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뿐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일찍부터 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는 우리 당에 의하여 드팀 없이 계승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나가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무기이며 당을 창건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후 지난 50년동안 인민대중을 령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귀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항일혁명의 피어린 투쟁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한 후에도 우리 혁명은 류례 없이 복잡한 정세와 간고한 투쟁속에서 전진하여 왔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량단,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제국주의의 끊임 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그에 따르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의 격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빛내여 왔다.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이 힘 있게 추진되여 나라와 인민의 모든 생활에서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보장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동등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온갖 사회적불안과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에서 벗어 나 값높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안정되고 공고한 사회이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생기발랄한 정서와 혁명적기상이 넘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며 동지적으로 서로 돕고 이끌어 주는 공산주의적미풍이 높이 발양되고 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뚜렷이 보여 주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고 승리의 한길을 걸어 왔으며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그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운동을 가로 막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그 모든것이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자기의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은 필승불패이며 현 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 시대,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가장 힘 있게 증시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길, 참다운 사회주의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헐뜯는 온갖 반동선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그 우월성과 불패성을 실천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창건 첫날부터 조국통일은 지상의 민족적과업으로 나섰다. 우리 당은 시종일관하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 당은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련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의 조국통일정책은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책이며 그것은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민족의 통일지향이 전례없이 높아 지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의 민족적단합이 강화되고 있다. 날로 더욱 장성강화되는 우리 민족의 통일력량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령도원칙과 령도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였으며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하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책이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며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혁명적 령도의 근본요구이다.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받으면 백번 패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이민위천의 사상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당의 모든 활동에서 기본출발점으로, 최고의 원칙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으며 인민의 어버이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와 풍모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 우리 인민의 훌륭한 기질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을 불러 일으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혁명적인 령도방법을 자기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웠으며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웠으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일상적으로 인민들속에 들어 가 인민들과 같이 숨쉬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과 우리 일군들의 사업에서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

로 신뢰하고 충성으로 받드는 이 진정한 동지적관계,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공고발전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위력이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되였다.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투쟁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그처럼 복잡한 환경과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추진시키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면서 끊임 없는 승리를 이룩하여온 비결이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며 그자체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그 나라 당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주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환경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특성으로 하여 우리 당에 있어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은 주체의 원칙, 자주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자주로선이며 우리 당은 이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 나갔다. 우리 당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온갖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기성리론과 기존공식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분석판단하고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복잡하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헤쳐 나갔다.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힘 있게 벌림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양되게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현대수정주의를 비롯한 기회주의의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 올수 있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하여 반석같이 다져 놓은 우리의 정치사상적힘과 위력한 사회주의자립경제와 불패의 자위적군사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제국주의와 지배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정치외교적압력과 사상문화적와해책동도 경제적봉쇄와 군사적위협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할수 없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허물수도 압살할수도 없다는것을 현실은 보여 주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공정한 국제관계의 기초이며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가장 정당하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이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발전된 민족이나 덜 발전된 민족이나 할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성을 서로 존중할 때 공정한 국제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진실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 온 주체적립장과 자주로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였으며 혁명적로선과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혁명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혁명적원칙을 지키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지키고 혁명을 편향 없이 승리에로 이끄는 길이며 혁명적원칙에서 물러서는것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저버리고 혁명을 패배에로 이끌어 가는 길이다. 혁명운동의 력사는 혁명적원칙에서 한걸음 물러서면 두걸음 물러서게 되고 두걸음 물러서면 열걸음 물러서게 되며 결국은 혁명을 망치게 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혁명적원칙성이 없고 로선과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는것이 온갖 기회주의의 특징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원칙성은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충실성과 신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당의 의지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 주시였다.

우리 당은 언제나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원칙, 로동계급적원칙, 사회주의적원칙을 견지하였으며 혁명적인 로선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 당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 없는 창조와 혁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령활하게 대처해 나가면서도 혁명의 근본리익과 근본원칙에서는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으며 혁명적원칙과 혁명적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혁명적원칙성에 기초한 높은 창조성과 령활성, 로선과 정책에서의 일관성, 이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여 온 중요한 령도원칙이고 령도예술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과 정책의 특징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 혁명적원칙에서 탈선한 일이 없고 원칙이 없이 우왕좌왕한 일이 없으며 로선상 과오를 범한 일이 없다. 우리 당의 혁명적원칙성, 로선과 정책의 일관성으로 하여 우리 혁명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곡절과 편향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되고 인민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릴수 있은것이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 있게 령도하여 온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운명을 당에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고 있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 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빛나게 계승완성될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하며 우리 혁명의 앞 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 놓여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이 길로만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움직일수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혁명적령도방법을 옹호고수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 주신대로 하며 모든것을 **김일성**동지식으로 해나가는것, 이것이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는 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당안에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 차게 하며 전당이 주체사상으로 숨 쉬고 주체사상으로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야 하며 언제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주체사상을 끊임 없이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사상의 변질은 당의 변질을 가져 오며 혁명과 건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이며 당의 위업을 고수하는것이다.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끊임 없이 투쟁하며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이 우리 내부에 발 붙이고 자라 날수 있는 자그마한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와 순결성을 고수하면서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며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개화발전시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며 통일단결은 곧 당의 힘이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이며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담보이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하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통일단결을 좀 먹는 온갖 불건전한 요소들을 반대하고 당대렬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 결코 자만하여서는 안된다. 당의 통일단결은 끊임 없는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서만 유지되고 공고화될수 있다. 가족주의, 지방주의, 종파주의를 비롯한 당의 통일단결을 좀 먹고 저해하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제때에 극복하여야 하며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를 더욱 강화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끊임 없이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키워 오시고 **김일성**동지의 령도 따라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 온 위대한 혁명적인민이며 우리 당의 인덕정치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훌륭한 인민이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에 끝 없이 충직한 우리 인민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무진장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 나가고 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한결같은 지지는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며 보살펴 주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더 잘 건설하며 일군들속에서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높여 당의 인덕정치를 더욱 빛나게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고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가 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 가자!≫는 당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 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품성을 가지며 검소하고 청렴결백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당과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힘차게 투쟁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한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난국을 뚫고 전진하여 온것처럼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오늘우리 당과인민은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 섰다. 우리 당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것이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다.

김정일총비서의 약력
(1942~1997)



1942년
· 2월 16일 백두산밀영에서 탄생

1952년
· 11월 22일 만경대혁명학원 4학년에 편입, 그후 삼석인민학교, 평양제4인민학교, 평양제1중학교

1960년
·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

1964년
· 3월 18일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
· 6월 19일 4월초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가시여 당사업전반을 료해연구, 이날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

1969년
· 10월 가극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 제시

1973년
· 4월 11일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추대.

1974년
· 2월 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추대.
·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하신 결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에서 **김일성**주의화 강령선포
· 4월 2일 당의 리론선전일군들과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하심
· 4월 14일 고전적로작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발표.
· 10월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70일전투≫를 발기

1975년
· 7월 검덕광산을 현지지도
· 11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

1979년
· 10월 5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발기.

1980년
· 10월 14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대

1981년
· 5월 서해갑문건설에 대하여 방침 제시, 착공. (1986년 완공)

1982년
· 3월 31일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발표
· 6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80년대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
· 10월 17일 로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발표



1983년

· 5월 3일 로작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발표.

· 6월 1일~6월 13일 중국을 비공개 방문

1984년

· 8월 3일 평양시경공업제품전시장을 현지지도하시고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의 발단을 마련

1985년

· 8월 3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연설 발표.

1986년

·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를 하심

1987년

·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담화를 하심

1988년

· 2월 제3차 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200일전투≫를 제기.

· 5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라는 담화를 하심

1989년

· 12월 광복거리 제2단계건설과 통일거리건설을 기본으로 한 5만세대살림집건설을 제기.

1990년

· 2월 ≪90년대속도≫창조운동을 제기.

· 6월 2일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를 보내심

1991년

· 5월 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를 하심

·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

1992년

·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이라는 담화를 하심

· 4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심.

· 10월 10일 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발표.

1993년

· 3월 1일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라는 담화를 하심

· 4월 9일 공화국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1994년

· 7월 20일 위대한 수령님을 추도하는 중앙추도대회 참석.

· 10월 16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담화를 하심

· 10월 29일 새로 개건된 단군릉을 현지지도.

· 11월 1일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

1995년

· 5월 24일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심

· 6월 19일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발표.

1996년

· 6월 10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 시찰.

· 8월 24일 청년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기관지≪청년전위≫에 담화≪**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자≫발표

· 11월 24일 판문점을 현지시찰

1997년

· 6월 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전신명령 ≪모내기를 끝낸 전국의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줄데 대하여≫하달

· 6월 19일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발표.

· 8월 4일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발표.

· 10월 5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절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롱구경기 관람.

· 10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

1998년

·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지도사업

조선인포뱅크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4월 1일 당중앙위원회에 오시여 6월 19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시였다.

1960년대중엽 우리 인민은 국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제시한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면서 특히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기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타협하고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면서 세계혁명발전에 큰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한편 우리 당안에서는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나타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사업을 각방으로 저애하고 있었다.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첨예한 때에 우리 당앞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오신 첫 시기에 당사업과 당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료해하시면서 당사업의 중심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당사업의 주선을 바로 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5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에게 당사업의 주선에 대한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 사업과 활동에서 주선은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입니다. 전당에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우리 당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전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은 수령님의 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데 집중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일군들부터 사업에서 주선을 확고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철두철미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 중심을 두고 일해나가며 아래단위를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명확한 지도요강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당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교시집행대책을 세우고 총화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당일군들도 주선을 똑바로 틀어쥐고 사업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봄과 여름에 자강도와 황해북도, 평안북도, 1965년 5월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을 없애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사업에서 주선이 바로세워짐으로써 당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참신하게 발전시켜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주선을 바로 세우신데 기초하여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 나가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1960년대중엽 우리 당안의 형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1967년 5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시기 당안에 나타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반혁명적인 움직임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 준비사업을 세심하게 보살피시였다. 그리고 회의전과정이 당안에 숨어있던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들을 적발분쇄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 당사상업부문앞에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유일사상교양을 새로운 높이에서 진공적으로 밀고 나가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6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에서 유일사상교양의 구체적과업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8월에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초급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제때에 전달침투하는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하시였으며 12월에는 ≪**김일성**저작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출판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5월말에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로 개편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중요단위들에서 현지교시판, 혁명사적관을 잘 꾸리고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으며 1968년 7월과 이듬해 8월 량강도일대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보천보, 삼지연, 포평 등 량강도 일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이후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사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의 사상여독을 청산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당위원회 제4기 제4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인민군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전당과 전군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이 이룩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후반기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인하여 극도로 긴장해지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와 1967년 6월말부터 7월초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며 그를 위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기회주의적경제리론을 짓부셔버리는것이라고 보시였다.

당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리론≫과 물질적자극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관리리론에 일정한 일리가 있는것처럼 여기면서 경제건설에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립장을 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6월 13일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에서 물질적자극을 절대시하는 수정주의적경향과 정치도덕적자극을 절대시하는 좌경적경향에 대해 비판하시고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에 적극적인 균형을 맞출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10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당비서들의 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수정주의경제리론의 반동적본질을 거듭 밝히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대한 지도검열사업을 포치하여 사상전을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사상전이 심화됨에 따라 기회주의적경제리론과 그에 사상적바탕

을 둔 소극성과 보수주의가 깃부셔지게 되였으며 모든 일군들이 주체적경제리론으로 무장하고 신심에 넘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7월 3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몸소 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에로 이끌어주시였다.

2

1967년 8월 8일, 룡성기계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고조를 일으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의 본질과 의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면서 룡성의 로동계급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에 무한히 고무된 룡성의 로동계급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관철에서 혁신을 일으킬 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하고 대고조의 기수답게 1967년 인민경제계획을 80여일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룡성의 로동계급의 호소와 투쟁성과는 전국의 로동계급을 혁명대고조에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을 건설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8월에 장진강발전소, 9월에 평양화력발전소, 1968년 9월에 북창화력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고 발전능력을 나라의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게 하시였다.

그리고 황해제철소를 비롯한 금속공장들과 기계공장, 화학공장, 평양과 함흥, 구성의 경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공업부문에서 기술개건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간 공업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대관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의 지방산업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기술개선사업을 다그쳐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실현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은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1967년 10월과 그 후 여러 차례 대안전기공장을 찾으시고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에서 모범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1968년 4월에는 자재공급위원회를 찾으시여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숙천군, 회양군 포천협동농장들을 찾으시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과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중요한 알곡생산지대인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벌방지대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량강도의 산간지대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알곡생산을 늘이고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공업부문의 기술개건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농촌경리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국방건설에서도 혁명대고조를 일으키도록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오던 미제는 1967년 4월 판문점사격사건, 1968년 1월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의 우리 나라 령해침입사건, 1969년 4월 ≪이씨－121≫대형간첩비행기의 령공침입사건 등을 도발하고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극도로 긴장해지는 정세를 헤아리시고 1968년 2월 2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들을 밝히시고 그 실현에로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군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을 비롯한 정치사상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부대안의 모든 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골간인 군사지휘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전법에 정통하고 어떤 정황에서도 전투지휘와 부대관리를 능숙히 할수 있는 주체의 령군술을 깊이 체득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5년 봄부터 1967년 여름사이에 인민군대 비행구분대들과 동서해안의 해군부대들, 여러 포병구분대들을 찾으시여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에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위력한 현대적무기들을 많이 생산하도록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민무장화를 위하여 제대군인들과 우수한 근로자들로 로농적위대대렬을 더 늘이고 그 지휘체계를 보다 정연하게 세우며 무장장비와 훈련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함께 전국의 요새화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1967년 7월과 그후 여러 차례 동서해안과 군사적요충지대들을 돌아보면서 지리적 특성에 맞게 방어진지들을 견고하게 축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의 군사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되여나감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여 적들의 온갖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저지파탄시킬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0돌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며 이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들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1년8월 30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고난에 찬 혁명의 60성상을 돌이켜보시면서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기나긴 세월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나면 수령님께서 환갑을 맞으시게 됩니다. 이제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우리가 걸머지고 나가야 합니다.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2년 4월에 하신 담화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명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 가르치심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한 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선전하며 길이 전하는 것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도록 정중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혁명박물관과 각 도들에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을 잘 꾸리고 개선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수반들과 항쟁투사들, 국제기구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삼가 올린 선물들을 국보로 잘 보존하기 위하여 선물진렬관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까지 6개년계획의 2년분과제를 앞당겨 끝내며 6개년계획수행의 중심고리로 되는 공작기계 3만대 생산목표점령을 위한 로력투쟁을 힘차게 벌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과 존함을 모신 후장과 영예상, 선물시계표창제를 제정하고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초상휘장을 제작하며 그 수여사업을 의의깊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담긴 명절선물을 잘 준비하여 전국의 모든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안겨주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은 우리 인민들에게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게 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혁명적사명감을 깊이 안겨주는데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때부터 해마다 4월 15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을 거쳐 1970년 9월부터 부부장, 1973년부터 부장, 이해 9월부터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사업하시였으며 1972년 10월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 우리 당사업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틀과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을 참신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당조직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대렬을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장성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하시였다.

3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부문의 당력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당장성사업을 벌려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새 세대들, 특히 로동청년들속에서 선진분자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이게 하시였으며 각계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과거를 묻지 말고 현행을 기본으로 하여 입당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당원증교부사업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세우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당중앙은 이로부터 사상사업에서 고질로 되여있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었습니다. ≫(≪**김정일**선집≫제3권, 453페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의 내용을 철두철미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시였으며 1973년 3월에 여러가지 명칭으로 되여있던 학습반들을 ≪김일선동지혁명사상학습반≫으로 개편하게 하시고 모든 학습반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하게 하시였다.

그리고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거점으로 주체 사상원리교양과 충실성교양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학습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3년 봄에 문학예술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문답식학습방법을 받아들여 시범을 창조하게 하시고 1973년 11월 5일 제1차 전국예술인학습경연대회 참가자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문답식학습방법의 우월성과 그 구현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후 문답식학습방법이 전당적으로 일반화됨으로써 당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연선전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그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당적으로 강연강사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강연망도 재정비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상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3년 6월에 당, 경제, 출판보도 일군들과 예술인들로 경제선동대를 무어재령, 은률, 태탄 광산들에 나가 경제선동의 경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이해 11월 금성뜨락또르공장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큰 규모의 경제선동을 벌려 경제선동의 본보기를 창조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생활력이 확증된 새로운 경제선동방법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각 도, 직총, 사로청을 비롯한 근로자단체들에 경제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선전대를 조직하고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는 일하면서 활동하는 기동예술선동대를 내오게 하시였다. 그리고 신문, 방송, 텔레비죤, 영화를 통한 경제선동도 강화하고 당, 행정경제 일군들이 직접 사회주의건설의 전투현장에 나가 경제선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데 깊은 주목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각급 당위원회 부서들이 혁명적인 직능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업하는 새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사업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한달에 20일동안 올라와 재무장, 재작전하는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며 통계를 받아내는 식의 행정화의 경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사업의 내용과 방법, 체계전반에서 오랜 기간 부식되여온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이 점차 극복되고 당사업이 혁명적이고 참신한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부문사

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 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것을 문학예술혁명의 본질로 규정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도록 하시였다.

영화예술은 문학예술의 다양한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영화예술은 먼저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혁명을 위하여 그 담당자들인 영화예술인들을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주의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전달침투체계와 학습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도록 하시고 1970년 1월에는 종래의 낡은 예술총화회의제도를 없애고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영화예술부문 당회의들과 무대공연총화모임들을 지도하시면서 영화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당의 지도밑에 창작활동을 벌리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이 연기훈련, 화술훈련과 미학리론학습을 강화하고 기량발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예술적기량을 빨리 높이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창조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을 이끌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영화혁명을 일으킬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문학예술전통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사업이며 그것은 또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본보기로 하여 영화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입니다. ≫(≪**김정일**선집≫ 제2권, 12페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맡아할 백두산창작단을 무어주시고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작품창작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풍부한 경험을 쌓은데 기초하여 1968년 4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길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120여차의 정력적인 지도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단 40일동안에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제18차 세계영화축전에서 특별상, 특등메달을 받는 대걸작으로 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 주체의 혁명적영화예술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 6월 18일 작가, 연출가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에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1970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인민상계관작품인 ≪꽃피는 마을≫을 비롯한 수십편의 성과작들이 창작되였다.

영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혁명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1969년 2월 자주시대와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문학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112페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한다는 것은 명실공히 수령을 형상한 문학을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에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수한 작가들로 4.15문학창작단을 무어주시고 창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려명≫, ≪1932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창작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에 옮기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는 혁명전통주제와 조국해방전쟁주제, 사회주의현실주의주제,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4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혁명문학으로 재현되고 장편소설≪영원한 미소≫,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백양나무≫와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도록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심오한 사상리론적탐구로 심화발전시킨 문예사상 리론과 방침들, 문학예술혁명을 지도하시는 과정에 쌓으신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전일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여 1973년 4월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창작에서의 속도전에 관한 리론,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작지도체계에 관한 리론들과 주체적인 영화 연출리론과 배우연기, 촬영, 음악, 미술리론 등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애며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본고리를 생산공정의 자동화에서 찾으시고 공업부문에서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면적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황

해제철소를 그 본보기단위로 정하시였다.

황해제철소는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로동계급의 핵심부대가 집결되여있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야금기지이며 어렵고 힘든 로동이 많이 남아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심려하시고 깊이 관심하시는 대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2년 12월에 유능한 기술일군들로 강력한 기술집단을 무어 황해제철소에 파견하시고 그들이 이곳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흥겹게 일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을 자동화실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자동화가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높이에서 본보기를 꾸릴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공정들을 먼저 자동화하여 경험을 쌓고 신심을 가지게 한 다음 점차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하는 순서로 공사를 내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를 위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대책을 세워주시고 1년 남짓한 기간에 100여차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30여차에 걸쳐 몸소 마련하신 자동화기구, 요소, 설비들을 현지에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황해제철소의 자동화는 빠른 기간에 추진되여 전면적자동화의 본보기가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제철소에 창조된 자동화의 본보기를 공업부문에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3년 12월에 주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과 3대혁명소조 책임자들의 방식상학을 조직하여 황해제철소의 자동화경험을 따라 배우게 하시였으며 자동화의 경험을 쌓은 기술자들을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자동화의 본보기가 금속, 화학, 건재 공업부문에 일반화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자동화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기술혁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나가심으로써 탄광, 광산들의 채굴, 운반설비들의 대형화, 고속도화가 적극 추진되고 림업,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수준이 한층 높아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당에서는 농촌기술혁명에서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여 모든 농사일을 보다 헐하고 흥겹게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자오가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황해제철소의 자동화경험을 빨리 받아들이고 생산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였으며 각 도에 농기계공장들을 일떠세우고 각 군에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를 꾸리며 협동농장들에 간단한 농기계들을 제작수리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산리에서 종합적기계화, 화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청산협동농장을 농촌기술혁명의 본보기로 꾸리고 그 성과를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해 각도에 건설하는 곡산공장들과 시, 군들에 건설되는 국수, 밥, 옥쌀 공장들 그리고 도처에 건설하는 남새, 물고기, 과일 가공공장들을 빨리 완공하여 조업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한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촉진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많이 벗어나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시고 우리 인민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일찍이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숭고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5년 봄과 1970년 5월,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전략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사상은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옳바른 립장을 확립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 안팎의 정세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3대혁명력량이 강화된 반면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안팎으로 더욱 고립되여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어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1년 8월 6일 북남간의 폭넓은 협상제안을 내놓으시여 북남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였고 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들과 하신 담화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통일대강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그대로 반영한 북남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북공동성명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의 정신을 철저히 관통시켜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추호도 양보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2년 5월 북남공동성명초안을 친히 보아주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성명의 전반내용이 구성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고 적들이 조국통일 3대원칙이 합의되였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책동하는데 대처하여 판문점회담에서 주동적공세를 들이대게 하시는 한편 우리의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의 내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보도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하였다.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내외에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된후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북남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에서 남조선괴뢰들이 계속 써오는 지연전술을 파탄시킬 방안을 밝혀주시여 1971년 9월부터 1년간이나 끌어오던 북남적십자예비회담을 불과 20일만에 결속하고 1972년 8월부터 정식 본회담에로 넘어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북남고위급회담도 적극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화마당에 끌려나온 남조선괴뢰들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장애들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회담에서 통일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협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의 회의에서는 민족의 상설적인 공동기구로 남북조절

위원회가 정식 구성되고 11월말부터는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진행되게 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5대방침을 새롭게 내놓으시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한것으로서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에 철추를 내리고 온 민족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선언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신과 신문, 방송들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대한 해설선전공세를 벌리며 전국각지에서 이를 지지하며 7.4공동성명을 배반한 남조선괴뢰들을 폭로단죄하는 군중집회들을 광범히 진행하고록 하시였다.

5

이 과정에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의 공명정대성이 내외에 널리 인식되게 되였으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분렬주의적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시고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1973년 6월과 7월에는 유엔에 상주할 대표부설치와 유엔을 통한 대외활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1973년 9월에 열린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합과 국제기구회의들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결정과 선언, 결의들을 채택발표하였다. 그리고 1973년 하반기에 열린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환영하고 미제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도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더욱더 고립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승리의 신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정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대외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힘쓰시였다.

1960년대중엽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섰으며 하나의 신흥세력으로 등장하였다. 혁명력량의 장성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평화전략≫을 내걸고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작고 혁명적인 나라들을 각개격파하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대렬안에 나타난 좌우경기회주의와 그로 인한 의견상이로 하여 시련을 겪고있었으며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하고있었다.

조성된 정세는 반제혁명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우리 당앞에는 세계혁명발전을 위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대외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획기적대책들을 세워나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사업의 총적방향과 기본사명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5년 4월과 1966년 봄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외활동의 총적방향을 제시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충성으로 받드는 것을 대외활동의 기본사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견지해야 할 립장과 자세, 자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은 어제 어디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변함없는 높은 충성심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대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규률을 세우며 모든 일군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 외유내강하고 고상한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대외활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기간에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충성으로 받들어드리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대외선전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수령님의 위대성과 주체사상에 대한 대외선전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수령님을 흠모하고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1969년 말리에서 처음으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조직된데 이어 이해말까지 20여개 나라에서 수십개의 주체연구소조들이 조직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활발히 연구보급하였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토론회들이 조직되였으며 그것은 점차 나라별, 지역별 범위로부터 세계적규모로 확대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지 위하여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대외활동의 주공방향으로 틀어쥐고 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5년 5월 9일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하신 담화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자≫에서 신흥세력, 쁠럭불가담운동이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된다는 것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 당 대외활동의 중요한 방침의 하나입니다.≫**(≪**김정일**선집≫ 제1권 93페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과 미제와 이스라엘팽창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아랍나라들의 투쟁, 민족해방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과 라틴아메라카나라들의 반미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기구들에도 적극 들어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과 1968년에 우리 나라 대표단들이 북구라파나라들, 중립을 표방하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진출하여 부역관계를 맺고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게 하심으로써 1973년에 이르러 이 나라들과 국가적인 외교관계를 맺을수 있게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관계는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60여개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고 100여개 나라와 경제문화교류를 진행하였으며 백수십개의 국제기구에 들어가 활동하는데로 발전하였다.

대외활동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과 우리 당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공산주의 인간학

정통과 계승

197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승리를 총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에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문헌에 나와있다. 특히 이 대회의 의의는 그 무렵부터 인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리우기 시작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의도였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투쟁성과가 정확하게 총화되는 대회였다는데 있었다.

>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개척하신지도 이제는 퍽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반세기나 되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에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했고 사회도 사람도 강산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 혁명의 영도의 중심이고 우리 혁명대오의 단결의 중심입니다.
> 우리 당은 수령님을 영도와 단결의 중심에 확고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를 없애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 대열의 확고한 사상의지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되고 단결된 것, 이것이 당 제5차대회에 내놓을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가장 주되는 역사적 총화입니다. ≫

김정일비서는 이어서 수령의 초상휘장을 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맨 처음에 나온 휘장을 자신이 제일 먼저 달아야겠다고 말하였다. 곁에 있던 일꾼이 오른쪽 가슴에 달아주려고 하자 그는 심장 위에 모셔야 한다면서 왼쪽 가슴에 달았다. 그것은 조선혁명을 주도해온 전통을 상징하며 당이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통일단결되었음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 그 중심에 수령을 표상한 것이었다.

>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상징한 이 초상휘장을 모시고 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피의 전취물입니다. 우리는 피로써 쟁취한 당의 통일단결을 영원히 옹호고수해 나아가야 합니다. ≫

11월 2일, 연단에 나선 **김일성**주석은 조선노동당이 총결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긍지높여 총화하면서 특히 당의 강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고 당문헌에는 인용되어 있다.

> ≪오늘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장 생활력있고 가장 공고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처럼 바라던 당의 통일과 단결은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유일적인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투쟁의 빛나는 결과이며 우리 당 건설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

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자료에 밝혀져 있듯이 당을 강화하고 인민을 그 두리에 보다 공고하게 묶어세우는 데 있어서 사상사업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김정일**비서가 당사업의 첫 출발로 삼았던 것은 혁명가의 기본임무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의 실천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며 사상사업에서의 선전선동 분야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본 초상휘장의 일화도 수령이 개인이 아니며 근로대중의 이익의 체현자이고 사상의 중심임을 표상하자는 데 있었다. 북조선을 다녀간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이 북조선 인민을 가리켜 ≪한가족 같다≫라거나 ≪주민 전체가 운동권의 구성원들인 셈이다≫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실도 어느 면으로는 적중한 표현인 셈이다.

사상생활분야에서 근본적 변혁을 이룩해야 할 당사상사업의 방향타를 잡은 **김정일**비서는 이 사업의 전환의 주요한 고리가 문학예술에 있다고 보고 문학예술혁명을 단행하기로 결심했다. 즉 문예혁명은 당사상사업에서 주공목표로 상정되었던 것이다. 어느 해외의 예술가는 비서의 이러한 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일반 정치가들이 특수한 기량을 가진 전문가의 영역인 문학예술에 직접 개입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물론 문예의 어느 부문에 교양을 갖춘 정치인들이나 혁명가들은 많습니다. 그중에는 예술가에 대한 사상적 지도를 위하여 자신의 혁명사상에 입각해서 평론활동을 한 혁명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김정일**비서의 경우에는 문예활동의 각 부문에 걸쳐서 깊이있는 감상자나 논평가의 입장을 훨씬 넘어서서 스스로가 창조적 활동에 뛰어들었으며 주체예술의 확립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

일부에서는 이를 특수한 개인의 호사 취미나 무슨 엉뚱한 재간으로 악선전하는데 이는 시기가 늦어졌을 뿐 식민지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부터 노동계급의 일차적 숙제였다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 압제와 계급적 착취에서 해방된 뒤에 우리 근로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학예술을 자신에 맞게 형성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갓 태어난 공화국의 사정은 내외의 적들과 싸우며 사회개혁을 하



고 문화는 커녕 살아남느냐 마느냐 하는 엄청난 파괴를 감수하면서 미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분단까지 된 형편이었다. 외형적으로도 전쟁은 북조선의 모든 문화재를 말살시켰으며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비약적인 변혁을 이루는 가운데 봉건잔재와 생활방식 속에 녹아있던 민족문화를 긍정적으로 재현해낼 여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문예혁명의 당면과제로 내걸었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기치는 해방 이후부터의 절실한 과제였다 일제시기 사회주의 예술은 그 나름대로 교조와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해방뒤에도 경향성을 가진 진보적 문학예술의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사실 식민지시대의 맑스주의자라면 얼른 서구의 선진문물을 습득한 신사를 연상했듯이 사회주의 예술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민중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어딘가 ≪하이칼라≫ 냄새가 풍겼다.

그러므로 김비서가 내세운 문학예술혁명은 문예분야에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과 고루한 틀을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혁명전통과 문화유산을 은근히 선망하는 사대주의를 척결하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문예혁명은 내용과 형식의 변혁은 물론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 전반에 걸치는 개조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다.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는 문학예술의 중심내용에는 온갖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는 새 시대의 인간전형과 인민대중이 놓여 있어야 하며, 형식에서도 내용에 걸맞게 인민들이 좋아하고 알기 쉬운 대중적인 예술형식이 개척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문학예술은 결국 자기 나라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게 창조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일**비서의 문예혁명의 요체가 되는 것은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였다. 즉 조선인민의 이익과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에 맞고 조선혁명에 철저히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학예술혁명을 성과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조사업에서 주체의 원칙을 지키고 당과 혁명의 이익,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구현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령형상창조에 큰 의미를 두면서 문학예술의 각기 다른 분야들에서 수령형상을 적극 창조하여 사람들 속에 혁명적 수령관을 옳게 수립하도록 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의 사업방법과 차례는 먼저 문학예술의 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적 예술가로 준비시키는 일이었고, 한편으로는 인민대중에게 위력한 사상교양의 무기가 되고 현대적인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영화를 맨 먼저 변혁하여 그 역량으로 다른 부문 예술들을 개조하는 순서였으며, 무대예술 가운데 가장 총체적이며 대중에게 호소력이 강한 가극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 드디어 문예혁명의 마무리 작업으로 창조적 실천과 경험에 입각하여 주체의 예술론인 ≪영화예술론≫을 쓰게 된다.

우선 주체예술에 대한 이론을 통하여 그의 문학예술혁명의 의도와 진수를 알아보고, 문예조직사업 전반과 영화의 제작 지도 과정, 그리고 무대예술 및 가극혁명의 작품창작과정이며 진행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이미 해방직후 민주개혁을 해나가면서 **김일성**장군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었으며, **김정일**비서가 내세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다≫는 원칙도 이러한 수령의 사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문예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제정신을 가지고 창작할 데 대한 중요과제로서 김 주석이 여러 노작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사회주의적이고 주체적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모든 양식과 형식과 시점과 형태에 있어서는 민족적인 자기 그릇에 담으라는 것이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과제를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당의 문예노선이라고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선상에서의 슬로건은 당시의 구라파 현실에서 일리가 있지만 제국주의 치하에서 민족해방을 쟁취하고 자기의 땅에 근로인민의 낙원을 건설해야 할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김주석은 30년대부터 줄곧 주체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조선사람은 자기 핏줄이 내린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버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선사람은 조선땅을 사랑할 것입니다. ≫

≪주체를 세우려면 먼저 자기 나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땅에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해야 합니다. ≫

이러한 사상이 문학예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그러므로 **김정일**비서는 자신이 주도한 문학예술혁명을 결산하는 총화사업으로서 영화예술론을 쓰면서 머리말에 이렇게 쓰고 있다.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세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낡은 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

그리고 당면한 문예의 변혁운동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영화예술이며 이는 문예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예술로서 혁명과 건설의 사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이었다.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 전반에 일반화해 나가는 것은 문학예술혁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라고 하였다.

김비서가 당중앙위원회에 들어가던 64년 12월 8일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의 소박한 회의실에서는 김주석이 연석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으며, 이를 여러 자료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 데 대한 이동 정치위원회≫로 밝히고 있다. 당사상사업의 시초를 열게 되는 모임이었던 게 틀림없다.

. . .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사업개시 34돐에 즈음하여

(평양 1998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신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4돐에 즈음하여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지금으로부터 34년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사변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김정일**동지의 30여년을 헤아리는 장구한 령도사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정치가,령도의 거장의 력사로 빛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사는 우리시대 혁명적령도의 최고귀감이 창조된 력사인것으로 하여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혁명의 먼 앞날까지 환히 내다보면서 백승의 전략을 펼쳐나가는 과학적인 령도이며 완강한 의지와 실천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인 령도이며 언제나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힘을 천백배로 불러일으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인민적령도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앞에는 오늘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특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장군님의 전사,제자로서의 신념과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생명선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그이의 령도업적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기고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조선≫은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빛나게 앞당겨나감으로써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위대한 태양으로 모신 주체조선의 영광을 만대에 자랑높이 떨쳐가자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위원회 사업개시 34돐에 즈음한 글

(평양 1998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신 때로부터 34돐(1964.6.19)이 되는 날이다.

지난 30여년간 그이께서는 줴기밥과 쪽잠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께서 이 기간 현지지도로 보내신 날은 3,693일(10년이상)이며 그중 명절날과 휴식일은 997일(근 3년간)이나 된다.

이것은 지난 2월 15일까지 집계된 자료이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맞으신 33번의 생신날가운데서 20번은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였다.

주체58(1969)년 2월 16일 그이께서는 평양시 순안지구를 돌아보시고 그길로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찾으시여 사회주의 농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에도 거의나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였다.

주체86(1997)년 4월 15일에는 1211고지의 군인들을 찾으시고 인민군전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시였으며 명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해주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자욱은 설명절과 기념일,명절날에도 아로새겨져 있다.

그이께서는 26번의 설명절과 22번의 당창건기념일,16번의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비롯하여 건군절,5.1절,헌법절 그리고 민속명절인 단오와 추석 등 80여번의 국가적휴식일들을 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보내시였다.

또한 이 기간에 근 절반에 달하는 일요일을 현지지도로 보내시였다.

주체64(1975)년 한해동안에만도 52일간의 일요일가운데서 40일간 99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해 3월 16일 일요일에는 도와 도의 지경을 넘으시며 13개단위에 령도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의 길은 진정 조국과 인민,시대와 혁명앞에 바쳐오신 무한한 헌신의 날들이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평양 1999년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들인 ≪로동신문≫과 잡지 ≪근로자≫가 공동으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의 론설을 발표하였다.

론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에 즈음하여 발표되였다.

공동론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로정은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는 사회주의정치의 빛나는 귀감이 창조된 의의깊은 나날이였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구현해나가시는 기본정치방식은 선군정치이다. 이 위대한 정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현실은 선군정치야말로 현대사회주의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불패의 정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

세계무대에 사회주의정치가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과정에 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각이한 류형의 정치방식이 나왔다.

정치방식이란 정치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체계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정치방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정치의위력과 정치제도의 공고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백수십년에 달하는 사회주의정치사는 사회주의의 본성에 맞는 완성된 정치방식을 모색하여온 과정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사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시대는 제국주의와 반제자주 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있는 투쟁의 시대이다.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자면 마땅히 군사가 중시되여야 한다.

선군정치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령도방식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 이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리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되고있다.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승리하며 전진하여온 혁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사전반이 곧 선군령도사라고 말할수 있다. 이 독특한 선군정치의 위력이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진 지난 5년간에 최상의 경지에서 발휘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에 세계의 이목은 우리 당이 어떤 정치를 펼것인가 하는데 집중되였다. 이러한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할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것은 결코 당면한 정세만을 념두에 둔 전술적인 조치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주체83(199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만도 무려 12만 350여리의 머나먼 군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5년 혁명실록은 눈오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변함없이 수많은 군부대들과 공장,기업소,농촌들을 찾으시며 우리의 국방력과 전반적국력을 튼튼히 다져오신 선군혁명령도의 력사이다. 그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의 모든 시련이 극복되고 화가 복으로 전환된것이다.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는 제국주의강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 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인민들은 선군정치의 길을 단호히 선택한 우리 당의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현실을 창조한 정치는 시대의 각광을 받기마련이다. 지금 세계정치계는 사회주의정치사에 처음으로 출현한 선군정치방식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오늘에 와서 선군정치가 시대적추세에도 맞고 사회주의본성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완성된 정치방식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구사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이다.

사회주의정치의 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떠난 정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옳바른 정치로 될수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하고있다. 혁명군대와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리해관계,지향과 념원은 완전히 일치한다. 군대를 중시한다는것은 인민을 중시한다는것이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운다는것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운다는것이다. 이것은 지배와 폭압의 수단이 아니라 인민속에서 나왔으며 인민에게 복무하는 우리 군대에 의해서만 가능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무한대이다. 그 무궁무진한 힘이 최대한으로 발동되게 하자면 인민들이 혁명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워 따라배우며 온 사회에 혁명군대의 투쟁 정신과 기풍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것이 선군정치이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는 정치는 마땅히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이 실시하는 국방중시가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것처럼 사실을 오도하여왔다. 심지어 그들은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정치를 ≪군권정치≫라고 악랄하게 비방하여왔다. 이것은 군대와 인민이 완전히 적대관계에 있는 자본주의나라에나 통하는 론리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군사를 강화하는 길이 애민의 길이고 애족의 길이다. 총대를 떠나서 인민의 안녕도 행복도 생깍할수 없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한다는것을 그 누구에게도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군사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정정당당하게 군사중시를 주장하는 우리당의 립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적힘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가장 자주적인 정치이다.

자주는 나라와 인민의 생명이고 혁명의 생명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이지 결코 예속으로는 될수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정치가 자주정치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체적력량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데서군사는 특출한 역할을 한다. 그 누구의 압력에도 끄떡없이 자주성을주장하는 정치적배짱도,혁명의 앞길을 주동적으로 열어나가는 정치적결단성도 군사적힘에서 우러나온다. 군사가 든든하면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남에게 눌리울것도 없다.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있고 자립도 있다.

오늘의 복잡다단한 세계에서 자기의 자주적대를 끝까지 고수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평시에는 요란스러운 언사로 자주를 웨치다가도 대국이 군사적압력을 가하면 굴종을 감수하는 례도 적지않다. 이런것이 주대가 없는 빈말정치이다. 자주는 말과 구호로써가 아니라 총대에 의하여 고수된다. 사회주의정치가 명실공히 자주적인 정치가 되자면 군사를 내세우고 군사적력량을 백방으로 다지는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는것,이것이 20세기 사회주의정치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견지명있는 정치이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승리한다. 총대의 역할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울 때에도 절대적이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하는 시기에도 절대적이다. 이렇게 혁명의 미래를 내다볼 때 사회주의정치는 시종일관하게 선군정치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정치에서 군사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는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이다. 정세가 긴장하면 군사를 강화하다가도 정세가 완화되면 군사를 약화시키며 사회경제적과업이 전면에 나서면 국방을 줴버리는 일이 사회주의정치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무덤을 파는 길이다.

예로부터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이 있다. 선견지명있는 정치가는 언제나 앞날에 있을수 있는 사태까지 예견하고 군사에 힘을 넣는 법이다.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설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 선군의 원칙이 구현되는 혁명이 미래가 양양한 혁명이다.

인류는 멀지 않아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20세기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의 하나는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군정치방식이 창조된것이다. 이 독창적인 정치방식은 21세기에도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는 불패의 정치

사회주의위업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을 동반한다. 사회주의정치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정치사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한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나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도 승리하였고 사상적대결과 정치외교적대결에서도 승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5년 혁명실록은 무비의 담력과 의지로 제국주의자들에게 련속타격을 가하여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은 승리의 기록이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두고 반혁명의 역풍을 과감히 뚫고 기어이 이기는 공격형의 정치라고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심각한 사상적대결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력한 정치이다.

제국주의와의 사상적대결은 힘의 대결에 못지 않게 간고한 투쟁이다.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성이 강하고 사상적신념이투철한 전위부대가 있어야 한다. 그 담당자가 바로 혁명군대이다. 군대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사회주의의 지탱점이 허물어지게된다. 설사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대가 견결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질수 없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와해되던 과정이 이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사회주의사상적보루를 지키는 묘술이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군대를 먼저사상의 강군,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킬 때 사상진지가 금성철벽으로 다져질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상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사상상태부터 료해하시고 충실성교양과 계급교양,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하여 군인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모든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이렇게사상사업선행의 정치원리로 일관되여있다. 이 혁명적령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상의 강군,신념의 강군을 낸게 한것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문화적침투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러나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는 더욱 숭고한 높이에 이르고있다.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숨쉬고 사고하는 우리 인민들도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제국주의황색바람이쉬도 쓸기전에 맹아단계에서 분쇄되고있는것이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으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의 자랑찬 현실이다.

원래 군대는 무력으로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을 지니고 탄생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군대가 조국방위의 담당자로 뿐아니라 사상전선을 지키는 제일기수로 되고있다. 인민군대가 있는 한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반동적사상공세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군사적대결에서 백전백승할수있게 하는 무적필승의 정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 하고있는 조건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우리 인민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로 될수 있습니다.≫

군사적대결은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가장 격렬한 형태를 띠고있다. 그것은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다.

랭전이 종식된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강도적인 힘의 론리에 매여달리고있다. 정치외교적방법으로 자기의 침략적야욕을 실현하지 못하면 지체없이 횡포한 군사적공격으로 넘어가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상투적인 수법으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도의나 관례도,공인된 국제법도 통하지 않는다. 군사만능의 힘의 론리에 환장한 제국주의자들에게 리성을 바라는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오만한 무력행사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 백전백승할수있는 튼튼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오성산과 대덕산을 비롯한 수많은 최전방지휘소로부터 군수공업기지에 이르기까지 몸소 찾으시여 국방건설의 모든 문제를 현지에서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우리의 군력이 최상의 수준에 이르게 한 생명수였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에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이 확립되고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갖춘 일당백,일당천의 강군으로 자라났다.

오늘 우리의 강력한 군력은 원쑤들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는 무자비한 장검으로 되고있다. 인민군대의 위력이 무한대하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무모한 핵소동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갈 때에도,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5027작전계획≫을 강행하려고 할 때에도 적들의 도전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킬수 있었다.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강적을 총 한방 쏘지 않고 타승한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담보하는 힘있는 정치이다.

외교전은 단순히 말과 말,두뇌와 두뇌의 싸움이 아니다. 능란한외교의 배경에는 정치군사경제적힘이 놓여있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이 제국주의와의 정치외교적대결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립장은 추호의 양보도 없이 혁명의 근본리익을 고수하는 강경한 자세이다. 간악한 제국주의와의 외교전에서는 한걸음의 양보가 백걸음,천걸음의 양보를 가져온다. 국제정치사에는 제국주의의강압에 못이겨 한걸음 후퇴한탓에 신성한 자주적권리를 침해당하고 나중에는 혁명의 전취물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강경한 자주외교는 바란다고 하여 실현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치렬한 외교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마지막주패장은 언제나 자기의 튼튼한 정치군사적 잠재력이며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필승의 신념이다.

오늘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적들과의 외교전에서 필승의 담보로 되고있다. 수십년동안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마련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고있다. 전쟁이 터지느냐 마느냐 하는 일촉즉발의 시기에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여러갈래의외교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있는 선군정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그어떤 위협공갈에도 끄떡없이 할 소리를 다하면서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강경하게 맞서나갈것이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이다.



제국주의를 타승하여야 사회주의가 정의의 위업으로 빛을 뿌릴수 있다.

그 유일무이한 보검이 선군정치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독단과 전횡을 짓부시고 인류의 량심과 사회주의를 지키는 정의의 정치로 영원히 위력떨칠것이다.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는 현명한 정치

지난 5년간의 선군혁명령도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것은 이 나날에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된것이다.

선군정치는 비단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만 위력한것이 아니다. 단순히 군사를 위한 군사,국방력강화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이르게 하는 정치가 바로선군정치이다. 이것으로 하여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의 어떤 어려운 과제도 해결할수 있는 만능의 정치,일석다조의 현명한 정치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사회의 튼튼한 밑뿌리를 마련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이것이 군민일치사상의 본질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입니다.≫

국력이 강한 나라란 밑뿌리가 든든한 나라이다. 정치의 현명성은 사회의 밑뿌리,사회정치적지반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 나타난다. 력사의 교훈은 강대한 군사력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큰 나라라해도 사회정치적지반이 공고하지 못하면 붕괴될수 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밑뿌리가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군대와 인민이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야 한다. 군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사회를 받드는 주추돌이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2대력량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갈 때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고한 사회정치적지반이 형성되게 된다. 이것이 선군혁명철학에의하여 밝혀진 혁명의 공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군민일치가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인민군대에서 창조된혁명적군인정신,수령결사옹위정신이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되고 군대의 일본새와 투쟁기풍,도덕과 문화가 사회에 끊임없이 흘러들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사랑하고 원호할뿐아니라 그들사이에 사상의 일치,투쟁기풍의 일치가 보장되고있는것이 우리 사회의 진면모이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군민일치가 억세여우리 혁명대오가 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전한것이다. 군민의 혼연일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초이고 사회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활력소이다. 이 위대한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우리는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정권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담보이다.

원래 정권과 총대는 떼여낼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총대에서 정권이나온다는 명언은 정권건설에서 혁명무력이 노는 역할을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는가.

우리의 정권건설력사는 곧 선군정치의 력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정권이 창건되기에 앞서 군대가 먼저 건설되였다.

항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강화발전된 위력한 혁명군대가 있었기에해방후 지체없이 당창건위업이 실현되고 우리 공화국이 창건될수 있었다. 선군혁명령도의 이 고귀한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이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고한 혁명정권으로 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하에서 지난 5년간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는 비할바없이 공고화되였다. 나라의 모든 정치,군사,경제적력량을 통솔지휘할수 있게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이 강화된것은 조국의 밝은 전도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군사중시의 우리 국가기구체계는 무적의 군사력에 의거하여 나라의 정치적자주권을 확고히 담보하고 경제발전과 나라의 부흥을 힘있게 추동하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정치체제이다.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창조적능력의조직자,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역할을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기본수단이라면 군대는 정권을 지키는 기본수단이다. 현실은 군중시방향으로 나가야 사회주의정권의 정치경제군사적토대가 철옹성같이 다져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선군정치는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활력있고 강유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무기로 강화발전시킬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원동력이다.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경제를 추켜세우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이 거창한 과업은 선군정치를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다.

한때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부의 소비자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한것이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조건이 보장되게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주력군,돌격대로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과제도 해제끼고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킨다. 선군정치에서 잃을것은 침체와 답보뿐이고 얻을것은 비약과 고조,민족의 부흥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 굳게 믿으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제일 어렵고 관건적인 전선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그리고 전체인민이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조성된 경제적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우리 경제가 활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우리의 기술,우리의 자원,우리의 힘으로첫 인공지구위성이 성과적으로 발사된것은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과시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책동하여 왔다. 그 리면에는 우리가 경제건설에 큰힘을 돌리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가 저절로 붕괴되게 하자는 검은 속심이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정세를 격화시켜도 우리경제는 질식되지 않았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도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진퇴량난에 빠진것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앞으로



도 선군혁명로선으로 적들의 조선식사회주의의 ≪위기설≫,≪붕괴설≫을 과감히 짓부시고 보란듯이 민족경제를 부흥번영시킬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두차례의 가장 혹심한 파괴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을 소생시켰다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가장 어려운 역경속에서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다. 그 빛나는 공적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우리 혁명은 선군정치로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선군혁명의 길은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혁명의 종착점에 잇닿아있는 필승의 길이다. 우리는 선군정치가 앞으로도 우리 혁명과 우리 시대 자주위업수행에서 무궁무진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에 있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며 구현자,관철자이다. 인민들속에 뿌리박고 인민자신의것으로 된 정치가 참말로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정치이다.

우리 인민은 당을 따라 걸어오는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페부로 절감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무적의 강군을 이끌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때마다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심장깊이 새겨왔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없다면 조국도 혁명도 없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이다.

오늘 세계에는 인민들과 유리되고 인민의 버림을 받는 정치가 횡행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같이 인민들을 심취시키고 온 넋을 틀어잡는 정치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 인민은 군력이 약한탓에 망국노로 굴러떨어졌던 쓰라린 력사도 가지고있고 억센 총대로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한 영광의 력사도 가지고있다.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와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이 뼈와 살에 새긴 신조이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절대로 혁명의 총대를 놓지 않을것이며 선군혁명의 일로를 끝까지 걸어갈것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영원한 생명력은 령도자의 특출한 자질에 있다.

정치방식은 정치가의 사상과 품격의 반영이다. 정치방식의 위력은 결국 정치가의 자질과 수완에 달려있다.

선군정치방식은 그 누가 모방한다고 하여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선군정치방식은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정치에도 만능이고 군사에도 만능이고 경제문화에도 만능인 탁월한 정치가에 의해서만 구현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현시대가 갈망하는 장군형의 정치가의 최고귀감이시다. 예리한 정치감각과 비상한 군사적예지,전당,전군,전민을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뛰여난 조직적수완과 령군술,무비의 담력과 결단성,정치와 군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해박한 지식을 다같이 겸비하신분이 우리의 **김정일**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는 군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문제에서도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문무를 겸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떠나서 이 땅에 무적의 군사력에 의거하여 백전백승하는 선군정치의 새 력사가 펼쳐진데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정치야말로 **김정일**동지의 걸출한 위인상이 집약되여있는 위대한 혁명령도방식이며 장군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독특한 **김정일**식정치방식이다.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고 영원불변한것이다.

우리 당의 사회주의정치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선군정치의 승리의 력사로 수놓아지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가 찬란히 펼쳐지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누구나 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제자답게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대가 강해야 우리 인민이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들을 보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군혁명로선을 우리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한다.

군사를 앞세우는것은 전술적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운명과 전도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문제이다. 정세가 긴장되든 완화되든 관계없이 견지해야 하는것이 바로 선군혁명로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때로는 ≪유화≫정책을 쓸수도 있고 ≪강경≫정책으로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든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군사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원칙으로부터의 탈선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혁명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사소한 안일과 해이도,부르죠아평화주의의 자그마한 요소도 있을수 없다. 인민군대에서는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전군을 오늘의 오중흡7련대로 만들어야 하며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어데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싸움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온 나라를 소왕청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나가야한다.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 군민의 단합된 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당,국가 활동,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국가적,전사회적으로 인민군대를 내세우고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기풍이 서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를 위하여 매우 좋은 일이다. 오늘 우리사회에 차넘치는 군사중시의 기풍은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주추돌이 되고 손발이 되려는 우리 인민의 충효심의 뚜렷한 발현이다.

모든 당,국가경제 기관들에서는 군사사업과 관련한 과업을 무조건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강력한국방력을 담보해주는 우리 식 경제구조를 적극 살려야 한다. 누구나인민군대의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배우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다.

위대한 선군혁명로선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있는 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위상은 만방에 떨쳐질것이며 이 땅우에는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다.



김정일총비서 당중앙사업 35돐기념 중앙보고대회

(평양 1999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는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전병호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확고히 담보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보고자는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그이는 당과 국가,군대의 령도자로서 35년이란 장구한령도사를 수놓아오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로련한 정치원로이시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로동당과 혁명대오의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놓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위업앞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 특히 지난 5년간의 투쟁속에서 더욱 힘있게 과시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이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는 사회주의정치의 귀감이며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보고자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인민군장병들은 그이를 모시고 있기에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고 혁명의 종국적승리가 확고히 마련되여있다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더 잘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대회에는 김영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불멸의 35년

로동신문

(평양 1999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8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35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불멸의 35년≫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실었다.

정론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선견지명있는 혁명령도를 이어 당건설을 군건설과 함께 진행하시여 주체위업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의 가장 강력한 2대기둥,2대무기를 마련하신것이 조선의35년사에 실려있는 그이의 공적중의 최대의 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조선의 지난 35년간은 류달리 복잡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으나 이나날 조선의 혁명군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가장 현명한 령도를 받았고 당은 혁명군대의 가장 믿음직한 보호와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였다.

정론은 보통으로는 열번도 더 무너지고 페허로 되였을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용약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 오늘의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밑바탕에도 35년전부터 함께 건설해온 불패의 당과 장군의 위력이 놓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론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전력사를 더듬어보면 조선로동당사업을 령도하시는 그이의 옆에는 언제나 혁명군대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대를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어려있는 숭고한 뜻이다.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그 위력과 모범이 곧 조선로동당의 기질로,모습으로 되여 전당이 총대처럼 정예화되고 튼튼히 다져졌다.

조선로동당과 혁명군대는 오늘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대결에서도 금성철벽,자본주의황색바람을 휼날려보내는데서도 금성철벽,제국주의반동들의 비렬한 훼방을 쳐갈기는데서도 금성철벽이다.

조선혁명의 35년사는 정녕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는 이 위대한 혁명철학으로 고동친 력사이며 이 강철의 의지를 따라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고 주체위업완성과 강성대국건설의 필승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력사이다.

정론은 총대로 개척한 위대한 력사,총대와 함께 건설한 위대한 당을 가지고있는 조선혁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시작 36돐 기념 행사들

(평양 2000년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6돐기념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16일에 각각 진행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공연과 청년학생들의충성의 시,노래모임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30여성상 혁명과 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조 높이 구가하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농근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와 비범한 령도력,끊임 없는 현지지도로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또한 이날 녀맹원들의 시랑송모임 <어머니당을 노래합니다>도 진행되였다.

김정일정치의 위대성에 언급

로동신문

(평양 2000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19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36돐에 즈음하여 실은 사설에서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조선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치는 인류정치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인 정치,무한대한 위력과 생활력을 가진 백전백승의 정치이라고 지적하였다.

근 40년간에 걸치는 오랜 기간 단 한번의 착오나 실패도 모르는 과학적인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빛 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데 희세의 정치가로서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대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그이의 위대성은 가장 철저한 자주정치,사랑의 정치,믿음의 정치를 펴나가시였으며 불패의 선군정치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시는데 있다고 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의 위력은 가장 준엄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담대한 배짱과 정정당당한 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조선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조선의 기적같은 승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승리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라는 다함없는 수령숭배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신문은 비범한 정치적안목과 정치실력으로 불멸의 위대한 자욱을 새기신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21세기를 이끄실 태양으로 만민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 오신 력사는 우리 시대의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원로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 준 영광찬란한 력사로 빛 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사업시작 37돐 기념행사들 진행

(평양 2001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 하신 37돐기념 직업동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와 녀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가 18일 중앙로동자회관과 녀성회관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연구토론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 등의 제목으로 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수십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조선로동당과 국가,군대의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오랜 정치경력과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경험을 지니신 현시대의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원로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숭고한 인덕으로 로동당시대의 대전성기를 펼치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우신 영광찬란한 력사이며 20세기 후반기를 창조와 번영,자주화투쟁의 년대로 빛내이시여 시대와 인류앞에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정치가,위대한 령장의 거룩한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청년학생들의 실화연단이 진행되였다.

연단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수십성상의 장구한 혁명활동로정을 백전백승의 서사시로 수 놓아 오신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력사를 빛내여 나가는 자기들,청년전위들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에 대하여 격조높이 말하였다.

이날 직업동맹사업부문 연구토론회와 청년학생들의 실화연단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 따라 부흥강국을 건설할데 대하여 호소

로동신문 당중앙사업시작 37돐로 사설

(평양 2001년 6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이곳의 신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1964년 6월 19일)하신 37돐에 즈음한 사설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 따라 부흥강국을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7년전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을 이끄시게 된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사회주의조국건설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주의조선을 누리에 떨치시려는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려 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진두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당사업은 물론 정치와 군사,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 나게 되였으며 주체혁명의 긍지 높은 새 시대가 펼쳐 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근 40성상을 헤아리는 장구한 령도사는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번영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불멸의 력사로 빛나고 있다.

사설은 우리 시대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독창적인 선군령도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떨치시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의 새 세기를 열어 놓으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는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 나가게 하는 백승의 령도이다.

그이의 선군령도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원천으로 되고 있다.

그이의 선군령도는 이 땅우에 부흥강국의 새 력사를 펼치는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의 위대한 지도대강이며 그이의 령도는 이 땅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을 안아오는 필승불패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그이를 당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끝 없는 영광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민주조선≫은 ≪혁명의 수위에 절세의 위인을 모신 영광 만대에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다그쳐 나가는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간고하지만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는 한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3. **김정일**정치의 기본



클린톤은 판문점을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곳≫이라고 했다. 왜 클린톤이 판문점을 세계에서 제일 무시무시한곳이라고 했겠는가.

그것은 판문점에서 미국의 역대 장군들이 머리를 숙이고 사죄문과 항복서를 쓴곳이고 세계≪최강≫을 뽐내던 미국이 련속 강타를 얻어맞고 서산락일의 운명에로 떨어진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울려나오는 이북 인민군대의 불호령이 매일과 같이 미국을 전률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이 직접 여기에 나오시어 이남에 도사린 미군기지들을 내다보시고 멸적의 지략을 펼치신곳이다. 판문점만이 아닌 온 이북땅이 **김정일**장군의 휘하에서 미국의 도전에 맞설 서리발총창을 벼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북의 인민군대의 위력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족국가의 지도자나 영웅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형태는 국토방위형이고 둘째 형태는 해외침략형이며 셋째 형태는 국토통일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장군의 위상은 첫째형과 셋째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정일**장군은 국토방위형 지도자, 조국통일형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은 국토방위형 지도자이시지만 방어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되어 있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다. 자위에 신심 드높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인민군대의 위력은 **김정일**장군의 군중시정치의 빛나는 소산이다.

역사는 군사를 중시하지 않고 소홀히 할 때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교훈을 남기였다. 1940년 4월 9일 도이췰란드군은 단마르크를 불의에 공격했는데 그때 단마르크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 4시간만에 항복하였다.

1973년 9월 11일 오전 9시 10분 칠레인민연합의 알엔데대통령은 대통령관저인 모네타궁전에서 쿠데타부대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삐노체뜨 칠레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3년간 존속한 알엔데정부를 전복하였다. 쿠데타부대는 민중의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불과 하루만에 수도 싼띠아고를 점령했다.

알엔데정부의 몰락을 빚어낸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대의 ≪비정치성≫,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정권이 군대에 대한 지휘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인민연합정부는 ≪군대의 내부문



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혁명을 하려면 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군대를 틀어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1등급의 쏘베트혁명무력은 고르바쵸브나 옐찐이 쏘련제국을 자본주의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은 것을 알면서도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한 나라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오늘 세계정치상황은 어떠한가.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오늘에 와서도 전쟁의 와중속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쉼없이 벌려오던 미국은 나토를 부추겨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항공타격, 미싸일타격으로 타국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였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는 1만 4천 6백여 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시간적 비률은 4:1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류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반세기기간만 해도 세계에서는 150여차례의 무장충돌과 국지전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합법적 정치도구≫로 간주하면서 ≪가동적 국경론≫, ≪확대전략외교≫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모든 나라가 자기를 지키려면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나꼬와 같은 몇개 나라들처럼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도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에스빠냐에서는 군사복무기한이 9개월밖에 안되는데 그것마저도 1995년 12월현재 군사복무를 거절한 청년이 3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의연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강권적 군사개입이 중지되지 않고 있은 상황에서 각국이 자기를 지킬수 있는 군사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의 위험이 광란하고 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힘을 가진 나라는 이북이다.

오늘 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는 어느 군대인가. 그것은 이북의 **김정일**장군의 군대이다. **김정일**장군이 최고사령관으로 되고 있은 이북의 인민군대의 위력은 세계의 그 어떤 침략군대도 일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적의 군대이다.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시도했으나 오히려 북과의 대결에서 만신창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북의 국방력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 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이다.

김정일정치에서 가장 중시되고 그 핵심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군대, 군사에 대한 정치이다. 말하자면 군사중시정치라 할 수 있다.

김정일정치는 지도자일반이 제기하는 군사정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간주하시고 시종일관 견지하시는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예로부터 국사중에서 가장 큰 국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군사를 중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가르치시었다.

국사중에서도 가장 큰 국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따라서 군사를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장군의 정치관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정치를 자신의 정치방식으로 규정하시고 그것을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대에서 정권도 나오고 제도도 나온다, 총대가 강해야 당도 위력하고 사회주의제도도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중시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러한 정치관은 이북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열강들의 끈질긴 군사정치적 공갈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내고 끊임없는 변혁과 성공을 거둘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무(武)라는 글자는 창과(戈)자와 그칠지(止)자를 합한 것이므로 무기, 무력은 권력을 쟁취하거나 전쟁을 도발하는 수단으로는 써서는 안되고 자체방어를 위한 도구로써만 써야 한다는 엄격한 뜻을 담고 있다.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상비군은 철폐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는 무력이 필요없거나 또는 상비군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이 역사의 동반자로 되어 인류사에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 있은 현실은 군대를 더욱 주요시해야 할 절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칼 슈미트와 같이 ≪전쟁의 보존≫을 제창하는 제국주의세력은 의연히 존재한다. 히틀러는 ≪생활이란 곧 전쟁≫이라고 했다.

또한 탈랭전 데탕트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전쟁의 위험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증대되고 있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제국주의적전횡을 간과하여 레닌이 ≪무장철페≫를 제창한 기회주의자들의 주장에 타격을 가하면서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를 무장해제한 후에야 비로소 온갖 무기전체를 파괴해버릴수 있으며 의심할바 없이 프로레타리아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레닌도 군대문제, 군사문제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활동에서 어떤 위치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혁명에서 무장이 노는 역할과 현 정세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하시어 군사중시정치, 선군정치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일관성있게 견지하고 계신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의 핵심적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간주하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우리 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이라고 가르치시었다.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보는 것은 군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날에는 군대, 무력은 다만 나라를 지키는 수단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단순한 국방수단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 규정하시었다.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이라는 것은 군대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력을 다져나가는데서 기본력량, 핵심력량이라는 것을 말하며 군사가 건전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굳건히 지켜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지로 이북에서는 군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력량이 되어 사회주의건설도 담당하고 방위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정신과 기풍, 일본새가 전국의 모범으로 되어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선군영도로 전당, 전국, 전민을 이끌고계신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전민을 교양하고 군인들의 혁명적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하시면서 전민, 전국을 가성대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장군께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는 유명한 군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영도에서 철저히 구현하고계신다.

투철하고 현명한 군중시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북은 걸음마다 미국의 군사적도전을 짓부시고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었다. 1991년 3월 미국국회가 북에 대한 ≪120일 고강도 전쟁구상≫을 작성하고 ≪엔테베식기습공격도 불사하겠다. ≫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될 수 없었다. 1993년 ≪핵사찰≫소동을 벌리면서 또 한번 ≪평양타격≫이요, ≪녕변타격≫이요 하면서 허장성세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미국은 1998년, 1999년에 이르러서는 ≪5027작전계획≫을 짜놓고 ≪외과수술식타격≫같은 것을 시도했지만 그것 역시 물거품으로 흩어져버렸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로 이북을 세계일등급의 자위국으로 전변시켰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도 일격에 격파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치는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익히시고 구현해오신 정치이다. 그분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의 총소리를 들으시며 성장하시었고 **김일성**주석의 특출한 군사사상에서 그 진리를 배우시고 무르익혀오시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11살 어리신 나이에 벌써 **김일성**주석으로부터 권총을 넘겨받으시었고 6. 25전쟁시기에는 제국주의전쟁을 이길수 있는 지략을 체득하시었다.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조선에서 전쟁의 불구름이 일던 1952년 여름 어느날, 포병사령관이 **김일성**최고사령관의 부름을 받고 작전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때 **김일성**최고사령관께서는 어리신 자제분이었던 **김정일**장군과 담화를 하시던중이었다.

김일성최고사령관은 작전대위에 두자루의 색연필을 따로따로 놓으시며 **김정일**장군(당시 10살)에게 물으시었다.

≪이쪽 연필은 사람이고 이쪽 연필은 총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느 것을 가지겠느냐?≫

어리신 **김정일**장군은 심중한 안색으로 두 연필을 번갈아 쥐였다 놓았다하며 생각하시었다. 포병사령관은 분명 **김정일**장군이 총을 가지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올리였다.

≪난 사람을 가지겠습니다. ≫

≪그건 왜?≫

≪싸움에서 사람이 제일이 아닙니까.

사람만 있으면 총이란건 생길수 있지만 사람이 없이 총만 있어 가지고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총을 쏘는 것도 사람이고 병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사상이 이미 수십년전에 정연한 원리와 체계로 정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에서 또한 주요한 것은 주체적인 총관의 구현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대가 혁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이라는 주체적인 군사관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은 혁명적인 총관, 총의 철학을 구현할 때 실현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총대를 사랑하고 총대와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철학을 구현한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의 철학을 군사중시정치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북의 군대가 그분의 영도에 충성다하는 명실공히**김정일**군대로 될 수 있었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총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입니다. ≫

총의 철학, 총관이란 총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고 혁명동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은 영도자와 운명을 같이하며 영도자를 받드는 영원한 길동무이고 혁명동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총의 주인이란 총대를 만들고 지휘하고 그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영도자이다.

김정일장군은 총과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때문에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총에 대하여 잘 알고계시며 누구보다도 총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김정일**장군의 총의 철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혁명에서 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총대에서 정권도 나오고 제도도 나오며 총대가 강해야 당도 강하고 사회주의제도도 든든하다는 것이다. 총대가 없는 당과 국가, 제도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총의 철학이다.

총은 혁명을 위한 수단이다. 총은 정권을 분만하며 민중을 위한 사회제도도 출산시킨다. 그리고 일단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도 총대가 든든해야 당도 강화할 수 있고 제도도 강화할 수 있다.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것은 총이 정권을 낳는다는 것을 뜻한다. 소여정권은 소여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며 따라서 어떤 계급이든지 자기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권을 가지려 한다. 정권을 분만시키고 지키는 것은 총이다.

혁명적 폭력은 최고의 힘이다. 총을 동반하는 혁명적 폭력만이 혁명적인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총대는 당이 장악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혁명의 원쑤들도 총을 최고의 반항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혁명이 반혁명을 제압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혁명의 총을 가져야 한다. 총이 없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고 총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 군인대중이 혁명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적수공권의 군인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군인대중의 손에 총이 쥐여져야 하며 그것이 불을 토할 때 적을 격파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혁명의 총은 혁명의 위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된다.

총대를 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것은 당이 군대를 장악하고 영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중의 자주위업은 수령에 의해서 개척되고 수령의 영도밑에 승리하기 때문에 군대가 수령과 당의 영도를 받으며 군대가 수령의 군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수령의 영도를 떠난 군대는 그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며 또한 아무러한 위력도 발휘할 수 없다. 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되어야 자기 본연의 사명에 맞게 민중의 자주위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하시어 혁명활동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군대의 강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활동의 전기간에 걸쳐 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총의 철학은 둘째로 총이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것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나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동지가 있다, 그것은 나의 총이다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는 것은 총이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동반되는 필수적 수단이라는 것을 뜻한다.

혁명은 총으로부터 시작된다. 총에 의해 혁명이 승리하고 옹호고수되고 총에 의해 혁명이 완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주성, 민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한 역사의 반동들의 책동이 그들의 손에 쥐여진 총에 의해 감행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피착취계급이 자기의 해방을 위해 초기에 적수공권으로 투쟁에 궐기했으나 무장한 착취계급에 의해 여지없이 진압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로부터 피착취계급은 무장을 잡기 시작했다. 총이 없었더라면 로씨야10월혁명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며 짜리전제제도를 전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은 혁명승리의 군사적 담보이다. 반혁명적 폭력이 있는 한 혁명적 폭력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총을 놓아서는 안된다.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이 한두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성을 띠게 되는 여건에서 총은 영원히 자주성을 옹호하는 계급과 세력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야 한다. 총이 없는 혁명을 생각할 수 없고 그 승리를 바랄수 없다. 때문에 혁명가들은 영원히 총과 함께 있어야 하며 총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을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고 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는 진리를 밝히시고 총과 함께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과 함께 끝까지 완성할 철의 의지를 지니고 계신다.

총이 혁명의 영원한 길동무라고 하신 **김정일**장군의 사상에는 혁명의 총, 혁명의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혁명적 무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혁명적 무력으로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총의 철학은 셋째로 총이 주인을 알아보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은 주인을 올바로 만날 때 빛이 나고 가치를 가진다. 총은 총알을 발사함으로써 적을 죽일수 있는 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참다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총의 참다운 가치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여져있으며 누구를 위해 씌여지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반동들의 손에 쥐여진 총은 인간을 부정하는 역사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작용을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들은 총으로 타민족, 타국가를 점령하고 지배하며 략탈한다. 히틀러, 무쏠리니, 도죠의 손에 쥐여진 총은 인류살륙에 이용되었다.

총은 참다운 주인을 만날 때 진짜 주인의 손에 쥐여질 때 의의있는 것으로 되고 가치를 가진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쥐여진 총은 신성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고 유익하게 이용되지만 자주성을 유린하는 비정의적인 사람의 손에 쥐여진 총은 추악하고 저주로운것으로서 유해롭게 이용된다.

총이 자기 주인을 잘못 만났을 때에는 자기를 배반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혁명의 배신자들, 전쟁광신자들은 례외없이 총에 의해 죽음을 면치 못했다. 반동들은 혁명적인 총의 과녁의 대상이 된다.

총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민중이며 혁명가들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는 근로민중이며 근로민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근로민중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침략과 전쟁, 지배와 략탈과 같은 온갖 비정의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근로민중은 지배자, 침략자, 략탈자들을 청산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나갈수도 없다. 때문에 근로민중은 혁명을 위해 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근로민중에게 쥐여진 총은 정의의 총이다.

근로민중의 자주성은 참다운 수령의 영도밑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민중의 참다운 지도자는 근로민중의 자주성의 최고대표자이며 최고의 옹호자이다. 때문에 총의 주인이 근로민중이라면 총의 최고의 주인은 참다운 민중적 수령이다. 민중의 참다운 수령의 수중에 장악된 총만이 혁명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때문에 총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총은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수령을 결사적으로 옹호보위한다. 총의 최대의 사명은 혁명의 뇌수인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이다.

주인의 손에 쥐여진 총은 변절을 모른다.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것은 총이 자기의 주인을 버리지 않으며 자기 주인을 옹호하고 자기 주인이 하는 숭고한 위업에 끝까지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은 고지식하기 때문에 자기 주인만을 알아보며 자기 주인에게 충실하다.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이북의 인민군무장력이 사회주의와 민중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충실하며 **김정일**최고사령관에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오늘 이북의 무장력의 최고령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이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혁명적 무장력을 불패의 것으로 다지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최고사령관이시다. 이북의 인민군대는 **김정일**장군의 군대이다. 때문에 인민군대가 **김정일**장군께 충성다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북의 혁명적 무장력이 앞으로도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의





영도에 끝없이 충성다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바로 여기에 총이 변절을 모른다는 사상의 본질이 있고 그 참다운 의미가 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총이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이기 때문에 총을 사랑하라는 사상을 내놓으시었다.

총을 사랑하라! 이것은 총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와 관점에 기초하여 제시된 혁명적 슬로간이다. 총을 사랑하라는 사상에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믿고 아끼며 혁명적 무장력과 함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시려는 **김정일**장군의 숭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그러면 총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그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며 총쥔 군대를 아끼고 적극 원호하라는 것이며 군사를 중시하라는 것이다.

전민이 무장하고 전당, 전민이 군대를 아끼고 도와주며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군사를 중시하는 군사제일주의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곧 총을 사랑하는 것으로 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일찍부터 군사제일주의원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었으며 군민일치사상에 기초하시어 전당, 전민이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전투적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영도하시었다.

그것으로 하여 기세충천한 인민군장병들은 무장으로 자기의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자기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초병이 된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일당백의 기백으로 원쑤를 처부실 혁명적 각오에 팽배해있다.

오늘 이북에는 군사중시의 기풍이 온 나라에 꽉 차있으며 전체 국민이 무장하고 있을수 있는 침략에 대처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도와주는 원군기풍이 온 나라에 꽉 차있다.

일생을 전장에서 보냈던 나뽈레옹은 세인트헬레나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52살로 운명했는데 그는 최후의 순간에 숨을 거두면서 ≪프랑스…군대…군대의 선두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정권욕과 침략전쟁에 광신이었던 나뽈레옹이 운명직전에 한 이 말은 아마도 그가 군대없이는 자기의 정권욕도 타국에 대한 정복욕도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깨달은데서부터 뱉아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뽈레옹은 군대와 전쟁으로 명성을 떨쳐온 명장이었지만 그는 비정의적이고 반인류적인 전쟁광신자였던 것으로 해서 자기의 국민에게 막대한 희생과 배상을 넘겨씌웠다. 그는 군사지휘관이었으나 군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알 수 없었다.

선군정치, 군사중시의 정치는 또한 영도자의 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사상정신무장을 선행시키고 그에 힘을 넣는 것을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삼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당의 영도는 혁명군대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란 곧 인민군대에 대한 **김정일**장군의 영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의 영도가 인민군대의 생명이라는 것은 **김정일**장군의 영도를 받아야 인민군대가 정치군사적으로 불패의 것으로 강화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민군대는 **김정일**장군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지로 이북의 인민군대의 성장과 발전과정은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지도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북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다 **김정일**장군의 손길밑에서 자라났고 그분의 신임이 있기에 중책을 지니게 된 사람들이다. 군대를 영도하는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의 영도적 권위가 약하면 그러한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전 쏘베트시기에 쏘련의 무장력이 그처럼 막강하였던 것은 쓰딸린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쏘련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수정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가 초래되었고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가 거세말살되게 되었다. 결과 쏘련의 군대는 300만의 대병력에 세계 1등급의 최신식군사장비를 갖추었지만 사회주의조국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사회주의쏘련이 붕괴되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절대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자신께서 몸소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해서 군인대중에게 혁명적 자각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필승의 지략을 키워주시고계신다.

1996년 **김정일**장군께서는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판문점에 나오시어 군인들에게 혁명적 신심과 자각을 안겨주시었다. 그때 그분께서는 판문점 병사들앞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노예로 살겠는가고 하시면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쑤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시었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또한 언제나 군인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멸적의 지략을 가르쳐주시군하신다. 그분께서는 어느 비행장을 찾으시어서는 비행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는 몸소 비행기에 오르시었다. 검은구름과 세찬 바람은 그분을 비행기에 모실수 없게 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비행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시었다. 비행기안에서 승조장과 승조원들의 동작을 주의깊게 살피시고는 다른 나라의 훈련강령을 그대로 이용하는 잘못도 따뜻이 일깨워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지상훈련과 야간비행에서 무엇을 위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었다.

1973년 8월 어느날에는 어느 한 해군부대의 어뢰정에 오르시어 훈련지도도 해주시었다. 그분께서 세찬 파도를 헤가르는 어뢰정의 사령탑에 오르시어 훈련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깨우쳐주시고 새로운 전투조법에 기초하여 적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방도도 밝혀주시었다.

비행기도 함께 타시고 함정에도 같이 오르시며 또는 땅크병들의 훈련장과 통신병들의 훈련장에도 찾으시어 신심과 용기, 묘술을 안겨주시는 **김정일**장군의 거룩하신 모습이야말로 전군이 그분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일당백으로 자라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역사적인 나날들에 그분께서는 철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커피도 보내주시며 천백배의 타격을 안길 타격방략을 함께 짜주신분도 **김정일**장군이시다.

지금까지 역사에는 수많은 명장, 군최고사령관들이 나타났지만 일개국의 최고지도자가 함정의 사령탑이나 군용비행기에 직접 올라 군인들을 지도한 례가 있었는가. 없었다. 그들의 지휘처는 언제나 군사령부의 작전실이었을뿐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최근 2~3년 어간에만 해도 수백단위의 군부대들을 시찰하시고 전투준비상황을





료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이처럼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한갖 이론이나 방침의 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도와 배려밑에 집행되고 관철되어 일당백의 무력으로 다져지게 하는 정치이다.

김정일장군께서는 말그대로 군인대중의 친어버이이시고 다정한 지휘관이시며 군대를 백승에로 이끄는 승리의 기치이시다.

이북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의 영도에 끝없이 충성다하고 그분을 성새, 방패가 되어 철저히 옹호보위하는 강유력한 무장력으로 되었다.

김정일장군의 군사중시정치는 사상론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구현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는 정치이다. 지금 서방나라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군대의 강화를 곧 무장장비의 강화로 여기는 무기만능주의적 방법에 매달리고 있다. 영국은 ≪함선우세론≫, 도이췰란드는 ≪땅크우세론≫, 이딸리아는 ≪항공우세론≫에 집착해왔다. 미국의 군사교리는 ≪핵무기만능론≫이다.

미국은 ≪군사력이란 원자탄과 핵미싸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해치울수 있으면 해치운다. ≫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주로 항공타격과 미싸일타격에 의거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각국에서의 군사정책에서의 공통적인 경향은 병사의 인원수는 삭감하고 최신정예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륙군보다 해군, 공군을 중시하는 것이다. 즉 원가는 적게 들이고 효률이 높은 타격, 효률이 높고 아군 피해를 최소한 적게 하는 전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장군께서는 서방식의 ≪무기중심론≫을 배격하고 혁명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적요인 즉 사람이며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군사원리를 밝히시었다. 군인대중은 무장력의 기본요소이며 전쟁의 주체이다. 전쟁의 주체인 군인대중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 무장장비의 위력이 결정된다. 그것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며 무기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적 각오와 자각을 가지는가에 따라 이길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다. 군인대중의 정치사상적 각오정도가 높고 투쟁력이 높으면 아무리 무장장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적과 싸워서 이길수 있다. 이것이 그분의 지론이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김정일**장군께서는 ≪무기중심론≫이 아니라 ≪사람중심론≫, ≪사상론≫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구현하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루즈벨트가 ≪≪한국≫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어를 위해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맥없는 민족≫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전쟁부속물로 되어 있고 아무런 실권도 없으며 아무런 명분도 가지지 못하는 ≪한국군≫의 식민지노복으로서의 무력함을 빗대고 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북의 인민군대는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지키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과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괭배해있는 불패의 군대이다.

1993년 ≪핵위협≫론이 대두된 것과 관련하여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10일 남짓한 기간에 이북에서는 현역사단들에 150개 사단을 편입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군입대를 탄원해나섰다. 이 하나의 사실만을 통해서도 이북의 군대, 인민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오늘 인민군대안에서 ≪리수복형의 육탄영웅≫, ≪길영조형의 자폭영웅≫이 되자든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이 벌어지고 있은 것은 인민군대가 얼마나 자기 영도자에게 충실한 군대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북에서는 **김정일**장군의 이러한 군사중시정치가 실시되고 있기에 인민군대에 대한 전당적 , 전국가적 , 전민중적원호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이북에서 1998년 8월 31일에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이북의 무장력이 세계의 최정상에 올랐음을 시위하는 것이었다. 그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 ≪한국≫의 도전에 대답하여 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인민군대의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에 없다고 경고하고 그 타격대상은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했다. 그때 미국과 일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쥐죽은듯했다. 왜냐하면 실지로 이북의 타격이 무서웠던 것이다.

북은 미국이 그 무슨 ≪지하핵시설의혹≫에 대해 떠들자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을 질러놓고 미국땅은 무사할줄 아느냐고 또다시 된타격을 들이댔다. 그러자 미국은 이번에는 그 무슨 ≪전역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요 뭐요 하면서 수백억딸라의 군사예산을 더 불구는 놀음을 벌렸다.

실지로 미국은 북의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곳에서 불을 지르고 폭탄을 퍼부었지만 미국땅에는 단 한발의 폭탄도 떨어진적이 없다. 그런데 미국본토에 북의 미싸일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최근에 발표한 ≪국방보고서≫(1992. 2. 2)에서 ≪미국은 무비의 군사력을 가지고 국경을 훨씬 넘어 대규모적이며 효과적인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임의의 지역, 임의의 나라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은 동아시아가 민주주의적 개혁과 시장경제를 받아들일것을 촉구한다. ≫고 협박해나선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 ≪국방보고서≫는 명백히 사회주의노선을 고수하고 있은 이북에 대한 침략전쟁과 압살을 노린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일본은 매해 400억~450억딸라를 군사비에 들이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되는 액수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증강과 침략전쟁에 발광한다고 해도 강력한 이북의 인민군대의 단호한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1976년 가을 뉴욕시에 12시간 정전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사람들은 그 상태를 ≪련옥≫이라고 했다. 정전기간에 뉴욕에서는 남의 재산을 파괴하고 략탈하며 방화와 강간을 일삼고 서로 찌르고 죽이는 이루 헤아릴수 없는 재난이 들이닥쳐들었던 것이다. 몇시간의 정전사고가 뉴욕을 아비규환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만약 강력한 미싸일타격이 가해진다면 과연 미국땅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은 **김정일**장군이 이끄시는 인민군대를 잘못 건드리는 경우 그로부터 입을 타격과 참화는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북의 혁명무력은 어디까지나 자위의 무력이지만 그 타격력은 자위에도 공격에도 다 준비된 것이다. 군사중시의 정치, 총의 철학으로 준비된 **김정일**군대의 위력은 이북의 강성대국건설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추진시켜나가는 원동력으로 될 것임은 의심할바 없다.



노투사들의 흠모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6.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 추앙받는 지도자

자고로 덕망은 흠모를 자아내고 업적은 송가를 낳는다고 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중에게 베푸시는 고매한 덕성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분께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민중의 충성의 송가를 낳고도 남을만한 것이였다.

그분을 누구보다도 높이 존경하고 열렬히 흠모해 마지 않는 것은 항일의 노혁명가들이었다. 그들은 그분을 당과 민중의 지도자로 적극 내세우고 높이 우러러 모시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항일의 노혁명가들은 내각 사무국 영화부장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현지지도를 기록영화로 수록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사실 이것은 관계부문 일군들이 제일 고심해 오는 문제의 하나였다. 영화부장은 그 고충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무렵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영화촬영소들에 나가실 때면 그곳 촬영가들이 촬영기를 메고 나서곤 했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한번은 영도자님께서 어느 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실 때 촬영기를 들고 나선 한 촬영가에게 예술영화를 만들라고 준 필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찍으면 안된다고 가볍게 타일러주시었다.

녹음직장앞에 이르시었을 때 다시 그 촬영가가 나타나자 그분께서는 동무들이 자꾸 그러면 앞으로는 촬영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간곡하게 이르시었다.

그런데도 촬영가가 촬영기를 돌리려고 하자 그분께서는 엄한 표정으로 정 그러면 돌아가고 말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날 촬영가는 끝내 그분의 현지지도를 화면에 담지 못하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서 그분께서 한 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에는 촬영가 한명이 16밀리 촬영기를 들고 멀리에서 조심스럽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촬영가를 보시고도 그분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기에 수원들도 마음이 놓이었다. 촬영가도 그런 심정이었던지 용기를 내어 그분께로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촬영기를 눈에 가져갔다. 바로 이때였다. 그분께서는 저 동무가 누구인가고 물으시고 동무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고 질책하시었다.

일군들은 머리를 숙이고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한 일군이 나서며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이기만 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동무들이 아직도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섭섭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신신당부하시었다.

그후부터는 카메라를 들고 나섰으나 그분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었다. 예술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경우에는 가끔 허락해 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될수록 못하게 하시었다.

영화부장의 말이 끝나자 항일의 노혁명가 최현 대장은 동정의 눈길로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추궁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신다고 못찍을게 있소. 찍으란 말이오. 촬영기를 빼앗기야 하시겠소. 왜 그 멀리서 찍는 기계가 있지 않소. 그걸 가지고 멀리서 찍으면 안되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김일 제1부수상이 그를 대신해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못하게 하시면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차츰 말씀드려서 반승낙이라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것은 반승낙이라도 하셨으니 그것부터 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부장에게 사진을 찍는데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했다.

영화부장은 카메라는 영도자님께서 영화제작사업에 쓰라고 자신께서 사용하시던 것을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 사진제작설비는 좀 낡은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런데 이 솔직한 말이 최현 대장을 노엽힐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다.

동무, 무슨 소리를 하오. 여보 김일 동무, 이 동무 영화부장 자격이 없소.

그의 어성은 어지간히 높았다. 김일 제1부수상은 함구무언이었다. 한참이나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전혀 돌리지 못했습니다.

옳소, 김일 동무에게 책임이 있소. 그까짓 사진기 한대 못사준단 말이오.

김일 제1부수상은 카메라와 확대기, 그에 필요한 부속품명세와 필름, 인화지까지 다 살 수 있는 타산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영화부장동무는 내각사무국의 국장, 부국장을 거치지 말고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직접 찾아와주시오.

이날 노혁명가들과의 담화에서 영화부장이 받은바 감명은 대단히 컸다.

사실 그는 그때까지 오랜 혁명투사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있는줄은 미처 몰랐다.

이틀후 그가 사진설비명세와 필요한 타산을 해가지고 찾아갔을 때 김일 제1부수상은 제기된 모든 것을 다 풀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영화부장동무, 거기에 좀 앉으시오. 내각사무국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늘 가까이 뵙는 사람은 아직 동무밖에 없는데 일을 책임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고 세상에 선포하자고 여러모로 애쓰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굳게 자리잡은 것이라고 말씀올렸는데도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말을 애당초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김일 제1부수상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사진설비를 일식으로 빨리 들여다가 사진만이라도 빠짐없이 다 찍어두자고 당부했다. 그후 사진설비들이 들어왔다.

이것을 우연히 알게 되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몹시 노여워하시면서 우리가 시키는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다, 동무는 우리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새로 들여온 설비는 무조건 백두산창작단에 주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내용으로 한 예술영화 화보편집에 필요한 사진들을 찍는데 쓰도록 해야겠다, 내일중으로 그 사진설비들을 모두 백두산창작단에 넘겨주라, 우리의 말대로 못하겠으면 동무는 내일중으로 자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분의 말씀은 준절했다.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그분께서는 적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우리가 늘 강조하는 문제이지만 오늘 동무에게 다시 한번 말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도 수령님의 전사이다, 우리가 이 말을 동무들에게 몇번이나 하였는가, 동무들은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더 잘 모시도록 도와주어야지 왜 자꾸 다른 일을 하자고 하는가, 나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이르시었다.

그분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간곡한 어조로 그러면 안된다, 나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 나의 이러한 심정을 동무들이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날로부터 몇달이 지난후 김일 제1부수상은 사진설비들을 써보니 어떤가고 물었다.

영화부장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왜 쓰지 못하고 있는가고 따지는 바람에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그후 어느날 영화부장은 문서에 사인을 받기 위해 김일 제1부수상의 방으로 갔다.

그는 문서를 일일이 검토한 끝에 김일이라고 쓴 다음 사인을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이야기를 하였다.

영화부장동무! 한 일없이 나이를 먹고 보니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내가 일을 잘못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는 체면없는 일이지만 젊은 동무들에게 늘 말하고 싶었던 것이니 새겨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40여년전에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을 해방하자고 맹세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조국에 수령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때문인 것 같습니까?

심각한 문제의 제기였다. 그는 긴장해졌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본은 우리가 수령님을 잘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서 모든 조선사람들을 다 수령님의 충신으로 만들었더라면 조국은 이미 통일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걸상에서 일어나 다른 의자에로 옮겨앉더니 동무는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내 나이 60이 넘은 다음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당원들과 문학예술인들을 묶어세우는 것을 보고서야 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처럼 사람들을 수령님의 충신으로 키울줄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벌써 조국은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번씩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잘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조국통일도 하루빨리 이룩할 수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우여곡절이 없이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다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알려주어서 전체 인민이 다 그분의 충신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혁명의 길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노혁명가의 심장의 고백이었다.

새 세대 영화부장은 노혁명가의 뜨거운 호소를 심장깊이 아로새기면서 그들의 모범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를 결의를 가다듬었다.

노혁명가들만이 아니었다. 영예군인들도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당과 민중의 영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랐다.

어느해 여름에 그분께서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 있은 일이다. 그분께서 가방직장을 거쳐 비옷직장에 이르시었을 때였다. 거기서는 앞 못보는 한 영예군인이 비옷단추를 솜씨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가신 그분께서는 그가 찍어낸 단추를 한줌 쥐고 손을 펴시었다. 파란 비닐단추들이 그분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내렸다. 그분께서는 또 그렇게 하시었다.

손에서 흘러내리는 단추들과 그것들을 부지런히 찍어내고 있는 앞 못보는 영예군인을 번갈아 보시던 그분께서는 그에게 일이 힘들지 않는가고 조용히 물으시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힘들겠습니까.

그의 대답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시자 그는 천천히 기대를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다음 병사시절의 절도있는 동작으로 차렷자세를 취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의 가슴이 더욱 높뛰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갈리신 음성으로 다시 물으시자 그는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말했다.

1년전 최고사령관동지(**김일성**주석님—필자주)를 맞이하던 그때와 꼭같은 감격이 온몸을…… 전…… 심장으로…… 뵈옵고…… 있습니다.

눈은 심장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심장은 눈을 대신한다. 눈은 빛으로 보지만 심장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심장으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뜨겁다. 앞 못보는 그는 1년전에 자기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을 심장으로 뜨겁게 우러러 본 것처럼 오늘은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심장으로 뜨겁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이다.

고맙소, 고맙소. 난 아직도 동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분께서는 더욱 갈리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 앞 못보는 저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런 사랑말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세상에 사랑에 대한 말은 많아도 이보다 더 뜨거운 말이 또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진실한 말이 또 어디에 있으랴. 세상에 사랑과 흠모의 정이 교감되는 역사적인 화폭은 많아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서사시적 화폭은 없으리라.

존칭사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6.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 추앙받는 지도자

존칭사란 말 그대로 명망이 높은 인물들을 존경하여 부르는 말이다.

명망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상과 덕망, 업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역사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명망의 높이는 곧 사상과 덕망, 업적의 높이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정치무대에 출현하신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정치입문의 첫걸음부터 두각을 나타내시였고 그분의 풍모와 덕망, 업적의 높이는 그분의 정치활동기간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중들 속에서 그분의 명망은 비상히 높아졌으며 그것은 존칭사를 낳고도 남음만한 것이었다.

그분에 대한 존칭사는 영화예술인들 속에서도 나왔다.

≪윗분≫이란 존칭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날 오전 11시경 승용차 한대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정문으로 서서히 들어섰다.

누군가가 격정에 못이겨 외쳤다.

오셨다.

윗분께서 오셨다.

그러자 배우단청사에서, 촬영장들에서 사람들은 창문들을 활짝 열어제끼고 밖을 내다보았다.

내다보는 사람들의 얼굴들에는 기쁨이 꽃같이 피어나 있었다.

군중의 열광적인 박수갈채 속에 수수한 양복차림을 하신 젊은 분이 만면에 미소를 담으시고 차에서 내리시었다.

정기 도는 눈빛, 서글서글한 웃음어린 얼굴, 열정에 넘친 음성, 활달한 걸음걸이,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이시었다.

이렇게 영화예술인들은 영도자님을 ≪윗분≫으로 모시고 따랐다. 여기에는 그분을 주체위업의 승계자로 우러러 모시려는 민중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그분의 대응은 너무도 겸허한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일군들과 연예인들 속에서 ≪윗분≫이라는 존칭사를 들으실 때마다 자신도 수령님을 위해 일하는 한 당원인데 무엇때문에 따로 부르는가고 하시면서 존칭사를 쓰지 못하게 하곤 하시었다.

1970년 여름 어느날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그분께서는 일군들과 예술인들이 ≪윗분의 지시≫요, ≪윗분의 요구≫요 하면서 여러가지 존칭사들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쓰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수령님의 문예사상을 영화예술분야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그 어떤 찬사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영화촬영소에 나와 하는 말들은 다 수령님과 당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그저 ≪당에서 하는 말씀≫ 또는 ≪당의 지시≫라고 해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너무도 겸허하신 말씀이었다. 이러한 겸허성은 오히려 일군들과 연예인들의 가슴속에서 그분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했다. 그럴수록 일군들과 연예인들의 시야는 넓어져 그분의 영도를 주체예술의 운명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긴 안목으로 대국을 내다보며 그들은 마침내 그분의 영도를 노동당, 조국, 혁명, 민중의 운명과 밀접히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분을 어찌 그저 ≪윗분≫으로만 부르랴 하여 ≪경모하는 지도자≫, ≪영명한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분에 대한 이러한 존칭사는 수력과도 같은 것이었다. 물은 여러가지 힘을 발휘한다. 흐르는 힘도 있고 모이는 힘도 있다. 물이 흐르는 것이 강이며 물이 모인 것이 호수이며 바다이다. 물은 이와 함께 퍼지는 힘도 가지고 있다. 물이 관개수로 되어 넓은 들을 적시는 것도 바로 그 퍼지는 힘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존칭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널리 퍼지는 힘을 지닌 듯했다. 연예인들 속에서 나온≪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존칭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으로 물결처럼 퍼져가 드디어는 전사회적인 것으로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민중들 속에서 아침저녁 인사말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상용어로 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겸허성은 여전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존칭사를 입에 올릴 때마다 엄하게 책망하시었고 특히 당일군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중들이 그런 존칭사를 쓰지 못하도록 제지할데 대해 간곡히 당부하곤 하시었다.

그러나 민중들이 그런 존칭사를 쓰고 싶어하는 것은 심장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정이었으므로 누구도 막으려 하지 않았고 또 막을 수도 없었다.

명성에 국경이 없는 것처럼 존칭사에도 국경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명성과 더불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는 그분에 대한 존칭사도 국경을 초월해 외국인들 속으로 널리 퍼져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 존칭사와 더불어 그분께서는 하늘의 태양처럼 높이도 계시었고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언제나 민중들 곁에 가까이도 계시었다.

충성의 송가

≪은혜로운 사랑의 태양≫ 6.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 추앙받는 지도자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민중들의 뜨거운 흠모의 정은 존칭사뿐 아니라 송가도 낳았다.

그 송가는 영화예술인들 속에서 나와 민중들 속으로 퍼져갔다.

1971년 2월 16일이었다.

이날 저녁에 소연회가 있었다.

그분을 보좌하고 있는 일군들과 영화예술인 몇몇이 참가한 소박한 연회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영도자님을 모시고 단란한 한가정의 식구처럼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참가자 몇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가 바로 그분에 대한 송가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였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
따사로운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노래는 어느덧 합창으로 변했다. 그분을 제외한다면 부르는 사람도 따로 없었고 듣는 사람도 따로 없었다.

정다운 그 품 속을 멀리 떠나도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언제나 어데서나 가슴속깊이
자애로운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으신
친애하는 지도자께 맹세합니다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그들은 목소리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노래를 불렀다. 성량도 음질도 서로 달랐으나 마음은 하나같이 뜨거웠다.

정다운 그 품 속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고 언제 어데서나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밤은 깊어가도 노래는 끝날줄을 몰랐다. 흠모는 흠모를 낳았고 노래는 노래를 낳았다.

이날 이후 영화예술인들 속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노래가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친위대 돌격대≫라는 노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노래를 영화예술인들이 처음으로 부른 것은 그해 4・15명절 전날이었다. 4・15명절을 앞두고 모란봉경기장에서 제2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영화예술부문이 종합 1등을 했다. 특히 영화예술부문 축구선수단은 맞다든 모든 팀을 누르고 전승을 기록했다.

이 보고를 받으시고 더없이 만족해 하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경기대회 마지막날인 4월 14일에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 만찬을 마련하시고 친히 자리를 같이해 주시었다.

영화예술인들의 심정은 금상첨화란 말 그대로 비단위의 꽃이었고 기쁨위의 영광이었다.

만찬이 한창일 때였다. 영화예술인들이 그분앞으로 나와 횡대로 열을 지었다. 만장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분께 정중히 축원의 인사를 올린 그들은 자기들이 노래를 한곡 부르겠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분께서는 동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누가 막겠는가, 이번에 사상전, 투지전의 위력을 보여준 그 본때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누구나 흔히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리라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예상외의 것이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친위대 돌격대≫라는 노래였던 것이다.

피끓는 가슴에 충성을 맹세한
우리는 영예로운 친위대 돌격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높은 뜻 받들고
위대한 주체사상 빛내어 가리라

1절이 끝나자 만찬에 참가한 일군들과 영화예술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2절과 3절을 합창했다.

수령님 영상이 가슴에 빛나는
우리는 영예로운 친위대 돌격대다
햇빛보다 따사로운 그 사랑 안고서
한생을 혁명가로 억세게 싸워가리

사나운 폭풍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붉은 심장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명하고 친근하신 지도자동지께
일편단심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

영화예술인들이 두달전에 부른 노래는 그분께 영원히 충성다할 결의를 담은 노래였다면 그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는 그분의 친위대, 돌격대가 되어 그분을 옹위하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될 의지를 담은 노래였다.

그분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고맙소, 고맙소.라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이 노래 역시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이 노래를 심장의 목소리로 부르며 자신을 그분의 친위대, 돌격대의 반열에 세웠다. 참으로 이 노래는 일심단결의 송가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이 앙양된 정치적 열의와 드높은 혁명적신심에 넘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도(직할시)대표회,성,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이 진행되였다.

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모든 대표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들어선 력사적전환기에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도(직할시)대표회,성,중앙 및 도당 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다.

대표회들에서 일치하게 강조된바와 같이 **김정일**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전당,전군,전민을 이끄시여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혁명위업의 가장 충직한 계승자,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여오신 력사적로정은 혁명의 내외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당과 혁명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선 간고하고 시련에 찬 시기였다.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장기적인 대치속에서 사회주의냐,자본주의냐 하는 계급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준엄한 시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장 충실한 방조자로서 우리 당을 진두에서 조직령도하시여 혁명의 기치,사회주의기치를 수호하시고 화를 복으로,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면서 우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과 빛나는 승리에로 확고히 이끄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불멸의 혁명적기치로 찬연히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이 새롭게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에 완벽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당사업 전반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전반적 혁명무력을 통솔하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당과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참다운 당의 군대,수령의 군대로,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새로운 로선을 제시하시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경제문화건설전반에서 일대전변과 빛나는 개화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적령도자의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시면서 참다운 인민적정치,인덕정치를 펴시여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운명으로결합된 혁명적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 모두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갖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당과 인민의 걸출한 령도자,세련된 정치가로서의 **김정일**동지의 풍모는 우리 인민이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이후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후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욱더 엄혹해지는 정세속에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백절불굴의 완강한 혁명적의지로 이겨내시며 전당,전군,전민을 령도하시여 우리 당의 주체의 활동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당과 혁명의 운명,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에로 지향되고 일관되도록 이끄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



게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자주시대의 상징인 주체년호와 태양절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로 하여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한결같이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가 처한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진지를 튼튼히 다지시는 한편 우리 혁명의 기둥,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더욱더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전당,전군,전민이 일떠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와 련이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 전당적,전인민적 사회주의총진군전투의 제일선에 서시여 모든 고난을 단신으로 헤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당과 군대,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사적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정치와 군사,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빛내일수 있었다.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그처럼 엄혹한 정세와 준엄한 시련속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드팀없이 전진시키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력사의 기적이다.

열렬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헌장을 튼튼히 틀어쥐시고 옳바른 통일방략을 제시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조국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념원하는 온 민족의 기대가 **김정일**동지께 집중되고있으며 북과 남,해외의 모든 조선동포가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우리 세대에 나라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주,평화,친선의 리념밑에 대외활동에서 주체의 대,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도록 하시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백방으로 높이시였으며 침략과 전쟁,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참으로 지난 3년동안은 전체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이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세계제국주의반동들과의 총포성없는 엄혹한 전쟁에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온 영웅적투쟁과 자랑찬 승리의 나날이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정치사상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쌓아놓았으며 우리 혁명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국제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데 더 잘 이바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놓았다.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인민의 신뢰는 절대적이며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령도자로,친근한 스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열정과 기세는 백배천배로 충천하고있다.

자기 수령,자기 령도자에게 모든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것은 일찌기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70여성상의 기나긴 세월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우리 인민의 고결한 전통이다.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도(직할시)대표회,성,중앙 및 도당기능을 수행하는 당조직들의 대표회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한것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간직해오는 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당,전군,전민이 당중앙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완성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드팀없는 의지를 반영한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과 열화같은 충성의 일념을 반영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모든 대표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할 결의들을 일치하게 표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전당의 의사에 따라 30여성상의 오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으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인민을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닌 자주적인민으로 키우시였으며 이 땅에 **김일성**민족의 륭성과 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공인된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포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는 조선혁명위업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반드시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게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멀지 않아 통일된 강토에서 7천만 겨레가 참다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주체의 조국으로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체86(1997)년 10월 8일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정호일 / 구국전선 1997년 10월 11일

우리 민족에게 큰 경사가 났다.

민족의 운명이시고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공식 추대되신 것이다.

이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지금 평양으로 달리는 북향의 뜨거운 마음 안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민족의 일치한 의사와 요구에 따라 남과 북, 해외를 포괄하는 7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과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세계 만민의 축복 속에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추대는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역사적 사변이고 민족공동의 대경사라 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추대, 그것은 실로 명실상부한 **김정일**시대의 공식 출범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장엄한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경사의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던가. 지금 남녘의 민심은 그처럼 절절히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성취된 기쁨과 환희로 하여 용암마냥 뜨겁게 끓어 번지고 있으며 해 솟는 바다처럼 한없이 설레이고 있다.

백두산 천지로부터 제주도 남단 마라도 끝까지 3천리 방방곡곡은 물론 교포들이 사는 지구촌의 그 어디에서나 천출위인을 영수로 모신 민족의 영광과 자랑은 하늘땅에 넘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추대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고 축하하는 7천만의 대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 그 흥망성쇠는 영수에게 달려 있다. 민족, 민중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은 사상과 영도, 덕망과 인품에서 출중한 위인을 영수로 모시는데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꼭 같은 천출위인이시다. 주석님처럼 사상도 천하제일이고 영도도 제일이고 덕망과 인품도 제일이신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은 7천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최상, 최고,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행복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경사를 맞이한 기쁨과 격정을 그대로 터치는 7천만의 열광적인 대환호, 그것은 바로 이런 민족적 자긍심에서 뜨겁게 끓어번지고 있는 민심의 대분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향도 따라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려는 것은 7천만 우리 겨레의 일치한 염원이며 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이 **김일성**주석님을 보좌하여 당과 국가와 군의 전반사를 영도하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30여년 동안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영도력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것으로 하여 절대적인 영도적 권위를 지니시고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로부터 다함 없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새로운 원리와 내용으로 비상히 발전풍부화하시었다. 이 특출한 역사적 공적으로 하여 오늘 주체사상은 시대를 대표하고 이끄는 향도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되어 인류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오늘 세계를 둘러보면 지구촌의 진보적 인류가 모두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을 등대로 하여 항로를 잡고 있고 장군님의 이론을 지침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 변혁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이 방향상실과 궤도이탈이 없이 승리의 상승궤도를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암흑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고 실패와 좌절의 악순환 속에서도 신생의 활로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솟아오르는 방법과 묘술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최고의 지성과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사상의 천재, 이론의 대가이시며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인간의 인식영역을 무한히 넓혀주시고 시대와 민중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민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시는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중을 하늘처럼 믿고 민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만드시고 승리만을 이룩해 나가시는 천하제일의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다.

미국과의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언제나 주동을 잡으시고 미국을 수세와 피동에 몰아넣고 연전연승을 기록하시는 장군님의 비범한 지략과 노숙하고 세련된 탁월한 영도력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주정치로 이북을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사상의 강국, 정치강국으로 부상시키시고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기조로 하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로 이북을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강성대국으로 만드신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업적은 만인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선대 수령을 생존시보다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생전의 뜻을 사소한 하자도 없이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충효정치로 수령영생위업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특기할 역사적 공적으로 높이 격찬되고 있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문무충효와 지, 인, 용을 일신에 체현하신 만고절세의 영걸이시며 민중의 운명을 책임진 영수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민중의 참다운 영도자이시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출중한 위인상과 탁월한 영도력을 통해 그분이시야말로 우리의 하늘이시고 운명의 구세주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심을 가슴 깊이 절감하였으며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통일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민족의 장래는 밝고 양양하다는 확신을 굳게 가졌다. 오늘 7천만 우리 겨레가 모두 **김정일**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성스런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을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민족사의 새 시대, 영광찬 **김정일**시대를 맞이하였다. 역사의 새 시대, **김정일**시대는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시대, 주체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승리가 이룩될 위대한 시대이며 통일된 조국 땅 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일어서고 **김일성**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될 자랑찬 시대이다.

7천만 겨레가 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치하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한민전 성원들과 이남 민중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기세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는 온 겨레와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노동당의 최고수위에 공식 추대한 민족최대의 경사를 맞이한 이 시각 우리는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민족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이남 민중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마음을 한데 모아 장군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기를 삼가 기원하면서 장군님께 다시 한번 최대의 영광, 영광을 드린다.





김정일총비서추대 1돐

김정일총비서추대1돐 중앙보고대회

(평양 1998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추대 1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은 경축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력사의 의지이고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다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30여년간 당건설과 군건설,사회주의건설 전반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정치와 군사,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하여 오신데 대하여 보고자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시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가장 빛나는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당의 군대,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보고자는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혁명군대로 자라났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숭고한 충효심과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게하시였으며 민족사와 자주시대의 력사가 주석의 력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시는 특출한 공적을 이룩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서의 절대적권위를 지니시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21세기를 이끄실 향도자로 높이 칭송받고 계신다고 보고자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그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 하여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견결히 고수하고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할것이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난관은 일시적이며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것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적령도가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울것도 없고 점령못할 요새도 있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대회에는 김영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지도간부들,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총비서추대1돐을 기념

로동신문 사설

(평양 1998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8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한돐(주체86년 10월 8일)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조선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은 지금 조선로동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기치따라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그이에 의하여 당건설과 당활동,당사업 전반에서 근본적인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이 사상과 정치,군사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경제문화건설에서 일대 전변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우리 조국과 혁명의 희망찬 앞날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였



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으로 존엄떨치고그이의 절대적인 권위로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세련된 령도가 있는한 우리 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백승의 위력을 떨치며 조선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최후승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모두다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추대1돐,당창건 53돐 경축행사들

(평양 1998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 경축 직맹,녀맹원들의 모임이 7일 각각 진행되였다.

또한 추대 1돐과 당창건 53돐경축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이날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은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행군을 힘있게 다그쳐온 지난 1년은 그이의 특출한 위인상과 절대적권위,불멸의 령도업적으로 빛나는 자랑찬 승리의 나날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이어 모임들에서는 경축공연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예술종합공연이 7일 평양학생소년궁전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무대에는 노래와 춤 ≪아버지 장군님께 영광드려요≫,경음악 ≪축원의 꽃보라≫,무용이야기 ≪장군님은 전선으로 우린 야영소로≫,합창 ≪영원히 장군님만 따르렵니다≫ 등 다채로운 음악,무용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행복동이로,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효심과 행복상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경축 조선보석화전람회가 7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조선보석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근 100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여있다.

그중에는 백두산 3대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작품들과 ≪눈이 내린다≫,≪비둘기춤≫,≪소나무와 독수리≫,≪금강산≫ 등의 보석화들이있다.

개막식에서는 최재현문화상이 개막사를 하였다.

(평양 1998년 10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을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사회안전성 군무자들의 공연 및 야회,작가,예술인들의 무대의 밤 ≪위대한 당을 따라≫공연이 8일 각각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에는 김중린동지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청년동맹일군들 그리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조선의 행운≫,≪태양의 위성이 되자≫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출연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춤률동을 펼치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대,돌격대의 영예를 떨쳐갈 드높은 열의를 보여주었다.

사회안전성군무자들은 공연 및 야회에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더욱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신념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작가,예술인들은 공연에서 **김정일**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으신 빛나는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일편단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자기들의 불변의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가 기자회견

(평양 1998년 10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평양대표부 리상철대표가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영명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의 실현으로서 시대의 엄숙한 요청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한민전≫ 각급 조직들을 비롯하여 태양회,소백수회,자주회,통일애국회 등 애국단체들에서 장군님께 축전과 편지를 올리고 강연회,연구토론,축하연단,결의모임,이북방송청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종의 성산 백두산의 아들이시며 문무재덕과 지인용을 모두 겸전하신 천출위인이시고 천하제일명장이시라고 하면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겨레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자주와 존엄,승리의 상징이시고 삶의 보람이시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남 각계 민중의 흠모심과 존경심은 더욱 깊어지고 두터워지면서 철석의 숭배심으로 다져지고있으며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자긍심은 한없이 부풀어오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는 오로지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한민전≫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자주,민주,통일의 성업을 기필코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선전활동과 대외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김정일총비서추대 2돌

총비서추대 2돐기념 로동신문사설

(평양 1999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2년전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것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자질과 풍모,오랜 정치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계시며 혁명과 건설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신 그이의 높으신 권위와 위대성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평양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력사적인 이날을 기념하여 특집을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조선로동당은 희세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의한 정치적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오늘의 조선로동당은 그이의 기상으로 싸우고 그이의 담력으로 이기는 불패의 혁명적당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그이는 문무를 겸비하시고 혁명과 건설전반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며 정치와 군사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시는 장군형의 정치가이시며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덕정치를 실시해나가시는 인민적정치가의 귀감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조선로동당은 정치와 군사를 밀접히 결합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가장 위력한 당으로 자랑떨치고있으며 그이를 모시여 우리 당은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되고있다고지적하였다.

사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민주조선≫도 사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위에 모신 조선혁명은 승승장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추대 3돐

김정일총비서추대 3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 2000년 10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오늘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김영남,조명록,홍성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행사에 참가할 대표들,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래전부터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여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전당,전군,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형의 혁명적당,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 올리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식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혁명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국력을 비상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시였다고 보고자는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부강조국건설의 일대전환기를 마련하신것으로 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조국의 운명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수령결사옹위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첫째 가는 본분이며 최대의 사명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는 조선혁명의 생명이며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의 정치방식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지적하였다.

총비서추대 3돐에 즈음하여 사설 발표

로동신문

(평양 2000년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주체86(1997)년 10월 8일,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전당,전군,전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우리 당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민주조선≫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수위에 모신 영광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며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신문은 그이를 우리 당총비서로 추대한것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절대적인 지지의 표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더욱 힘 있게 과시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위력이 끊임없이 강화되여 온것은 더없이 귀중한 성과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당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받들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인민들은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전체 인민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영광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고 지적하였다.



역사적 추대

정호일 / 구국전선 주체89(2000)년 10월 1일

10월8일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형의 전위당으로 존엄높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사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주체86(1997)년 10월8일, 영명하신 그분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공식 추대되셨다는 기쁜 소식에 접했을 때 7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참으로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었다.

남북 3천리강산은 물론 교포들이 사는 지구촌의 방방곡곡에서 장군님의 추대를 열렬히 지지, 환영하며 축하하는 대환호성이 천지를 진감시켰다. 세계 각국에서도 추대환영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정일**장군님의 당총비서 추대를 인류공동의 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하며 그분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일국의 당수 추대가 이렇듯 전민족적, 전인류적 대경사로 성대하게 치러진 그런 충격적인 정치적 사변은 세계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다.

김정일장군님의 총비서추대는 실로 온 겨레, 전인류가 함께 받들어 올린 역사적 추대였다.

사실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부터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분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왔다. 21세기의 태양으로 역사가 추대하고 전인류가 받들어올린 그분께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공직에 추대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남민중과 해외교포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경사를 천출위인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특대사변으로 맞이하고 경축했던 것이다. 그것은 문무재덕을 겸비하신 만고절세의 영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21세기를 민족번영의 새 시대로 빛내어 나가려는 민족적 의지의 발현이었다. 당시 내외의 정치분석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비서추대를 평하면서 ≪명실상부한 **김정일**시대의 공식 출범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표현을 썼던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21세기는 **김정일**시대이다.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을 영명하신 **김정일**영수의 영도따라 빛나게 승계완성하는 민족사의 새 시대, 영광찬 **김정일**시대를 맞이했다. **김정일**시대는 통일된 3천리 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김일성**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높이 떨치게 될 자랑찬 시대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것은 이 민족사적 대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고 승리를 기약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는 점에서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용단, 탁월한 지략과 영도력에 의해 민족사가 분단의 시대로부터 통일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지 세돌이 되는 10월8일을 민족적 축일로 뜻깊게 기념하게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평양으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은 사상과 영도, 덕망과 인품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똑 같으신 천출위인이시다. 그분께서는 일찍부터 천재적 예지와 선견지명,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영도력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심으로써 민중의 운명을 책임진 영수로서의 특출한 자질과 품격, 출중한 위인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셨다. 우리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불신과 대결, 분열로만 치닫던 남북관계를 순간에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주신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 공적을 지켜보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통일의 숙원은 반드시 성취되고 민족의 장래는 밝고 양양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몸도, 마음도 다 바쳐나갈 것이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조국통일과 주체위업 완성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여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렁찬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영광의 이 시각. 남녘 민중의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리고 있으며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신 한없는 기쁨과 자긍심에 넘쳐 있습니다.

한국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오늘의 대경사에 즈음하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경하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삼가 무상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시대의 걸출한 영수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장군님에 대한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불변의 존경과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이며 장군님의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빛나게 실현해 나가려는 투철한 결의와 힘찬 지향의 발현입니다.

문무충효를 겸전하시고 일찍이 주체위업 완성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파란 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과감히 헤치시며 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어 민족사와 인류사에 영생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의 새시대를 펼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유산으로 빛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최고 성지로 가장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신 금수산 기념궁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으며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민족사와 자주시대의 역사가 수령님의 역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것은 충효와 도덕의리의 세계적 모범으로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대공적입니다.

사상이론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독창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어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셨으며 사회주의 이론을 과학적 학설로 완성하시어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비상히 풍부화하셨습니다.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었기에 조선노동당은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차원에 이른 가장 권위 있고 존엄 높은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공화국 정권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찬란히 꽃피우는 위력한 정치적 무기로 시대의 각광을 받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 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차 넘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봉쇄가 전례 없이 혹심했던 엄혹한 시기. 김정일 장군님께서 세계 어느 위인도 내릴 수 없는 중대결단으로 오만한 적들의 오금을 꺾어 놓고 사회주의 보루를 굳건히 수호하신 무비의 위훈은 세계가 경탄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주적 삶이냐 비참한 노예 삶이냐 하는 심각한 역사의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이 충효일심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치켜들고 고난의 행군의 최후 돌격전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며 승승장구하는 조국 북반부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무비의 담력과 철의 의지를 펼쳐 보인 장엄한 화폭입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집대성한 올바른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걸음마다 저지 파탄시키시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힘차게 전개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열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지금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민중들 속에서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적 평화통일 열기를 더욱 거세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며 따르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투철한 반제 자주적 입장과 혁명적 원칙성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시고 그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심으로하여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은 자주의 궤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자주시대가 맞이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웅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인류의 존엄과 행복의 유일무이한 체현자 실현자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시대의 대영광이며 온 겨레와 인류의 더 없는 행운입니다.

주체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천재적 예지 비범한 영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 수위에 모심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역할과 위력은 천백 배로 강화되어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는 만방에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릴 것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비상히 촉진되어 우리 나라는 세인들이 우러러보는 강성대국으로 무궁번영할 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모신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시대의 환호성으로 하늘땅을 진감하는 이 시각.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어버이 장군님을 더욱 열렬히 흠모하고 있으며 일편단심 충성의 한길을 힘차게 달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충효일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끝까지 따르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각계 각층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의지로 전진하는 영광 찬란한 김정일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민족민족운동의 도약적 전기를 마련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새날을 마련하여 기필코 앞당기고야말 것입니다.

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두렵지 않고 마음은 언제나 든든하며 조국통일과 민족 만대의 번영은 확고히 기약되어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걸출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1997년 10월 9일
한국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한국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가 10월 9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모신 대경사를 성대히 경축할데 관하여]를 토의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함에 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보도가 참석자들의 크나큰 격정과 환희 속에서 보고되었다. 확대회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모신 것은 장군님에 대한 온 겨레와 인류의 절대 불변의 믿음과 다함없는 신뢰의 표시이며 어떠한 시련과 광풍 속에서도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장군님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을 기필코 실현하고야말 억센 지향과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활동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가장 고결하고 열렬한 충성심으로 수령의 위업 수행에 헌신하시어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 올리시었다고 지적하였다.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 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가장 숭엄하게 꾸리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셨으며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민족사와 자주시대의 역사가 수령님의 역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것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수령 영생 위업을 현실로 펼친 특기할 사변으로서 천추만대 길이 빛날 대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독창적인 사색과 **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었으며 사회주의 이론을 과학적 학설으로 완성하신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라고 지적하였다.

확대회의는 조선노동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 가장 권위 있고 존엄 높은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고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로 다져졌으며 주체조국이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 떨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심으로 하여 오늘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끈질긴 정치 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끄떡없이 필승의 신념과 낙관에 넘쳐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연일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 있다고 확대회의는 지적하였다.

확대회의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집대성한 올바른 통일방략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 하여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은 걸음마다 저지 파탄되고 조국통일 운동은 전민족적 운동으로 힘차게 전개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지금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민중 속에서 폭풍 같은 반향을 불어 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적 평화통일 열기를 더욱 뜨겁게 분출시키고 있다고 확대회의는 강조하였다.

확대회의는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투철한 반제 자주적 입장과 혁명적 원칙성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견결히 고수하시고 그 진로를 휘황히 밝혀 주시었기에 세계 진보적 정당들과 민중은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수며 사회주의 재건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과감히 전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확대회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시는 찬란한 태양이시며 자주시대가 맞이한 걸출한 수령이시고 위인 중에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시대의 대영광이며 온 겨레와 인류의 더없는 행운이라고 지적한 다음 장군님을 수위에 모심으로 하여 민중중심의 주체 사회주의는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릴 것이고 우리 나라는 통일된 강성대국으로 명성을 떨칠 것이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는 앞당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확대회의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모신 대영광과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며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도약적 전기를 마련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새날을 기필코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확대회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모신 대경사를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1.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로 축하문과 축기를 올릴 것이다.

2. 한민전의 각급 조직들과 산하 애국운동 단체들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을 지지 환영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자체 실정에 걸맞게 적극 조직 진행할 것이다.

3.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과 구국전선 신문을 비롯한 여러 선전수단들과 진보적인 언론매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한 대민 홍보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적극 벌일 것이다.

4. 한민전 해외 대표부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각종 정치행사들을 조직 진행할 것이다.

5.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선전하는 책자 유인물들을 더 많이 발행 보급함으로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따르는 충효일심이 경향 각지에 더욱 거세게 굽이치도록 할 것이다.

한국 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는 한국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민중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크나큰 감격과 격정을 안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997년 10월 9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조선로동당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들은 온 겨레와 인류가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화국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신 대경사를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는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과 조선로동당창당 53주년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력사적인 추대 1돐과 창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담아 삼가무상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주체의 당,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주체위업의 진군로우에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로동당을 영광찬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공산주의운동사에 특기할 대공적입니다.

조선로동당이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아래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하여 로동당시대로 불리우는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안아온것도,제국주의반동세력의 광란적인 반북,반사회주의공세를 저지파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적수완과 출중한 실력에서 비롯된 고귀한 결실입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성과 조직적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가장권위있고 존엄높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주체조선은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고동을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첫인공지구위성을 우주에 쏴올려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킨속에서 지난 9월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공화국창건 50주년경축행사는 전당,전군,전민의 일심단결을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로 튼튼히 다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강계정신으로 새로운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며 민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진군모습과 무궁한 활력을 과시한 대서사시적화폭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은 혁명적원칙과 반제적립장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사회주의위업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자주시대를 견인하는 위력한 향도의 기수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있습니다.

세계가 우러러 따르는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는것은 주체조선의 크나큰 영광이고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입니다.

진정 조선로동당을 주체위업완성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수이시며 온 겨레와 인류가 자기 운명을 영원히 맡기고 따르는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승리와 거대한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리론,필승의 투쟁방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파쑈통치의가혹한 폭정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결집을 굳건히 다지고 사상의 일색화와 령도의 일치성을 확고히 실현한 애국적전위대로 더욱 성장강화되였으며 민족민주운동은 옳바른 방향각을 따라 상승발전하는 새로운 력사적전기를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녘에서 각계민중은 반미자주화를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좌표로삼고 미국의 식민지파쑈통치의 청산과 민족대단합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습니다.

경향각지에서 날로 고양되는 반미자주통일기운에 전률한 미제와 그주구들은 애국민주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파쑈탄압과 개량화 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우리의 민족민주운동대오는 끄떡없으며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남녘민중은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령수로 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가장 존엄높은 민족임을 자부하고있으며 장군님을 숭앙하며 따르는 길에 자주와 민주,통일이 있다는것을 절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궤도따라억세게 싸워나가려는것은 ≪한민전≫과 각계애국민중의 불변의 맹약이고 의지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대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어떠한 험로역경에 도동요없이 주체의 기치따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상과 의지의 강자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질것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반미자주통일진군을 가속화하여 민족민주운동에서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한민전≫의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
주체87(1998)년 10월 8일
서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력사의 풍랑을 진두에서 헤쳐나가는 영광찬란한 주체의 당,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54년이 되였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뜻깊은 창당절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무상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창건하신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아래 주체위업의 진군로를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며 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로동자계급의 당은 수령의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고 전당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선로동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여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문화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여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친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이룩된 경이적인 업적이며 위대한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이후 지난5년동안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중첩되는 난국을 불굴의 완강한 의지로 이겨내시며 전당,전군,전민을 이끄시여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로동당시대의 보다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는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기의 고유한 사상과 혈통을 순결하게 고수하여 시대의 각광을 받고있는것도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례없이 악랄한 반북공세를 짓부시고 적들에게 조선의 맛,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어 세계를 경탄시킨것도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고수할 결사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를마련한 력사의 기적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출중한 정치적수완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2년전 당의 총비서,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하여 조선로동당은 사상적순결성과 조직적공고성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여진다 해도 끄떡없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명성을 떨치고있습니다.

오늘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이북이 사상강국,군사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달려 생산과 건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있는 찬란한 현실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총비서로 모신 조선로동당의 위대성과불패성을 펼쳐보인 장엄한 화폭입니다.

자주성과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고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을 힘차게 추진시키기 위한 숭고한 국제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전반적세계혁명 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있습니다.

자주시대의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민중의 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을 필승의 한길로 견인하는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는것은 주체조선의 크나큰 영광이고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입니다.

진정 조선로동당을 주체위업완성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시대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온겨레와 인류가 우러러 따르는 희세의 위인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이 이룩한 자랑찬승리와 거대한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불굴의 신념을 안겨주고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중단없이 가속화해 나갈수 있게 하는 투쟁의 활력소로 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필승의투쟁방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한민전≫은 격변하는 정세파동과 가혹한 파쑈폭정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결집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애국적전위대로 성장강화되였으며 변혁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상승발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남녘에서 민족민주운동의 기본전략좌표인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전례없이 확산고조되고있으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운이 각계층 민중속에서 거세게 분출하고있습니다.

특히 지난 8.15통일대축전은 남과 북,해외가 처음으로 3자련대련합을 실현한 민족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장거로서 우리 남녘민중에게 통일조국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날로 고양되는 반미자주통일기운에 질겁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애국민중세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파쑈탄압과 개량화책동에 광분하고있으나 주체의 기치따라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중의 거세찬 진출을 결코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만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앙하고 따르는 길에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대오의 주체사상화에 박차를 가해 ≪한민전≫의 조직성과 전투성을 가일층높이고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민족민주운동에서 애국적전위대로서의 책무를 다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만년장수는 우리 민중의 간절한 소망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88(1999)년 10월 10일
서 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노동당창당 55주년에 즈음하여

찬란한 태양의 빛발아래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승리와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장엄한 역사적 시기에 맞이하는 조선노동당창당 55주년에 즈음하여 주체의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노동당이 걸어 온 55성상은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연대들을 넘고 넘으며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수놓아 온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역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혁명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역사상 처음으로 주체형의 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어 조선노동당을 자주성이 강한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전도양양한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일찍이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왕성한 투지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다 바치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은 영광찬란한 조선노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의 당의 자랑찬 역사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유례없이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수십여성상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이론,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위업을 수령의 영생위업으로 되게 하신 것은 조선노동당역사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위훈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서 특기할 기념비입니다.

위대한 정치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노동당은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승리에로 이끄는 노숙하고 세련된 전투적인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더욱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압살공세를 쳐물리치시며 세계정치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선군혁명의 새 역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조선노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조선은 자주의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20세기 시련의 시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주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노동당의 역사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의 역사로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것은 오직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오늘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 일으켜 **김정일**결사옹위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나가며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고 창당 55돌을 주체사상의 승리로, 20세기를 결속하는 역사적인 대정치축제로 빛내이므로써 21세기에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휘황한 앞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조국통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구상을 펼치시며 온 겨레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 일으키시고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을 어머니당의 품에 뜨겁게 안아 주신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력과 활력을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며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수로 높이 모시어 제국주의자들의 ≪사회주의종말론≫은 격파분쇄되고 주체사회주의는 자주와 평화, 진보와 번영을 위한 진보적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되고 있으며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자주화위업은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의 궤도따라 새롭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노동당처럼 주체사상으로 위대하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위대하며 불멸의 업적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당은 없으며 반만년 민족사에 노동당시대처럼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세상에 떨쳐진 긍지높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천품, 고매한 인덕과 불멸의 공적으로 위대한 시대를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조선노동당이시며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선노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 불퇴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이론, 백승의 투쟁방략이 있어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파쇼통치의 가혹한 폭정 속에서도 굴함없이 각계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선봉에서 이끄는 애국적 전위대로 성장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녘의 민심은 애국애족의 위대한 정치로 민족단합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우러르며 꿈결에도 뵙고 싶은 어버이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미래이시라는 것을 가열찬 투쟁을 통해 철의 진리로 새긴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이 충직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반미자주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년장수는 우리들의 가장 큰 행복이며 염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89(2000)년 10월10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 울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주년과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이끌어나가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일대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진두에서 개척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의 전위당인 조선로동당은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 주체시대의 향도적 역량으로써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행로는 위대한 장군님은 곧 조선로동당임을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사상이자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이며 장군님의 영도이자 조선로동당의 승리와 영광이며 장군님의 덕망이자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하여 현 시대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 가장 애국적이고 애족애민적인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위상은 최상최고의 경지에 이르고 당의 양양하고 창창한 앞날은 확고히 기약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의 창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주체형의 당의 탄생을 선언한 일대 경사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수천년 민족사에 빛마저 잃었던 조선은 세인이 선망하는 ≪**김일성** 조선≫, ≪주체의 조국≫으로 자랑 떨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한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는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지심으로써 당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는 특출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일찍이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70성상의 장구한 기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으신 만고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버이주석님은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십니다.

조선로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영광된 노정위에 무비의 위훈을 찬란히 수놓았습니다.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하여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에 이른 필승불패의 위대한 당으로 주체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인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반석같은 조직사상적 기초와 완벽한 영도방법을 겸비한 노숙하고 전투적인 주체혁명의 참모부로 민중과 혈연적으로 일체화된 어머니당으로, 어버이주석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원한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된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주석님의 주체위업을 한치의 편차도 없이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시고 만민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서거이후 닥쳐든 천겹만겹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20세기를 주체조선의 승리의 세기로 빛내이고 21세기의 첫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무적강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 고립압살책동을 쳐물리치며 세계정치사상 처음보는 선군시대의 새 역사,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었기에 조선로동당의 권위와 위신은 하늘에 닿아 있고 주체조선은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과시하며 경제강국건설의 북소리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엄혹한 시련의 세기를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역사가 어버이주석님의 영생사로 무궁토록 흐르게 하신 것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계심으로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거창한 위훈과 변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새 세기를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나게 장식해 가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북민중은 근로민중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온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그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성업에로 이끌어주시는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류태양의 거룩한 혁명실록을 펴놓으시며 역사적인 러시아연방방문을 비롯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자주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이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세계정치발전의 주도자, 인류자주화위업실현의 창조자로 공인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동자계급의 당이 많지만 조선로동당처럼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과 그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당, 사상과 영도가 위대하고 활동이 노숙하며 전도가 양양한 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말로 천재적 예지와 출중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선로동당이 달성한 자랑찬 성과와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불패전의 용맹과 필승의 신념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전위당건설사상과 이론, 투쟁방략이 있음으로하여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압제의 어둠속에서도 좌절과 체념을 모르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결집을 굳건히 다지고 사상의 일색화와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실현한 애국적 전위대로 성장발전할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끝없이 숭배하며 따르는 것은 우리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의 정치적 신앙이며 불변의 양심입니다. 지금 남녘의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을 세계 정치원로로, 21세기 태양으로 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은 민족임을 자부하며 장군님만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고저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일편단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충정을 안고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필코 앞당겨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이남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쁨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10월 8일 서울

리인모동지가 편지

(평양 2000년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첫 당원들중의 한사람으로 입당하여 당의 성스러운 55년 력사와 더불어당생활을 해왔다는것만으로도 저는 더없는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당에 운명을 맡기고 당과 숨결을 같이 하며 고난에 차기는 하였어도 보람찼던 지난날이 떠오르고 은혜로운 당의 품,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만을 누려 온 7년세월이 삼삼히 떠올라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길 없습니다.

저는 지난 7년동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천만가지 소원을 다 풀었습니다.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속에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인생말년에 세상만복을 다 누리며 락을 보고있습니다.

다만 감옥에서 같이 고생하고서도 저혼자만 행복을 누리는것이 다른 비전향장기수동지들에게 늘 죄스러웠는데 그들도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넓은 사랑의 한품에 안겼으니 기쁨이 끝없고 여한이 없습니다.

태양같이 따사로운 혁명적동지애와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 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당의 품에서만 우리 전사들의 삶이 빛나고 꽃 필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 오늘입니다.

저는 우리 인민이 누리는 당복은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안겨 주신 당원증을 언제나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당을 받들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만을 그려 보며 인생마무리를 깨끗이 짓겠습니다.

오익제선생이 편지

(평양 2000년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저는 그동안 조선로동당이 걸어 온 자랑찬 로정을 더듬어 학습하면서 그리고 대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경사스러운 축전을 지켜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로숙하고 존엄 있는 당인 조선로동당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기게 됩니다.

조선로동당은 한계를 가늠할수 없이 강한 신념의 당입니다.

인류력사에 당이라는 정치조직이 생긴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리념으로 굳게 결속된 조선로동당처럼 신념이 강한 당은 있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존경해 마지 않는 신념의 강자들, 비전향장기수들이 다름아닌 조선로동당원들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정당한 위업은 최근년간에 성공적으로 이겨 낸 엄혹한 시련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진리성은 세인을 깊이 감복시키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철석 같은 불굴의 신념우에 어머니의 사랑과 따사로움이 있어 더욱 강유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로동당이 이와 같은 훌륭한 면모를 갖추게 된것은 신념의 최고화신이시고 사랑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령도자님의 위대한 모습이 당에 그대로 어리여 있기때문입니다.

경애하는 령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기에 조선로동당은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멸의 생명력과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령도자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만난을 이겨 내며 강성부흥하는 조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누구나 령도자님을 우러러 통일의 앞날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령도자님은 곧 조국통일이십니다.

온 겨레가 령도자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통일의 그날에 삽니다.

오늘의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은 그때문에 더욱 경사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위대한 령도자님을 우러러 다시 한번 축하의 큰 절을 올리면서 령도자님의 통일전사로서의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령도자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

(평양 2000년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살아서 돌아 오지 못하면 죽어서 넋이라도 안기고 싶었던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각별한 환대를 받으며 매일 매시각을 보내고 있는것만도 황송함을 금할수 없는데 경사로운 당창건 55돐 중앙경축행사 대표로까지 불러 주시니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할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비찬점 스며 들지 않는 캄캄한 철창속에서 오랜 세월 신념과 량심을 지켜 끝까지 싸울수 있은것은 바로 저희들의 심장속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우리 당이 마음의 기둥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기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삶의 전부를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보낸데 대하여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여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여 가장 위대한 당, 가장 존엄 높은당, 가장 따사로운 어머니당의 슬하에서 당의 전사로 살며 싸워 온 가장 값 높은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였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령도자와 당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정치적생명을 지킬수 있고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설수 있지만 난관앞에 굴복하고 유혹과 회유에 흔들리면 더러운 변절과 배신의 길에 굴러 떨어 진다는것이 30년, 40여년간의 옥중투쟁기간에 저희들이 체득한 진리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생을 당을 믿고 싸워 온 혁명가들이라고, 빼앗긴 청춘을 되찾아 주고 세상에 부럼 없는 행복한 삶을 안겨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거듭거듭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니 아무 한일도 없는 저희들은 정말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뜨거운 은정속에 하루를 보내고 새날을 맞으면 더 큰 사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랑속에 또 하루밤을 자고 나면 새 사랑에 접하게 되는 이 위대한 사랑의 품에서 전사들은 장군님의 존함만을 목메여 부를뿐입니다.

우리는 당창건 55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맹세합니다.

누리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할 혁명전사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늙고 병약한 몸이나마 깡그리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이남민중의 반향

김정일장군님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를 각계서 축하

박찬규 / 구국전선 주체86(1997)년 10월 11일

이북에서 **김정일**영수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민중은 그분께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리고 있다.

김정일영수를 민족의 영수로 높이 추대한 오늘처럼 공단과 기업체, 도시와 농촌, 그 어디서나 사람들이 격동과 환희에 넘쳐 있은 때는 일찍이 없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진귀한 꽃들을 그분의 초상사진 앞에 정히 드리고 그분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으며 경희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여러 대학가들에서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영광≫, ≪하늘땅에 넘치는 민족의 대경사≫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어디에 가나 들을 수 있는 것이 **김정일**영수를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에 관한 얘기이다.

≪우리 민중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바라던 추대입니까.

지금 저의 심정은 주체연호와 태양절이 제정된 역사적 시기에 **김정일**영수를 민족의 영수로 높이 추대한 끝없는 환희를 소리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김정일영수를 우러르며 그분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시다.≫

서울의 언론인 황일의 말이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는 이 민심의 대하에는 ≪우리 겨레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영원한 수령복을 누리게 되었다≫(경남대 퇴직교수 이수길)라고 격조 높이 외친 지성인들의 숭고한 경모의 정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추대한 것은 우리 민족의 최상최대의 영광이며 행복이다≫라는 전주천도교인들의 열렬한 흠모심도 함께 굽이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김일성**민족의 영광 길이 전하라!≫ 대전역 앞에 나붙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쇄물이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 만세!≫라는 유인물이 경향 각지에 나돌아 만 사람을 격동시키고 있는 사실에서도 뜨겁게 굽이치는 이 땅의 환호를 읽을 수 있다.

울산,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호남의 농민들, 제주도의 해녀들과 평화시장 여공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리고 있다.

정녕 사는 곳과 직업, 성별과 신앙은 서로 달라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는 민중의 마음은 하나로 굽이치고 있다.

온 남녘 민중이 하나와 같이 이 기쁨, 이 경사를 환희에 넘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총비서추대1돐에 대한 반향

(평양 1998년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1돐에 즈음하여 남조선인민들이 끝없는 칭송과 신뢰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있은 모임에서 통일애국동지회 회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민족소망의 결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은 풍파사나운 20세기 후반기 장장 30여년의 령도성상을 기록하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이끌어오신 민족의 걸출한 령수이시며 희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로서의 천품과 자질을 완벽히 갖추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자주위업을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최대최상의 행운이자 특전이며 민족의 찬란한 래일을 기약해주는 위대한 경사이다.

서울의 언론인 최 아무개는 자기의 글에서 우리 민족은 수령복을 타고난 민족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존함과 더불어 이북이 20세기에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나라로 빛을 뿌렸다면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여 21세기에도 이북은 자주의 성새로 명성떨치고 존엄의 성지로 우뚝 서서 지구촌에 령롱한 빛을 뿌릴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썼다.

한양대학교구내에 나붙은 대자보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숭앙하며 따르는 길에 자주,민주,통일이 있다.

모두다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충효일심으로 높이받들어 모시고 끝까지 따르자 민족의 령수,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 만세≫



김정일장군님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해외동포들의 반향

김정일총비서추대1돐 재로동포행사

(평양 1998년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동포들의 기념보고회가 로씨야고통련,모스크바고통련의 주최로 8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로씨야 고통련 위원장 리동철의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사상과 령도,덕망에서 제일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동포들과의 사업을 더 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가 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를 돌아보았으며 영화 ≪집단체조(영광빛나는 **김일성**조선)≫을 감상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 재중교포단체와 고통련에서 편지와 축전

(평양 1999년 10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에서 편지와 축전을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편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편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조국의 륭성번영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다고 썼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들고 나가는 향도의 기치로 된것은 그 수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이 영원히 **김일성**대원수님의 당으로,백전백승하는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체가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편지는 또한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당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며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동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따라 더욱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위업과 내나라,내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는 축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왔으며 그정당성을 과시하였다고 썼다.

축전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여 인민의자유와 행복을 마련하는 투쟁에서 당이 향도적기치로 되였으며 커다란 업적을 이룩한데 언급하였다.

편지와 축전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 해외교포조직과 동포들이 축하문

(평양 1999년 10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산하조직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산하 조직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 범민련 미국지역본부 공동의장 류태영,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회장 리상옥, 공화국영웅 안동수의 부인 정일심가족을비롯하여 해외교포조직 및 동포들로부터 축하문, 축하편지, 축전을 보내여왔다.

축하문,축하편지,축전들은 시대와 혁명,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억제할수 없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21세기는 주체조국의 영예와 존엄이 더욱 찬연하게 빛나는 세기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축하문, 축하편지, 축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의 통일위업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동포들의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국제사회의 반향

김정일총비서추대1돐과 당창건 53돐행사

(평양 1998년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탄자니아와 마다가스까르에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마다가스까르독립대회당 위원장과 정치국 위원들,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서기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 연설자들은 사상과 령도,풍모에서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추대1돐과 당창건 53돐경축행사

(평양 1998년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최근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인디아(인도)와 에티오피아에서는 경축집회가, 가이아나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민주꽁고에서는 강연회가 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 정계,사회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에 언급하면서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강철의 혁명적당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뜨겁게 표시하면서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김정일총비서로추대1돐경축행사진행

(평양 1998년 10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1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공산당련맹-쏘련공산당리사회에서 경축집회가, 말따와 가이아나에서는 집회와 조선로동당의 력사적경험과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인디아(인도), 에짚트(애급), 싱가포르에서는 영화감상회가,로므니아에서는 경축모임이,탄자니아와 방글라데슈에서는 독보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일찌기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으며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업적과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를 지지한다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평양 1998년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돐과 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8일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공보책임자 아브 라흐만 마타르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는 모든것을 조국을 위하여,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치고계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투사이시다.

우리는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따라 조선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총비서추대 2돐, 당창건 54돐행사

(평양 1999년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에서 토론회, 영화상영 및 사진전시월간개막식, 좌담회와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마다가스까르투쟁련합당에서 진행된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로동당이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평양 1999년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9월 25일과 26일 체스꼬, 마다가스까르, 탄자니아에서 좌담회, 강연회, 독보회가 진행되였다. 한편 9월 23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람회가 뻬루의 까하마르까에서 개막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요세프 쎄르비스따는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은 지난 54년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뻬루의 까하마르까주문화협회 조정자 페르난데스는 조선로동당은 세계적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체의 당으로서 자기의 로선을 꿋꿋이 고수해나가고있으며 조선인민은 당의 두리에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평양 1999년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2돐과 조선로동당창건 54돐에 즈음하여 인디아 **김정일**로작연구학회에서 9월 29일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토론회가 있었다.

학회위원장은 토론에서 오늘 국제사회계는 행성의 정계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조선의 집권당과 그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께 더욱 시선을 모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가 끄떡없이 전진하고있는 놀라운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인 조선의 사회주의가 계속 승승장구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9월 28일 가이아나 골든 그로우브초등학교에서는 **김정일**학급명명 5돐경축 집회와 운동회가 진행되였다.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총비서추대 4돐, 당창건 56돐

(평양 2001년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돐과 당창건 56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의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에서는 토론회가,적도기네의 말라보와 나이제리아기자동맹 국제기자강습소,말레이시아의 양지려행사에서는 영화감상회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공식방문≫,록화물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 등이 상영되였다.

오스트리아의 윈에 있는 **김정일**주체사상연구청년소조 책임자 토마스 뢰쉬는 토론회에서 조선로동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승리의 로정에 언급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오늘 **김정일**각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당으로 존엄을 떨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이제리아 기자동맹 국제기자강습소 소장 케이.아그비는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경탄을 표시하면서 그이께서 진행하시는 현지지도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시찰방법과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마다가스까르로농투쟁당,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루가지지부,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26일과 27일 강연회들이 진행되였다.

(구국의 소리 방송 2000년 10월 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9월 19일과 22일 중국 심양시, 체코 로끼짜니시에서 친선모임과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중국 심양화신집단 총재와 성원들, 체코 체히-모라바공산당 로끼짜니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국 심양화신집단 총재는 친선모임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중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이북을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의 체히-모라바공산당 로끼짜니시위원회 위원장은 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을 보고 **김정일**영도자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그분의 자주정치가 얼마나 큰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되였다면서 조러 두 나라 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의 성과적 진행, 조러모스크바선언의 채택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은 21세기 정치소식에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 높으신 그분을 하루빨리 체코땅에 모시고 싶은 것이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경의를 표시



2001년 7월

김정일최고사령관 금수산기념궁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2001년 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 주체90(2001)년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1월 1일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서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10월 10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하여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고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다.



2000년 7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6돐을 맞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다.

2000년 4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에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4월15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국방위원회화 조선인민군의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 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 있었다.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2001년 9월

김정일총비서께서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지도기간 7월6일철도공장, 라흥콩크리트침목공장, 성천강23호, 24호, 25호, 26호, 27호발전소, 영광청년양어장,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7월6일철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공장의 발전연혁에 대하여 들으신 다음 전강재압연차바퀴분공장, 외륜직장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에 들리시여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공업의 위용을 시위하듯 집채 같은 대형프레스들과 공기마치들이 거세찬 동음을 울리며 차바퀴들을 쉬임없이 찍어내는 장쾌한 작업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 진 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긴장한 철도수송문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륜직장의 15톤공기마치는 지난 30년간 한건의 사고도 없이 만가동하여 철도수송과 나라의 공업화에 절실히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공급하는 영웅적위훈을 세운 공로가 큰 기대라고 하시면서 이 자랑 높은 기대에 영웅칭호를 수여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수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리는데서 7월6일철도공장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맨주먹으로 차량생산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생산공급하던 그때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기관차, 객화차 공장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날로 늘어 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하며 새 세기에 맞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모든 공정들을 최신설비들로 장비하기 위한 기술개건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며 새로운 선진기술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현장에서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도 보아 주시고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하고 있는데 대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라흥콩크리트침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침목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 들리시여 생산정형을 알아 보시고 증산투쟁을 벌리고 있는 로동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침목은 철길의 강도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만큼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질 좋은 더 많은 침목을 철길대들에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침목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한편 그 능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성천강23호, 24호, 25호, 26호, 27호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으로 건설된 발전소들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흐르는 물을 모조리 리용하여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훌륭한 발전소들을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함경남도에서 성천강을 막아 33개의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이였을뿐아니라 관개용수의 물온도를 높여 농업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중소형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발전기의 효률을 높이고 전기랑비를 없애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많은 전기를 얻어 내자면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 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수차의 효률을 부단히 높이며 전력소비기준을 극력 낮추어 생산된 전기를 분한있게 씀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영광군 자동리에 새로 건설된 영광청년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알깨우기장, 양어못, 배합먹이가공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십정보에 달하는 현대적인 양어장을 돌아 보시고 광명성제염소를 건설한 청년돌격대원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한 양어장을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에 나와 물고기먹이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함흥화학공업대학 교원 장혜영을 만나시여 연구사업진행정형을 보고 받으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의 숨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민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며 좋은 종자를 연구개발하고 먹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양어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신흥군 중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농장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 보신 다음 6작업반의 발전소와 문화주택들, 목욕탕,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농촌건설과 영농사업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마을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켰으며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6작업반의 모든 살림집들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고 목욕탕도 전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이 확증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지대적특성에 맞게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어 인민군후방가족인 김효봉농장원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기난방화된 살림방들과 부엌을 돌아 보신 다음 가족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식구는 몇이며 군대에 나간 자식들한테서 편지는 오는가, 텔레비죤은 정상적으로 보는가, 전기온돌을 놓은 후 방안이 춥지는 않는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 보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효봉농장원이 아들딸들을 잘 키워 군대에 내보냈을뿐아니라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장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그의 애국적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도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위하여 함경남도인민위원회와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신흥관에서 만찬을 차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흥관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정형을 알아 보시고 감분을 비롯한 지방의 특산물들을 리용하여 인민들에게 맛 있는 여러가지 국수를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만찬석상에서 함경남도에서 최근년간에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국태, 김기남, 정하철, 철도상 김용삼, 기타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2001년 7월



김정일총비서 황해남도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7일 토지정리된 황해남도 태탄군 류정협동농장과 재령군 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정하철부장, 리용철, 장성택, 주규창제1부부장들, 조선인민군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 조선로동당 황해남도위원회 김운기책임비서, 조선

인민군 리병삼, 심명수상장들, 농업성 최상벽부상,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김보경위원장과 군당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드넓은 협동벌의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토지정리진행정형과 영농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눈 부신 투쟁에 의하여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이 무질서하게 널려 있던 다네벌이 대평원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면서 풍요한 드넓은 대지에서 기계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보았으면 하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로동당시대에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건설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정리전투장에 달려 와 애국충정을 다 바친 장풍군 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인 공훈뜨락또르운전수 김범룡과 그의 아들들인 불도젤운전수 김영수, 김철수, 김인수들을 만나시여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범룡의 4부자가 강원도토지정리때부터 오늘까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하여 헌신복무한 이런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기에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연한 논벌과 견고하게 건설된 구조물들, 곧게 뻗은 수로를 따라 쉬임없이 흘러 드는 관개수를 보시고 토지정리의 생활력이 크게 은을 내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매기와 논물관리, 비료치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농장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농사를 깐지고 알뜰하게 하며 비바람피해와 병충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재령군 재천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력영웅들인 남포시돌격대 책임자 량응빈, 정주시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 한병권, 순천시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 김동준, 사동구역토지건설사업소 부부불도젤운전수들인 장순일, 전복금, 벽성군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운전수 리영철과 그의 안해 림춘실, 백암군토지건설사업소 부부불도젤운전수들인 김렬환, 윤순희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그들이 발휘한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참기 어려운 상실의 아픔과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과감히 일떠서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림으로써 지난 7년간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치렬한 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은 모두가 영웅으로, 투사들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농장마을을 바라보시면서 토지정리와 농사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정리사업이 활발히 벌어 진 결과 삼국동벌에 우리 농민들이 오랜 세월 리상으로만 그려 보던 새로운 대지가 자랑스럽게 펼쳐 질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 시, 군들에서 토지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온 나라의 땅을 하루빨리 사회주의국가의 땅답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 앉은 고래등 같은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들, 갖가지 과일나무 우거진 뒤산과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리당비서를 비롯한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마을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농장포전에서 작업하는 뜨락또르, 련결농기계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보시며 성능과 리용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앞당겨 실현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토지정리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여 기계화의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실정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농촌에 맞는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기계생산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농민들이 좋아 하는 질 좋은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농촌에 수많은 각종 농기계들이 공급된 조건에서 그 리용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농민들을 힘 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말로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인것만큼 이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한시바삐 풀어 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양어장과 발전소, 문화주택마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1일 황해북도에서 새로 건설한 범안양어장과 범안발전소, 범안협동농장의 문화주택마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서흥군 범안리에 건설된 범안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어장을 돌아 보시면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그처럼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해제낀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범안양어장을 후대들에게 당당히 물려 줄수 있게 질적으로 건설하였을뿐아니라 현대양어과학기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수천마리의 오리를 키워 물고기사료도 보충하고 많은 오리고기도 생산할수 있게 실리적으로 설계한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것만큼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물고기를 풍족히 먹는 새 력사를 하루 빨리 마련해 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범안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의 내부와 언제를 돌아 보시면서 자체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범안리의 전력문제를 풀고 새로 건설한 리소재지 살림집들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한것은 큰 성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의 구조와 기술장비상태를 알아 보시고 모든 시, 군들에서 물원천을 모조리 찾아 내여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범안리 소재지에 새로 건설된 문화주택마을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적인 문화주택들과 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추를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룬 뒤동산과 풍요한 전야와 고기떼 욱실거리는 양어장을 끼고 궁궐 같은 기와집들이 주런이 들어 서 있는 해빛 밝은 마을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것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선경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이곳 협동농장의 제대군인부부인 분조장 박용철, 농장원 김성녀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제날의 화선병사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신 후 전기난방화된 알뜰한 살림방들을 차례로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부엌에 들리시여서는 나무로 밥을 한다는것을 아시고 밥까지 전기로 해먹어야 전기화가 완전히 실현되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기생산을 늘여 전기로 밥을 짓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마당의 터밭과 집짐승우리를 보시고는 터밭에 무엇을 심으며 집짐승은 어떤것을 기르는가를 알아 보신 후 몸소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꼭 같은 집들이 줄 지어 서 있는데서는 반드시 문패를 붙여야 한다고 하시며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살뜰히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제대군인부부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된 건설물들을 돌아 보시고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에서 농업생산과 국토관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힘을 당면한 영농전투에 집중하며 마을과 집주변에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키우며 나무심기를 군중적운동으로 근기 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로배권,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병송, 조선로동당 서흥군위원회 책임비서 방문성과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2001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30일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황해남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 각도에서 달려 온 돌격대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1단계기간에 예견하였던 5만여정보의 토지정리과제를 한달 앞당겨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안악군 어러리벌, 삼천군 전진벌을 비롯한 도내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토지정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에서 토지정리를 비롯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 있게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산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또 모든 농촌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더 잘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남도에서 최근년간 농촌건설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2001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흥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 11일 함흥시내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의 하나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기업소구내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을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직후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무려 25차에 걸쳐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고 룡성의 로동계급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계급의 전위투사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대형공작기계공장, 제1주강직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들리시여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제일 큰 대상설비생산기지이며 우리 공업의 얼굴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2001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태천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 14일 평안북도 구성공작기계공장과 태천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

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평안북도의 로동계급은 새해의 정초부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구성공작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주체적인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한계단 비약시킬 애국의 일념을 안고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수자식 조종선반, 종합선삭반, 볼반을 비롯한 현대적인 최신공작기계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지난 1년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그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주체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천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확장된 태천언제와 태천2호발전소를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2001년 1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0(2001)년을 맞으며 황해남도토지정리에 참가하고있는 각도돌격대원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해 주체90(2001)년을 맞으며 황해남도토지정리에 참가하고 있는 각도 돌격대원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토지정리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자랑한 위훈을 세우고 있는 각도의 돌격대원들은 주체89(2000)년 10월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알리는 첫 동음을 울린 때로부터 힘과 지혜를 바쳐 투쟁함으로써 년말까지 계획하였던 공사과제를 앞당겨 완수하고 도의 전반적인 토지정리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겨울철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의 토지정리구상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 있는 각도 돌격대원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새 세기를 맞는 주체20(2001)년 설명절을 자기 집에 가서 쇠도록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즐기도록 식료품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람 세찬 사나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일터를 련이어 찾으시여 황해남도의 토지를 사회주의국가 토지답게 정리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해 주신것만 해도 더 바랄 것이 없는데 또다시 크나큰 어버이사랑을 안겨 주시니 돌결대원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었다.

각도 돌격대원들과 그 가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가장 뜨거운 감사와 만수축원의 마음을 담아 새해의 설인사를 삼가 드리였으며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앞당겨 끝내는데 모든것을 다 바칠 충성의 한마음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2000년 1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준공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13일 새로 건설된 청년영웅도로를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영웅도로입구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일환동지를 비롯한 청년동맹일군들과 군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로의 폭과 형성은 물론 모든 건축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되였다고 하시면서 청년건설자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고속도로를 보란듯이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그들의 자랑찬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영웅도로는 후대들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더 잘 꾸리고 항상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로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건설자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외국어대학, 조선콤퓨터쎈터 교원, 연구사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의 경제를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려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연구집단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회전질화로공정의 자동화, 콤퓨터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적외선검출기에 의한 자동온수감체계를 개발완성하고 그와 결합된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을 콤퓨터로 실현할수 있게 조종프로그람을 작성하였으며 적외선온도수감부와 콤퓨터를 결합시키는 입출구결합장치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받아 안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교원, 연구사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근로자들은 과학과 기술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번영하게 하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 있다.

2000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전병호동지,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박송봉동지, 리용철동지, 장성택동지가 동행하였다.

자강땅에 위대한 변혁의 새 력사를 안아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맞이한 도내 인민들은 끝 없는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기간 강계정밀기계련합기업소, 강계견방직공장, 홍주청년발전소와 전기난방화된 살림집마을, 성간림산사업소, 장강군 장편협동농장과 무덕협동농장, 성간군 성하잠업전문협동농장, 성간군 성간고등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높은 목표를 향하여 활기 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은 사회적진보와 발전의 기초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지도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태도와 립장을 가지고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경북도의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1일과 2일 량일간에 걸쳐 함경북도의 공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기간 김책제철소, 3월17일발전소, 새로 건설된 중소형발전소들, 어랑군에 건설되고 있는 제염소, 청진양어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구호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도내 로동계급은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개와 영웅적기상을 만천하에 자랑스럽게 떨쳐 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북방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현지교시판을 돌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제철소의 발전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김책제철소는 강위력한 주체적인 굴지의 대야금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는 영웅조선의 숨결인양 거세찬 증산의 열풍이 휘몰아 치고있는 용광로직장, 정련로직장,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어려운 시기마다 강철로 당을 앞장에서 받들어 온 김철의 로동계급이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병,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모범적인 초급일군들과 혁신자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였으며 기업소책임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제철소의 생산능력을 늘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김책제철소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도 몸소 보아 주시고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벌려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를 적극 불러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선동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17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000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 북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16일 평안북도 북중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기업소구내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의 전체 로동자, 기술자들이 미래에 대한 락관과 신심에 넘쳐 충천한 기세로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온 북중의 로동계급은 지난 기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각종 기관, 압축기, 랭동기를 비롯한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함으로써 나라의 선박공업발전과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선박공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서 북중기계련합기업소의 위치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000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량강도 대홍단군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대홍단1호발전소를 돌아 보시고 군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흥분장을 돌아 보시고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삼천리벌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신흥분장의 광활한 전야를 바라보시면서 영농작업의 기계화정형을 료해하시고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짧은 기간에 종합적기계화가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본보기농장으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서두분장에 휴양각마냥 아담하게 일떠선 제대군인마을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을 안고 달려온 제대군인들이 영광의 땅 대홍단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지난 1년간 많은 일을 하였으며 감자농사혁명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000년 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4일 평안북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둑판처럼 씨원스럽게 뻗어간 대규모의 규격포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군인건설자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어렵고 방대한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토지정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내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안북도내 공업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락원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신포향주철직장, 유압기구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구성공작기계공장, 새로 건설된 12월5일청년광산, 량책베아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과 신의주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 공업부문의 전반적인 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기초하여 중요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일군들을 만나시고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인민군군부대 현지지도



2001년 9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인민군군부대, 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1일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와 제368군부대,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 제821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동행하여 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가파로운 비탈길을 따라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광활한 방어전연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부대에서 진행하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사업과 군인들의 문화생활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에서 모든 군인들이 높은 계급적자각을 안고 총 쥔 병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계급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사업을 청년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할데 대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교양실, 침실, 취사장을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들을 친히 만나시여 옷색갈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복장상태를 세심히 알아 보시면서 우리 전사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선참으로 안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혁명의 천만리 길을 끝까지 걸어 갈 충성의 맹세로 가슴 불 태우는 미더운 병사들이 서리발 비낀 멸적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 잡고 전연초소를 튼튼히 지켜 가고 있기에 우리의 주체혁명위업과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6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부대가 걸어 온 자랑찬 행로를 보여 주는 기록들을 보시고 연혁을 들으신 다음 교양실, 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세심한 관심을 돌려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설비들을 군인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훌륭히 꾸리였으며 특히 직관선동을 전투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무엇을 하나 해도 혁명군대의 맛이 나게 알뜰하게 하는 부대의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부대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염소

목장과 토끼목장을 시찰하시였다.

군부대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목장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였다.

군부대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군인들에게 더 많은 우유와 고기를 먹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건설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왔다.

그이께서는 먼저 염소목장을 시찰하시였다.

지난 4월 목장에 찾아 오시여 현대적인 목장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휘황한 전망을 펼쳐 주시고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 없는 사랑에 고무된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젖짜기실, 젖가공실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최신식설비들로 장비하고 염소사양관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목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그이께서는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설비상태와 사양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젖짜기로부터 젖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현대적인 기계수단에 의하여 진행되는 생산공정들과 산뜻하게 건설된 편의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고 부대군인들이 몇달사이에 목장의 기술개건을 훌륭히 끝내고 여러 가지 젖가공제품을 다량생산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제는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젖가공제품을 먹일 수 있게 되였다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목장과 같은 현대적인 염소목장을 도처에 건설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염소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군인들에게 더 많은 염소젖과 젖가공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토끼목장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끼토끼우리, 살찌우기우리, 가공실, 먹이조리실을 비롯한 목장의 여러곳을 돌아 보시면서 생산실태를 자세히 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목장의 종업원들이 해마다 많은 토끼를 길러 고기와 털가죽제품을 군인들에게 공급하였을뿐아니라 토끼새끼를 받아 관하 군부대들에 보내 준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곳 군부대에서처럼 염소, 토끼 등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한다면 우리 인민들에게 짧은 기간에 풍족한 생활을 마련해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9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제19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두가 충성의 일념을 안고 용맹을 떨치는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시고 전체 군인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부대의 문화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알뜰하게 꾸려 진 병영주변과 구내, 깨끗한 침실, 식당, 취사장, 세목장, 도서실, 야외휴식장을 보시고 부대관리를 깐지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불 타는 애국심을 안고 주둔지역의 환경정리를 잘하였을뿐아니라 자기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병영안팎을 깨끗이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군인들이 항일유격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그대로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무적의 전투대오로 준비하였으며 부대관리에서도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전군이 이 부대의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지휘관들과 안해들이 전사들을 친부모의 사랑으로 살뜰히 돌봐 주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후방시설들을 잘 갖추어 주고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부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후방공급사업을 일층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를 돌아 보신 후 군부대관하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적으로, 락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국보위초소에서 근위병의 영예를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인민군 제535군부대관하 구분대와 제21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18일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관하 구분대와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21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 제535군부대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와 구분대 지휘관들의 영접을 받으시고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신 다음 구분대군인들의 기술상학을 참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기술상학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고 군인들이 기술학습을 꾸준히 실속 있게 벌려 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구분대의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세목장, 부업창고, 양어장, 축사를 비롯한 문화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의 잠자리로부터 물보장과 간장의 색갈에 이르기까지 헤아려 보시고 구분대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고 있으며 부대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이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 잡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21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지휘관들의 영접을 받으신 다음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병영주변과 공원과 같이 깨끗하게 꾸려진 구내를 바라보시면서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 이 훌륭한 환경조성은 군인들의 심장속에 높뛰는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군인들의 문화생활정형을 료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부대의 기록을 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영용하게 잘 싸웠으며 전후에는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기여한 자랑높은 부대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부대에 훌륭히 꾸려 진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 취사장, 두부생산칸, 갱도식콩나물재배장, 자연랭동갱도식랭장고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부대에서 전사들에게 매일 두부와 기름, 콩나물국을 먹일수 있게 가공 및 재배시설을 꾸리고 현대적인 지하랭장고를 건설하여 각종 식료품들을 생신하게 보관하고 있을뿐아니라 부업조직을 짜고 들어 풍성한 식생활을 마련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헌신분투함으로써 후방공급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군관 김경웅의 소행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병사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이런 미더운 지휘관들이 많기에 우리 군대의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전통적인 미풍은 더욱 활짝 꽃 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 부대의 지휘관들처럼 전사들을 위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창발성을 발휘하여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병사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 살림살이방법을 전군, 전 사회가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모든 부대들에서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어디에서나 풍만한 결실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혁명군대만이 발휘할수 있는 자랑찬 풍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부대에 가 보나 하나같이 깨끗하게 꾸리고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우리 군대는 새 문화창조에서도 앞장 서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군인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 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높은 정신세계를 소유하고 있을뿐아니라 자각성에 기초하여 고도로 정규화된 우리 군대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에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와 리용철, 장성택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2001년 8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19일 함경북도주둔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는 끝 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세찬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풍같은 만세갸의 환호를 올리는 부대의 군인들은 전체 인민군군인들의 열화 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력사적인 외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 오신 최고사령관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과 현철해, 박재경대장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장성택, 주규창제1부부장들이 동행하여 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 온 부대의 전투기록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백전백승을 떨쳐 온 부대의 군기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영웅적위훈은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여 군부대장의 정황보고를 받으시고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침실, 식당, 온실 등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부대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화 및 후방시설들을 갖추어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고 병영주변과 구내를 공원처럼 아담하게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식당에 들리시여 전사들에 대한 지휘관들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어려 있는 ≪전사들의 생일일력≫을 보시고 전사들의 생활을 고향집부모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봐 주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기뻐 하시면서 부대군관들과 안해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아 주시였다.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외국방문의 길을 걸음걸음 따라 서며 장군님의 안녕만을 바라던 인민군군인들의 절절한 심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들을 격조 높이 불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의 교양실, 침실, 야외휴식장, 목장 등을 돌아 보시면서 지난 기간 중대군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중대는 병사들의 집이고 공산주의학교이라고 하시면서 중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중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최전연초소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8일 최전연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2796군부대관하 초소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머나먼 최전연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며 그이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인민군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대장들이 동행하여 왔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방감시소에 오르시여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 전연초소의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연초소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을 무력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조국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 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연초소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연초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정형을 료해하시고 청년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사상교양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모든 군인들을 사상의 강자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침실, 식당, 일일창고, 세목장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전연초소의 후방사업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시고 군인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후방공급사업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같이 전초선을 지켜 가는 전사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전연초소 군인들이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 잡고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고지의 전호가에서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1년 6월

김정일최고사령관 제983군부대와 메기공장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21일 조선인민군 제98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최전연에 위치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전체 군인들은 그이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을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시고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다음 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군인들은 평시에 꾸준히 련마해 온 전투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지킬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한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제567대련합부대에서 건설한 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를 현지에서 대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대련합부대 사령관은 메기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그이의 명령을 앞당겨 수행한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대련합부대 장병들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맛 있고 영양가 높은 메기를 더 많이 먹일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하

루빨리 실현할 불 타는 결의를 안고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최신식의 메기공장을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1만 5천여평방메터의 부지면적을 가진 메기공장은 공업적방법으로 년에 수백톤의 메기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울창한 수림속에 휴양각마냥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메기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양어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신양어과학기술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들의 질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된 메기공장을 보시고 부대에서 자체의 힘으로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메기공장을 건설한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후대들에게 당당히 물려 줄수 있는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창조물인 귀중한 나라의 재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들이며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우리 군대만이 이룩할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가장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림진강1호발전소를 비롯하여 조국의 강성부흥에 기여할 많은 창조물들을 일떠세웠으며 현대적인 메기공장건설도 자력으로 성과적으로 해제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최근 군대와 사회에서 여러 곳에 건설한 현대적인 메기공장들에서 많은 메기를 생산하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메기를 먹이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메기공장이 완공되여 생산에 들어 선 조건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문제는 사양관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끊임없이 늘이며 신선한 메기를 관하군부대들에 제때에 공급할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메기공장을 돌아 보시고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민물고기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이 동행하였다.

2001년 5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7일 조선인민군 제41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새 세기 진군의 거세찬 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군부대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피 끓는 심장의 맹세가 담겨 진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군부대지휘부에 들리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로정도를 보시면서 부대의 발전력사에 깃들어 있는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작전지휘실에 들리시여 정황보고를 청취하시고 임무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 관하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그리고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의 군인들이 혁명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 쥐고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지켜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이날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에서 건설한 림진강 제1호발전소를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생산된 전기를 효과 있게 리용하여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8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8일 조선인민군 제68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연혁을 들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의 지휘관, 병사들이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당과 취사장을 돌아 보시면서 부대지휘관들과 안해들이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고 ≪병사들을 위한 날≫을 실속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영예로운 조국보위초소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시찰을 마치신후 조선인민군 제233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001년 4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2629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첫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2629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군부대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성의 맹세가 담겨 진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멀고 험한 길을 헤치시고 전연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태양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 있게 벌리는 과정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태양절을 맞는 군부대 장병들과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9돐에 즈음하여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69돐에 즈음하여 4월 25일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을 안고 새 세기의 첫 건군절을 뜻깊게 맞고 있는 군부대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봄바람에 세차게 펄럭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신념의 맹세가 담겨 진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군부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 보시였다.

이 부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자랑 높은 부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관하중대의 교양실, 침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전사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중대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001년 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월 7일 조선인민군 제655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새 세기 승리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갈 확고한 결의를 안고 새해의 보람찬 진군길에 떨쳐 나선 군부대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충성의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따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부대에 모시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머나먼 최전연에 위치한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눈덮인 최전연의 산발들을 뒤흔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녀성포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의 모든 녀성군인들이 귀중한 청춘시절의 순간순간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있게 보내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000년 11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업한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7일 조업한 안변청년발전소와 내평발전소,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여 발전소의 전경을 바라보시



면서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에서 건설한 내평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내평발전소는 설계도 합리적으로 잘되였고 모든 건설물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출력이 높은 현대적인 발전소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의 부업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자력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난방화를 적극 추진시키고 있으며 부업포전을 잘 리용하여 여러가지 남새와 알곡을 많이 생산하고 염소, 양, 소, 토끼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전사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풍족히 공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황주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1월 13일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황주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과학연구기지를 방불케 하는 정결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건설자들이 현대적인 닭공장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또하나의 귀중한 만년재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주닭공장은 후대들에게 당당히 물려줄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닭공장을 돌아 보시고 나라의 축산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추켜 세워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 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2000년 10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종대지휘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종대지휘성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또다시 뜻깊은 경축공연을 관람하게 된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종대지휘성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종대지휘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면서 당창건기념일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출연자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ㅇ니 공연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5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인민이 창조한 자랑찬 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도도히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2000년 7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7월 5일 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국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 가고 있는 군부대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인민군군인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군부대에서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6월 20일 발전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장의 해설을 들으신 다음 발전기실과 배전실, 취수구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면서 발전소건설정형과 전력생산 및 리용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직속 중대의 교양실, 식당, 세목장, 무기상학실을 비롯한 여러곳에 들리시여 군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그리고 이어서 군부대간하 포병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친히 부대에 찾아오시여 온 하루 전사들과 함께 계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 갈 불 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2000년 4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311군부대를 시찰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4월9일 조선인민군 제131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자 부대의 입구에 줄 지어 늘어서 격정의 환호를 터치는 군인들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의 새 시대를 펼치시여 무적의 군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가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부대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사적물들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여 있는



가슴 뜨거운 사적물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아 보시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부대는 백전백승의 무적의 전투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 불멸의 혁명업적은 부대의 군기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관하 김순손영웅중대의 교양실, 침실, 취사장, 일일창고를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군부대군인들의 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주체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대적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지킬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척같이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대는 지난 기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을 부단히 강화하여 모두가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자라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제132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68돐에 즈음하여 4월25일 조선인민군 제1321군부대를 방문하시고 건군절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예게시판의 사진의 질과 교양자료리용정형으로부터 병사들의 식탁에 오를 식찬들과 병사들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전사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부대지휘관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학실을 비롯한 여러 곳에 들리시여 훈련정형과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고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나 최전연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군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멸적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 잡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선렬들처럼 조국보위성전에서 영웅적기개를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군부대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나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0년 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관하 녀성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40군부대관하 녀성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멸적의 기상 넘치는 훈련을 보시고 중대의 모든 녀성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녀성장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중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녀성해안포중대는 부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고 부대관리를 전군의 모범이 되게 알뜰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유능한 군사지휘관을 배출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필승의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000년 1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1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1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의 모든 군인들이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또한 부대에서 병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후방시설들을 잘 갖추어놓았을뿐아니라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게 훌륭한 조건을 마련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의 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받들어가는 혁명의 주력군답게 조국보위성전에서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였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2001년 3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 정주영선생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남조선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대표단이 고 정주영선생의 령전에 전정하였다.

대표단 성원들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사업에 기여한 고 정주영선생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주영선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하신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30일 남조선 현대아산에서 개발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박송봉제1부부장,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부위원장, 조선인민군 현철해대장, 박재경대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이 영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몽헌회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현대아산에서 건설한 고성항부두, 호텔, 관광쎈터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아산이 금강산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하였으며 경제협력관계를 한계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성실한 노력을 치하하시였다.

정몽헌회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사업현장에 찾아 오시여 고무격려해 주시고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귀중한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금강산지구를 시찰하신 다음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오찬회는 동포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2000년 9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제2차 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를 접견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1일 제2차북남상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박재규수석대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김대중대통령의 인사를 전해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박재규수석대표와 따뜻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박재규수석대표를 위하여 조찬을 마련하시고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내외분께 선물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추석을 계기로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내외분께 11일 첫물 송이버섯을 선물로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송이버섯선물을 지난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평양에 왔던 모든 성원들, 지난 8월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언론사대표단 성원들과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 정주영일행에게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선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박재경대장이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하중에게 전달하였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그 일행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정보원 원장 림동원, 통일부 장관 박재규, 국무총리특별보좌관 김보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권상, ≪한겨레≫ 사장 최학래, 국방부 정책보좌관 김종환, 현대건설사장 김윤규, 현대아산 부사장 김고중 등 관계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송이버섯선물은 지난 6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측 성원들에게 약속하신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 동해의 명산 칠보산에서 특별히 준비한것으로서 여기에는 남측의 각계 인사들과 남녘동포들에게 북녘인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민족의 향취를 느끼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정과 애족의 깊은 뜻이 어리여 있다.

또한 여기에는 쌍방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의의를 깊게 하고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져 있다.

2000년 8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회장과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8월 9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조선현대아산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인 현대증권 회장 리익치, 현대건설 및 아산 사장 김윤규, 현대상선 사장 김충식, 현대아산 부사장 김고중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용순위원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이 3차에 걸쳐 자기들의 지성을 담은 소 1천 500마리를 몰고 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정몽헌회장과 그 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이날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특기할 4.8북남합의서에 따라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회담은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는 력사적인 계기로, 민족주체적노력으로 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해 나갈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과 시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오전 10시 30분, 남측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어린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비행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서면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숙소에서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14일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림동옥제1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제,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축배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이번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낳은 빛나는 결실로 된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왔던 김대중대통령 평양 출발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 15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평양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 가는 김대중대통령을 뜨겁게 환송하시였다.
세기가 교체되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진행하고 7천만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한것은 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환대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환호성을 올리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며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오후 4시 평양비행장을 떠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15일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여기에는 김대중대통령과 부인과 함께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도원,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그밖의 수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방위원회 조명록제1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비서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장성택, 림동옥, 최춘황제1부부장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참가하였다.
오찬회는 동포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2000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건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개성시당위원회, 락랑구역녀맹위원회, 평양통일거리고등중학교, 평천구역수산물종합상점 로동자 전애숙, 릉라도관리국 창작가 배혁, 동평양상점 로동자 최정심을 비롯한 여러 단위와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감사를 받아 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 크나큰 신임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적극 벌려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해외동포를 사랑의 한품에



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를 접견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20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중린, 김용순비서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홍희총재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고 오찬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30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책임부의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허종만책임부의장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000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미녀류기자 문명자녀사를 접견하시였다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6월 30일일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미녀류기자 문명자녀사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저명한 녀류기자인 문명자녀사를 반가이 맞이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문명자녀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그토록 분망한 속에서도 친히 자기를 만나주시고 환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위댜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명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고 그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00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1, 140만엔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이번까지 146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모두 443억 5, 736만 3, 000엔에 달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베풀어 진 은정 깊은 조치는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조국의 통일과 **김일성**조선의 강성부흥을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재일동포들을 고무하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200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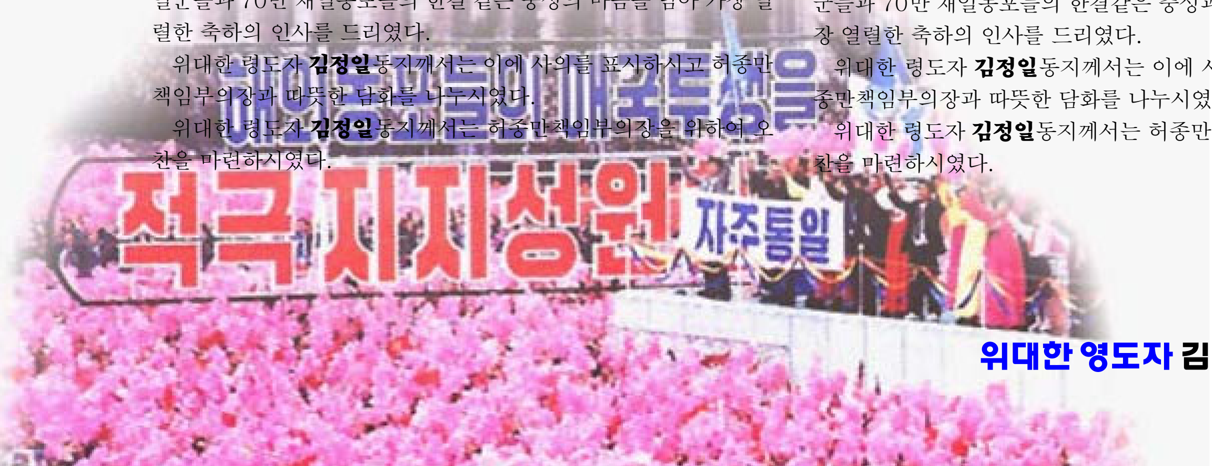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월 1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접견하시였다.

석상에서 책임부의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7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성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신 다음 허종만책임부의장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허종만책임부의장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자주외교를 펼치시어



2001년 9월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사이의 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정세를 호상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지재룡, 중국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 최진수가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부총리인 전기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곽백웅,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 왕강, 대외련락부장 대병국, 외사판공실 주임 류화추, 조선주재 중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강택민주석을 환영하여 3일 저녁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위원장께서 강택민주석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정일**위원장께서 연설하시였다.

또한 강택민주석이 연설하시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증경홍을 비롯한 수행원들, 조선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을 비롯한 당 및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서는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연회에서 하신 **김정일**위원장의 연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우리는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를 반갑게 맞이하였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존경하는 강택민동지와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강택민동지는 세기의 교체와 더불어 조중친선관계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때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 세기에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념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린방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친선의 력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많은것이 변하였지만 우리 두 나라 당과 국가, 인민들은 언제나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 존경하는 강택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현대적이고 문명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 협조를 지향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대외정책에 의하여 중국의 국제적지위와 역할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부강하고 현대화된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며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앞으로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조중친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이바지하는것으로 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중친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는 강택민동지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두터이 하는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연회에서 하신 강택민주석의 연설

강택민주석은 우리는 조선땅에 첫발을 들여 놓자마자 **김정일**총비서동지와 조선당, 정부, 군대의 지도간부들 그리고 수 많은 평양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중조친선의 뜨거운 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후에 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와 훌륭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에 **김정일**총비서동지는 또한 여기서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고 중국당과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인민의 두터운 정에 차넘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중국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김정일**총비서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1년전에 나는 **김일성**주석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귀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은 나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지난 11년동안에 튼튼한 토대를 가진 중조친선은 세월과 력사의 시련을 이겨 내고 강대한 생활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인류가 새 세기에 들어 선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중조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 등소평동지 그리고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함께 키워 주신 중조친선의 꽃이 더욱더 활짝 피여 나고 중조친선의 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가일층 계승발전되고 있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조 두 나라 인민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도 환영을 표시할 것입니다.

새 세기 중조 두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당과 정부 그리고 인민은 조선당, 정부, 인민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정신에 따라 새 세기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추진할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선적린방인 조선뿐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들과 평화공존 5개원칙과 기타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에 기초하여 선린우호와 호혜협조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은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굳센 투지로 전진도상의 난관들을 이겨 내고 확고부동하게 **김일성**주석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식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년간 당신들이 인민경제를 복구하고 발전시키며 대외관계를 확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을 추진하는데서 새롭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많은 동정과 리해, 지지와 찬양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성과는 참으로 쉽게 이루어 진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면하고 용감하며 슬기로운 조선인민이 **김정일**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양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반드시 전진도상의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미래는 반드시 보다 더 아름다우며 조선반도는 반드시 보다 더 안정하고 번영하게 될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80년에 걸친 투쟁의 로정을 걸어 왔고 6,400여만명의 당원을 가진 당입니다.

력사는 중국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고 지난 50여년동안 중국이 커다란 발전과 진보를 이룩할수 없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중국은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다그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앞에는 현대화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3대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시대의 앞장에 서서 언제나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부터 진심으로 되는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영원히 든든한 기반우에 서 있으려면 반드시 시종일관하게 중국의 선진적인 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의 선진적인 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세기에 리론혁신, 제도혁신, 과학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계속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진하면서 개척하고 창조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묶어 세우고 이끌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위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입니다.

2001년 8월

김정일국방위원장 뿌찐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령도자와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사이의 회담이 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창덕부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선전선동부장,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 국가계획위원회 박남기위원장, 김용삼철도상, 과학원 리광호원장, 로씨야련방주재 조선 박의춘특명전권대사와 그밖의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세를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로모스크바선언 조인식이 진행

조로모스크바선언 조인식이 4일 크레믈리대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과 함께 조인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일위원장께서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께서는 선언문에 각각 수표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레닌묘에 화환을 진정하시고 묵상하시였다.

화환에 드리운 댕기에는 ≪웨.이.레닌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레닌묘를 돌아 보시였다.



2001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라오스와 기네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캄따이 씨판돈과 기네공화국 대통령 란사나 꽁떼가 련대성전문을 보내온것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북남최고위급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2001년 5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5월 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여기에는 유럽리사회 의장이며 스웨리예수상인 요란 페르쏜과 우럽동맹공동의 대외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인 하비에르 쏠라나, 유럽동맹위원회 대외관계담당 위원인 크리스 패튼이 인솔하는 유럽동맹 최고위급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였다.

2001년 1월

김정일총비서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연형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국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정하철동지, 외무성 제1부상 강석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양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송봉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해동지, 박재경동지가 수행하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중친선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시기 위하여 7개월만에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와 강택민동지사이의 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인 위건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전기침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증경홍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대병국동지, 외교부장 당가선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국장동지가 참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회담에서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변모된 상해시를 참관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각자의 국내정황에 대하여 호상 통보하였으며 두 나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이 호상래왕의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택민총서기는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초에 중국을 방문하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문이 중조 두 당, 두 나라관계의 새 세기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쌍방은 지난해 5월 조중 령도자들이 베이징에서의 상봉이후 두 당, 두 나라의 각 부문이 두 당 령도자들이 합의한 문제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발전수준에로 전진시켜 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강택민총서기동지는 조선인민이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중첩되는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건설과 북남통일, 대외관계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룩한 중대한 발전과 새로운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새 세기에 각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강택민총서기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제10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목표를 관철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중화를 진흥하는 웅장한 위업실행에서 반드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강택민동지는 중국은 조선반도의 린방으로서 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힘을 넣고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북남쌍방이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것이며 조선이 기타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데 대하여 환영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조선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립장을 지지할것이며 중국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업에서 성공할것이라는것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택민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께서는 이날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는 친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앞서 상해시를 방문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주용기동지가 베이징으로부터 상해까지 나와 **김정일**동지를 친절히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용기동지를 만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용기동지는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연회에서는 조중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두 나라 당 및 국가령도자들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해시당 서기 황국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대병국동지, 상해시장 서광적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시의 지도간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상해시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해시를 참관하시고 그전날의 상해시의 모습은 찾아 볼수 없게 현대적으로 변모되였다고 하시면서 상해시에 일떠선 웅장한 고층건물들과 화려한 주택들, 강력한 공업기지와 편리한 교통망들 그리고 최첨단과학연구기지와 금융, 문화, 후생시설들은 모두다 중국력사에 남을 위대한 창조물이며 중국인민의 재능과 힘의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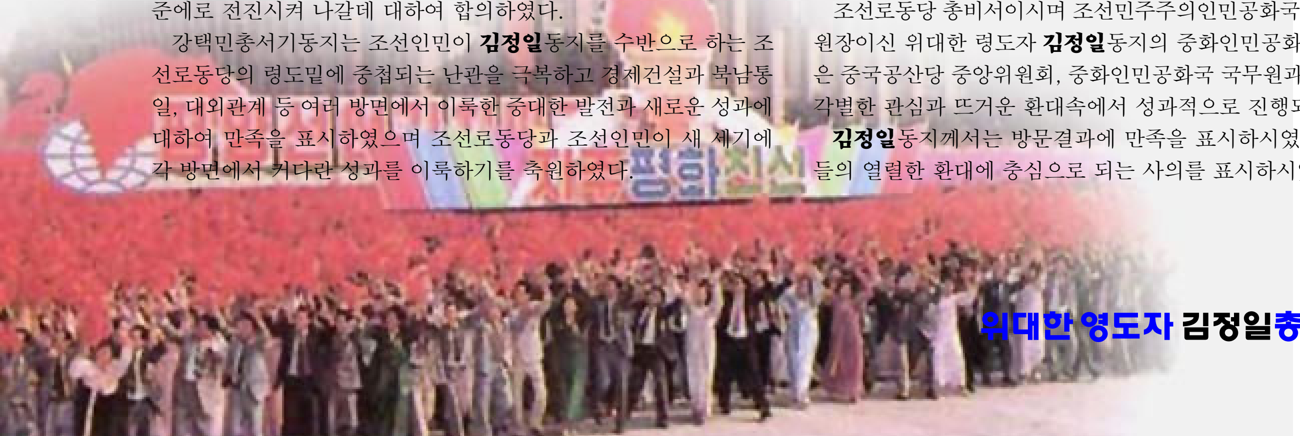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가 놀라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해는 천지개벽되였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상해체류기간 상해시당 서기 황국동지, 상해시장 서광적동지를 비롯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시내 예술인들과 어린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상해시당 서기인 황국동지는 **김정일**동지의 상해시방문을 환영하여 만찬을 차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비공식방문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과 강택민동지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중국동지들의 열렬한 환대에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새 세기를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진행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은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2000년 10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0월 23일 조미관계개선에 대한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합중국 국무장과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를 접견하시였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접견석상에서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온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해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매덜레인 케이.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진지한 담화를 하시였다.

2000년 6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주석이신 강택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29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령도자들은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장 리붕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용기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리서환동지들과 각각 상봉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불멸의 조중친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모택동주석, 주은래총리, 등소평동지들이 친히 마련하시고 키운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또한 두 나라 령도자들은 선대수령들이 조중친선을 고도로 중시하시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하시면서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하게 변하는 세기교체시기 조중친선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 것이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념원과 근본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아시아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리롭다고 인정하였다.

회담과 상봉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호상 지지와 런대성이 표시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피로써 맺어 진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였다. 또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택민동지께서 내놓으신 다섯가지 제안에 지지가 표시되였다.

체류기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강택민동지께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시였다.

우리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공동투쟁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게 기록될것이다.



2000년 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에게 축전과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곤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00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에게 축전과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쿠웨이트국가 추장 자베르 알 아흐메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타이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 기네공화국 대통령 란사나 꽁떼,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며 무력총사령관인 올루세군 오바산죠, 꽁고공화국 대통령, 무력사령관 데니 싸쑤 느게쏘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강택민동지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령도자들에게 년하장을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 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갈루치 국무성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북남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지지한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키기로 하였다.

1993년 6월 11일
뉴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주도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무적협조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2)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생산용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

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3)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동결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협조를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해체된다.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페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한 전문가협상에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문제들과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교체하는데서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다른 전문가협상에서는 페연료의 보관 및 최종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 쌍방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하여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완화한다.

2) 쌍방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설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 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남대화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리행을 허용할것이다.

2) 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련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 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 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보협정(회람통보/403)을 완전히 리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엘 갈루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

경수로완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의 리행을 확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각하
각하

나는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경수로발전소대상의 자금보장과 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며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대용에네르기보장에 필요한 자금조성과 그 리행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시키겠다는것을 당신께 확언하는바입니다.

이와 함께 나는 이 원자로대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완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완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대용에네르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이 아닌 다른 리유들로 하여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의 모든 직권을 행사하여 미합중국 국회의 승인밑에 미합중국이 직접 맡아 제공하도록 할것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기본합의문에 지적된 정책들을 계속 리행해나가는 한 이 행동방향을 견지할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빌 클린톤
1994년 10월 20일 워싱톤 백악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뮈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리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리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사이의 북남대화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사 미국방문, 조미공동코뮈니케 발표

구국전선 주체 89(2000)년 11월 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13일 귀국했다.

조명록특사는 방문기간 10월10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만나 담화를 했다.

여기에는 북측에서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과 관계자들이, 미국측에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인 대북정책조정관이 참석했다.

조명록특사는 석상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미국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와 인사를 전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시려는 장군님의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자신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정중히 부탁했으며 미조쌍무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를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한 조명록특사와 미국대통령이 조미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북의 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중앙TV는 10월12일 오후 5시 북미사이에 합의된 조-미공동코뮈니케 전문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에 따르면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미국방문기간 클린턴대통령과 만났을 뿐아니라 올브라이트국무장관과 코언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조미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고 한다.

공동코뮈니케는 양국이 ≪역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코뮈니케는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6×25)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해 쌍방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코뮈니케는 또한 조미양국사이의 관계개선의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의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코뮈니케는 쌍방이 1993년 6월11일자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자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이룩하며 주요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코뮈니케는 쌍방이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로 한데 대해 지적했다.

다음으로 코뮈니케는 쌍방이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지적하고 쌍방이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상호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코뮈니케가 밝힌데 의하면 미사일문제와 관련하여 북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중지한다는 데 대해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또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코뮈니케는 양측이 제네바기본합의문(94년 10월)에 따르는 각자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했다고 밝혔다.

공동코뮈니케는 다음으로 양측이 대북식량 및 의약품지원, 조선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골발굴 및 실종자확인 등 인도주의분야의 협조에 서로 사의를 표하고 이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접촉과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밝혔다.

또한 공동코뮈니케에 따르면 ≪쌍방은 2000년 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했다. ≫



공동코뮈니케는 또한 조명록특사가 남북정상들의 역사적인 상봉 결과를 비롯한 최근 남북대화상황에 대해 미국측에 통보한 사실에 언급하고 미국측이 남북대화의 계속적인 진전과 성과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코뮈니케는 끝으로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올브라이트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북에서 발표한 조미공동코뮈니케는 워싱톤발 2000년 10월12일자로 되어 있다.

북남공동선언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14일에 서명하신 북남공동선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진행

구국전선 주체89(2000)년 6월 21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온 겨레와 세계진보적 인류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했다.

뜨거운 악수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김대중대통령과 대표단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공항에 운집한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김대중대통령일행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었다.

공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을 비롯한 이북의 고위간부들이 나와있었다.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박재규통일부장관,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임동원대통령특보 등 대표단수원들과 기자들이 동행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조선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하시었다. 이북어린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리었고 뒤이어 조선인민군의장대의 분열행진이 있었다.

공항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서면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동승한 승용차는 모터사이클의 경호를 받으며 숙소로 향했다.

60여만 시민 열렬히 환영

평양시내 60여만 각 계층 시민들이 수십리 연도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을 뜨겁게 환영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뜨겁게 답례하시었다.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숙소에서 담화를 나누시었으며 대통령과 그 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이날 김대중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의례방문했다.

김영남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과 동포애의 정이 흘러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의 평양방문을 축하해 인민문화궁전에서 만찬회를 차리었다.

만찬회는 시종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일행은 만수대예술극장에서 평양시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했다.

성공적인 회담

지난 6월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남북확대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김영

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여원구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안경호국장등 관계부문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박재규통일부장관,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임동원대통령특보 기타 수원들이 참석했다.

회담에서 김영남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주석님의 한평생노고에 관해 회고하면서 주석님께서 제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뜨거운 통일열의와 통일의지, 가장 정당한 통일경륜이 집약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문제에 관한 이북의 기본입장과 방침들, 그 실현을 위한 몇가지 원칙적 문제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 입장에 서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성사는 자기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밝힌 것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북과 남이 대결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과 남이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데 관해 강조했다.

김영남위원장은 전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짓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풀어갈데 관한 이북의 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통일에 관한 민족의 소원을 실현시키려는 숭고한 뜻이 새겨져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대중대통령이 발언했다.

그는 자기 일행을 뜨겁게 맞이해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와 김영남위원장, 전체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직접 비행장에 나오시리라는데 대해 상상하지 못했고 평양시민들이 그처럼 뜨겁게 환영해줄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남북통일열의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말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역시 하나의 민족임을 똑똑히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남북간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회담이 끝난후 김대중대통령일행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

대표단의 일부 수원들은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창작사,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했다. 이희호대통령부인은 평양산원, 평양수예연구소, 창광유치원을 참관했고 평양시 여성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그는 인민문화궁전에서 60년전 이화여고시절의 스승 김지한여성과 감격적인 상봉을 했다.

역사적 쾌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날 김대중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진행하시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시었다.

여기에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임동옥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또한 박재규통일부장관,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임동원대통령특보를 비롯한 수원들이 참석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었으며 그와 축배를 나누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었다.

평양방문일정이 끝나는 것과 관련해 김대중대통령은 목란관에서 만찬회를 차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만찬회에 초대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참석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했다. 먼저 김대중대통령이 연설했다. 그는 자기와 일행을 따뜻이 영접해주시고 환대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의 만남은 민족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할 큰 경사이고 분단55년만의 역사적 쾌거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김일성**주석의 서거이래 우리민족전래의 윤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었다고 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반도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민족스스로 열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영남위원장이 연설했다.

그는 이번에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과 역사적 상봉을 하였고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이번 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통일을 미래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뜨거운 환송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명록제1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비서들을 비롯해 이북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했다. 김대중대통령과 부인, 임동원대통령특보, 박재규통일부장관, 이헌재재정경제부장관,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그밖의 수원들이 초대됐다.

오찬회는 동포애의 정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날 오후 평양공항에 나가시어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김대중대통령을 뜨겁게 환송하시었다.

공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명록제1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등 이북의 고위간부들이 나와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조선인민군의장대를 사열하시었다. 이북의 어린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렸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었다.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환대해주신데 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환호하는 평양시민들에게 답례를 보내며 전용기에 올랐다.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남북간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고 민족주체적 노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의 장거라 하겠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

장군님의 통일의지와 지략에서 통일의 새날을 본다

황문성 (서울 재야정치인)
구국전선 2000. 6. 21.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 크게 성공하여 온 겨레가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고 전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과정을 TV로 시청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누구보다도 통일을 절절히 바라고 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시는 분이심을 깊이 절감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렬한 통일염원과 강의한 통일의지의 발현이고 소산이라는 것이 일반의 공통된 견해이고 일치한 평이다. 사실 큰 도량과 포옹력으로 김대통령을 초청하신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이 없었다면 회담의 성공은 둘째치고 상봉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게 아닌가.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머리가 숙여진다. 그럴수록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통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뚜렷이 세워주신 장군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7천만의 지향과 염원,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지략에 탄복했다.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새겨볼수록 주체성, 민족성의 고수를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분의 높은 뜻이 안겨와 감동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탁월한 통일지략에서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을 본다. 정말 희망이 넘쳐나고 새 힘이 솟는다.

자주노선의 고귀한 결실

하종환 (부산 교수)
구국전선 2000. 6. 21.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이 역사의 대경륜은 전적으로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그분께서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자주적인 민족단합노선, 조국통일노선의 빛나는 결실이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민족애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는 길에서 민족사적 대전기를 마련하셨다. 정말 우리 민족앞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평화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오늘의 대사변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지향을 만방에 과시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하여 융성번영하는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세계가 반해버렸다

김진호 (서울 노동자)
구국전선 2000. 6. 21.

김정일장군님을 TV화면으로 뵈옵는 그 순간은 우렁찬 박수와 환희, 눈물로 범벅이 된 격정의 순간이었다.

어쩌면 저리도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고 겸허하면서도 인자하고 소박하실까.

세인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평양공항에서의 그분의 뜨거운 악수와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 환호앞에 세계가 놀라고 온 겨레가 눈굽을 적셨다.

14일 오후 그분께서 고령의 김대중대통령을 예우하여 친히 숙소까지 찾아가시고 그와 단독회담을 하시는 모습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그분의 인간상을 보았다.

그날 밤 목란관 만찬회석상에서 그분께서 대통령부부와 뜻깊은 한담을 하시고 가끔 유쾌한 농담도 섞어가며 여유있게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모습에서 ≪야! 통일은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감탄과 함께 무아경에 잠기기도 했다.

시종 씩씩하고 자신만만하신 그분의 몸가짐과 걸음걸이, 우렁우렁한 육성, 활달하면서도 통이 크고 구체적이시며 비범하면서도 겸손, 검박, 소탈하신 그분의 기품앞에 나뿐 아니라 온 세계가



반해버렸다.

참으로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을 뵈옵는 순간만은 어둡던 이 서울천지도 대낮처럼 환해보인다.

그렇듯 위대한 민족의 영수를 모시고 사는 오늘의 이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가는 길에 미력하나마 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련다.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이철훈 (김제 농민)

구국전선 2000. 7. 1

6.15남북공동선언에 접한 순간부터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이 공동선언의 채택은 그야말로 민족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북받쳐오르는 감격 속에서도 갈마드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생각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성업을 위해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신 우리 주석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미 28년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이 지켜야 할 통일원칙을 천명해주시지 않으셨는가. 바로 이러한 불변의 진리에 기초했기에 온 겨레를 기쁨의 눈물 속에 잠기게 한 오늘의 남북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해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통일의 길이다.

이 민족의 정로를 따라 더욱 힘있게 걸어갈 결심 새삼스럽게 다지고 또 다져본다.

김정일장군님께 큰 절을

이재명(포천 이산가족)

구국전선 2000. 7. 1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요즘은 꿈을 꾸어도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달려가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기는 꿈만 꾼다.

올해에는 6.25전쟁때 헤어진 형님을 꼭 만나게 될 것 같다.

나의 큰 형님은 북에 가있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월북한 사람들의 친부모가 되시어 대학공부는 물론 시집, 장가까지 보내주셨다고 한다. 어머님은 남북공동선언발표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이 귀인을 모셔 통일이 멀지 않았다면서 꼭 평양에 가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겠다고 하신다.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날을 기다린다.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것

김인수(통일운동가)

구국전선 2000. 7. 1

조국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이같은 통일문제가 지금껏 해결을 못보고 난항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민족분단을 강요해 온 외세와 그에 추종해 온 사대매국세력 때문이다.

지난 55년 분단세월은 우리 민중에게 자주만이 민족의 살길이요, 외세의존은 민족공멸의 길임을 웅변해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 땅의 분단구조를 그대로 안고 새 세기로 갈 수는 없다.

세계가 새 세기를 향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 때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명확히 지적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 자주로, 통일로 광명의 21세기를 개척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된다.

겨레와 후손들을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제 우리 민중에게는 앉아 고민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자주의 정신으로 나가기만 하면 통일은 분명 밝아오는 아침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기다립니다

김진성(서울)

구국전선 2000. 7. 1

6.15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일**장군님께서 적절한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야! 하고 환성을 터쳤다.

얼마나 그립고 그리운 **김정일**장군님이신가.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 위상을 만방에 선양하신 장군님이시다.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오시고 우리 이남민중의 고달픈 심정도 제일 잘 알아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못잊어 하신 장군님이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도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광폭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의 태양이시고 우리 민중의 어버이이시다.

나는 요즘 **김정일**장군님을 매일 같이 기다린다.

50년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서울에 오시어 이남땅에 새 세상을 열어주셨던 때를 추억하며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

신대진 / 구국전선 주체90, 6월 11일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주년이 된다.

돌이켜 보면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감격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내외에 커다란 감동과 지지환영을 받았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 큰 자국을 남긴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내외분열주의자들의 간교한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겠다는 남북 7천만 겨레의 약속이고 다짐이기도 했다.

이 뜻깊은 날을 맞는 우리 민중은 나라가 분열되어 55년동안 이루지 못한 역사적 위업을 단 2박3일간에 이루어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면서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미를 재음미해 본다.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대헌장이다.

6.15공동선언의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한편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다. 따라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의 대단합에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핵은 바로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제적으로 흡수병합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양측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초위에서 연방제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으려는 제도통일발상은 곧 새로운 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만이 전민족적 이익에 걸맞는 통일방안이고 실제로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조국통일방안이다.

6.15공동선언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명백히 밝혀주듯이 6.15공동선언은 전민족적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조국통일을 실제적으로 앞당겨 나갈 수 있게 하는 선언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는 또한 우리 민족이 이를 계기로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할 통일지도자의 출현을 직접 맞이한 것이다.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고 대헌장인 6.15공동선언은 통일을 위해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펼칠 것을 바라는 전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리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용단을 내리시었기 때문에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앞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7천만 겨레는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그후 남북교류협상 등 사태발전을 통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야 말로 7천만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의 추앙을 받고 계시는 통일의 최고지도자이심을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평양상봉과 방북언론사대표단접견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통일전략과 강인한 통일의지, 위대한 풍모와 덕망을 내외에 보여주시었을 뿐아니라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성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시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내외분열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데도 그 의미가 크다.

평양상봉은 미국 패권주의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7천만 겨레와 세계민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미국과 그 주구 반통일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통일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민중의 통일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평화통일을 지지했고 반미자주의식도 급격히 높아졌다. 지금 민심은 반미자주화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참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는 지대하다.

내외분열주의자,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자주통일세력의 종국적 승리는 확정적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통일운동가들, 각계 애국민중은 부동의 신념을 간직하고 필승을 낙관하며 6.15공동선언의 실현에로 과감히 나아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쌍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로와 호전적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류의하면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립장을 환영하였다.

3.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서명한 조로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력사적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라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5.쌍방은 무역경제협조분야에서 이미 이룩된 합의들을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소들,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지시를 주었다.

로씨야측은 일련의 쌍무계획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리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리용하려는 자기의 의향을 확인하였다.

6.쌍방은 세계적실천에서 공인된 호상리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북남과 로씨야, 유럽을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것을 공약하면서 조선과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 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7.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북남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북남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확인하였다.

8.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설명하였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사이의 공식관계설정이 적극화되고 있는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사이의 회담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는 방문기간 로씨야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웨.뿌찐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다.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로씨야련방대통령 웨.웨.뿌찐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 그 의미

기세철 / 구국전선 주체 90, 8월 21일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시었다.

21세기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세계적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첫째로, 전통적인 조러친선관계를 21세기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데 있다.

이번에 채택발표된 모스크바선언에는 조러친선협조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와 대외관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 등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러 두 나라 관계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북과 러시아는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이며 조러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이다. 조러관계는 반제, 반파쇼투쟁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고발전된 뿌리깊은 친선관계이다.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있은 정상회담과 조러공동선언, 지난해 2월 체결된 조러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전통적인 조러친선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 놓았다.

이번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새 세기에 들어선 두 나라 국민의 근본이익에 걸맞게 상호 호혜와 협조, 번영을 도모하는 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조러친선관계를 전면적으로 강화발전시킨 이북의 외교적 성과는 자주정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일관하게 펴오신 위대한 영수님의 현명한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둘째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자주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두 나라 정상분들은 2000년 6월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여건으로서 러시아측은 이남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이북의 입장에 동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국의 하나인 러시아연방이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를 표명한 것은 부시행정부에 의한 이북고립압살책동과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에 내린 벼락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이 가져온 역사적 의미는 셋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데 있다.

두 나라 정상분들은 1972년 러미사이에서 체결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이 세계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해 유의하였으며 새 세기에도 국제적 안정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수립책동은 큰 나라를 누르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며 세계제패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반대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이 계획을 내미는 데서 이북의 ≪미사일위협≫을 방패막으로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엄중한 것은 부시행정부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냉전시대의 산물로 묘사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계획을 반대한다고 해도 저들이 당황해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엄중한 도전에 맞서 조러정상분들은 이북의 미사일계획이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이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온 세계에 확언하시었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서 초미의 국제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번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미국의 군사적 팽창야망에 공동으로 맞서 나가려는 조러간의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평화적 동반자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의 역사적 의미는 넷째로,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을 분쇄하고 새 세기의 공정하면서도 호혜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공헌한데 있다.

모스크바선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조러양국은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 우위와 평등, 상호존중, 호혜적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합의했다.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현존하는 분쟁문제들이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러양국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영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러사이의 모스크바선언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국제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행동규범, 그 수행방도를 천명했다. 실로 새 세기 첫해에 진행된 위대한 영수님의 러시아방문은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는 데서 획기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지금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21세기를 움직이시는 희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또 한분의 인류의 태양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은 끝이 없다.

이남겨레도 위대한 영수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강성부흥할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6.15남북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모스크바선언에 대한 각계인사 반향

세계자주화위업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

(구국의 소리 방송뉴스 / 주체 90년 8월 11일)

국제문제연구소의 최모연구원이 지난 8일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세계 자주화위업의 탁월한 영수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공식방문은 세계 정치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인하신 모스크바선언에서 그분의 특출한 반제자주의지를 다시금 폐부에 새길수 있었다.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자주화위업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기여로 된다.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크나큰 자신감과 용기를 주며 새 세기 인류가 가야할 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위대한 영수, 세계정치사의 대원로이시다. 참말로 조선민족된 자긍심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통일된 강성부흥국에서 세계 자주화위업의 선도자로 빛을 뿌릴 것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2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의 이모씨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조러공동선언의 발표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발광하는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민중에게 활력을 준 역사적 쾌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조러공동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셨다. 특히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이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주한미군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그 철수투쟁에 광범위하게 나서게 하고 있다.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자주통일의 암인 주한미군의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겠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5일)

각계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신 역사적인 사변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강모씨는 옛 동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모스크바선언에서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감축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시어 안하무인으로 날뛰는 미국에 호된 타격을 가하시었다.

사실 지구촌의 대다수 나라들이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지략을 지니신 백두산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미국에 대해 이런 폭탄선언을 하셨다. 세계가 그분을 끝없이 존경하고 더없이 우러러 보는 것은 당연하다. 21세기가 **김정일**장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7일)

서울 모신문사 기자 정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계시는 그분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과시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서방세계가 앞을 다투어 이북과 국교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써의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푸틴대통령이 영도자님을 최대국빈으로 극진히 환대한 것은 물론 외교관례를 깨고 일정에도 없는 수뇌 비공식회담을 마련한 것은 영도자님의 국제적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하는 것을 그대로 실감케 한다. 더욱이 북러공동선언에서 21세기 세계평화와 안전의 이정표로 될 국제문제해결의 원칙들을 천명하신 것은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영도자님의 정치력의 과시로 된다.

정말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조국의 통일과 세계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일대사변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다.≫

6.15공동선언실현의 지름길을 가리키는 역사적인 선언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7일)

언론인 이모씨는 모스크바선언은 읽어볼수록 큰뜻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수만리의 노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충정에 머리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모스크바선언은 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국통일은 멀지않아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9일)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과 모스크바선언은 탁월한 정치가로써의 영도자님의 위인상을 다시한번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있은 남북정상회담과정과 6.15공동선언발표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영도자님의 외교술, 협상술은 신비하리만치 특출하다.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염원을 실현하고 지배와 예속이 없고 전쟁이 없는 자주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세우시려는 영도자님의 숭고한 경륜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한번의 역사적인 외국방문으로 이북을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대국으로 더욱 우뚝 세우셨다. 한미정상회담때 당국의 굴욕적 자세로 비감과 분노를 누를길 없었는데 이번에 그 한을 풀었다.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을 보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맛보았다. 영도자님께서 통일조국을 이끄셔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만진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5일)

한양대학교의 최모교수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은 투철한 통일의지와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영장이시라고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번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은 통일을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우리 민중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제군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은 심히 정체되고 있다. 경향의 민심은 난국타개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김정일**장군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에서 다시금 확신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선 모스크바선언에서 6.15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시려는 불변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셨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야한다는데 대해 확언하신 것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셨다. 모스크바선언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지름길을 가리키고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투철한 통일의지와 지략을 지니신 위대한 영장이시다. ≫

자주외교의 화신, 민족존엄의 상징

(구국의 소리 방송 뉴스 / 주체 90년 8월 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김모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모스크바선언을 마련하시는 등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하시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신 소식에 접하고 흥분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장군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환적 국면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이시야말로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를 이끄실 위대한 정치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인이시라는 것을 또다시 느꼈다. 정말 민족적 자긍심을 금할수 없다. ≫

(구국의 소리 방송뉴스 / 주체 90년 8월 11일)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는 신모씨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절세위인을 모셔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기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국 러시아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의 국빈으로 환대하고 러시아 각계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그분께 지성어린 진귀한 선물을 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민족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진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장군님을 존경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분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선군정치에 탄복했기 때문이다. 오늘 자주를 원하고 강성부흥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다 장군님의 정치를 선망하고 있다. 그래서 저마다 장군님을 찾아뵈오려 평양을 찾고 자기 나라에 수속을 하고 있다. 위인의 존엄이자 자기 민족의 존엄이자. 나도 장군님의 외교관이 되어 당당한 자주외교를 펴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4일)

서울 외국어대학교의 김모교수가 경애하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자주외교의 화신으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조러모스크바선언 소식에 접하고 난 그는 동료들에게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대한 경의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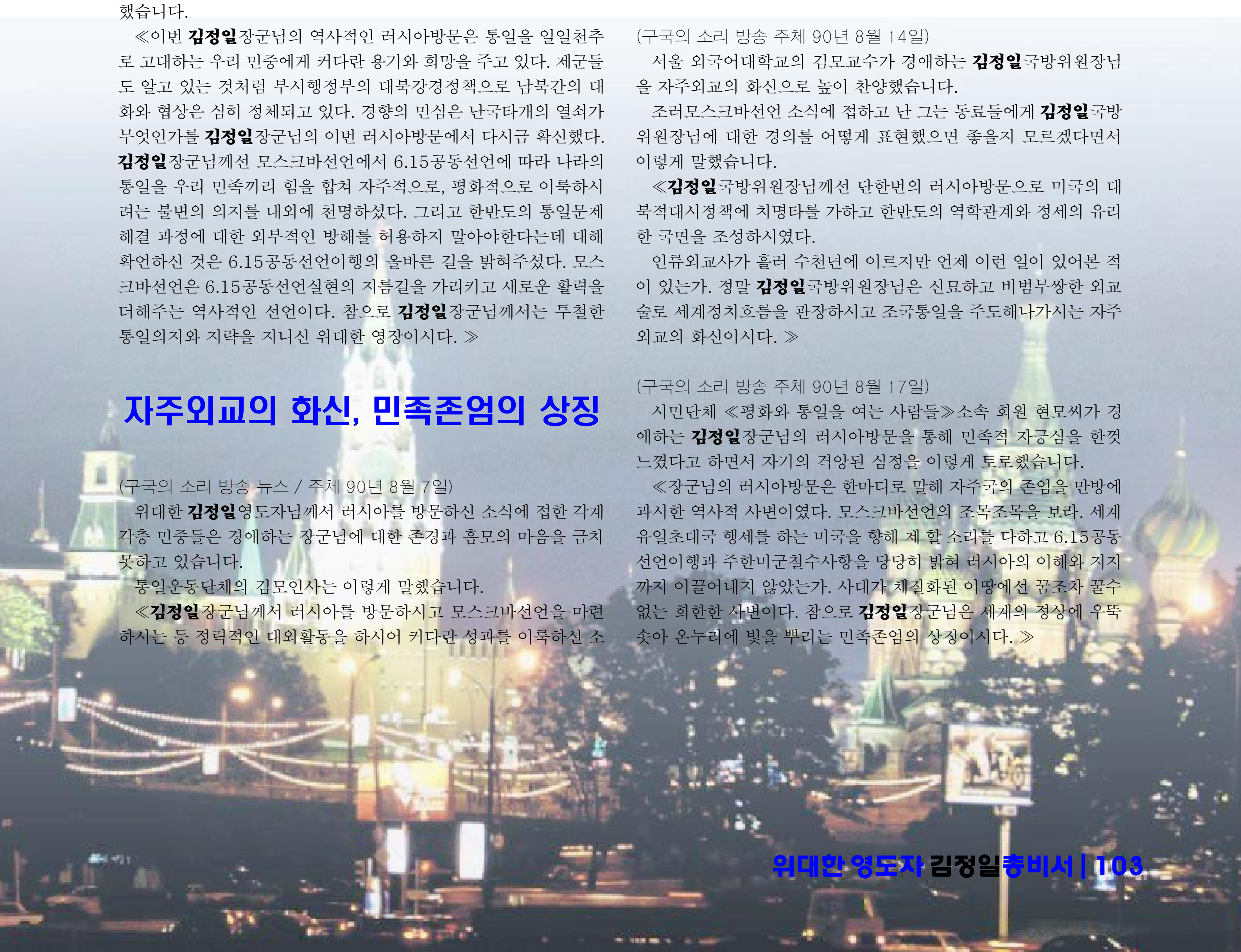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선 단한번의 러시아방문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반도의 역학관계와 정세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시였다.

인류외교사가 흘러 수천년에 이르지만 언제 이런 일이 있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신묘하고 비범무쌍한 외교술로 세계정치흐름을 관장하시고 조국통일을 주도해나가시는 자주외교의 화신이시다.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8월 17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소속 회원 현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한마디로 말해 자주국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였다. 모스크바선언의 조목조목을 보라. 세계 유일초대국 행세를 하는 미국을 향해 제 할 소리를 다하고 6.15공동선언이행과 주한미군철수사항을 당당히 밝혀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사대가 체질화된 이땅에선 꿈조차 꿀수 없는 희한한 사변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 온누리에 빛을 뿌리는 민족존엄의 상징이시다. ≫



2003년 북미간 최종결전 위한 대미국제포위망, 사실상완성(발췌)

김명철 / 군사외교평론가



7월26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도시 하산을 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9일간 풍경을 감상한 후 8월3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러시아의 고도 쌍트 페테르브르크까지 가서 관광을 즐기고 8일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와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날 귀로에 오른 **김정일**은 8월18일 평양에 귀국했다.

24일간의 2만킬로 기차여행동안 **김정일**은 조선민요와 러시아민요도 불렀지만 항상 인터넷에 접속했다.

김정일의 방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에는 성과가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보도와 외신 등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도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것은 2003년 최종 북미결전을 앞두고 북러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관계까지 재구축함으로써 **김정일**이 대미포위망을 사실상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이번의 방러는 **김정일**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계산에 의해 계획, 연출된 고전적인 외교 드라마였다. 1개월 가까이 걸린 이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감독, 연출, 주연은 **김정일**이고 조연은 푸틴이었다. 단역은 러시아군과 치안관계자이고 무대는 광대한 시베리아, 러시아다.

이번 방러는 러시아 국민의 80%, 즉 다섯 명 중 네 명이 구소련 연방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미국의 유력한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8월16일자 보도)에 이루어져 매우 시기적절한 여행이었다. 록펠러 재단에 의하면, 러시아군수뇌와 러시아정부는 과거 수년간 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한국언론의 취재사진을 보면 러시아각지에서 북한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이 띈다. 일부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는 이번 방러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당혹해서, 필사적으로 있지도 않은 흠을 들춰내려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다. 어떤 트집을 잡아도 **김정일**의 방러가 커다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파격적으로 영접한 러시아

러시아는 아무리 국가원수라고 해도, 극동에 위치한 작은 나라의 최고지도자에 지나지 않는 **김정일**에게 파격적인 영접를 했다. 그것은 러시아측이 북한최고지도자를 부시나 클린턴, 유럽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통상적으로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 길어야 수일, 보통은 하루나 이틀이고 대부분 항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쪽에서는 경호에 대한 부담이 적다. 항공관제와 수도, 일부의 방문지만 경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끝난다.

김정일이 시베리아철도로 왕복 2만킬로를 24일간에 걸쳐서, 북한측이 지정한 운행계획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를 횡단한다고 하면, 러시아 쪽의 경비부담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러시아는 **김정일**의 러시아방문 일정동안 기차사용을 받아들여, 막대한 수의 경비병과 저격병을 대륙횡단철도를 따라 배치하고, 방문하는 곳마다 엄중한 경계체제를 3주 이상의 긴 방문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측이 **김정일**일행을 맞이하는 모습은 구소비에트 시대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접을 나간 사람은 소비에트시대의 국방장관 야조프 원수였다. 야조프는 소비에트연방유지를 기도하다 진압당했던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러시아는 이 야조프를 전면에 세웠다. 정말 이례적인 조치였고 러시아가 **김정일**을 환대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욱 극적인 것은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연방과 공산당해체 후, 모스크바의 레닌묘를 방문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방문에 최대의 예의를 다했다. 게다가 **김정일**이 머문 곳은 놀랍게도 크렘린궁전이었다.

러시아 국내에서 ≪지나쳤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푸틴이 전례를 깨트려가며 전대미문의 예의로 **김정일**을 맞이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이유이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이다.

첫째, 러시아에게 북한보다 더 강력한 대미견제카드는 없다. 푸틴이 아무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도 대미 정치, 외교, 군사상 카드는 못되고, 미국을 특히 부시정권을 견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클린턴과 회담할 때에도 나오는 얘기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하물며 일본이나 한국과 경제상의 이유로 관계를 강화해도 러시아의 흥망이 걸려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위망구상에 대항하지는 못한다.

푸틴이 7월에 이탈리아에서 부시와 만났지만 화제는 북한이고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특히 **김정일**을 구소련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형태로 영접할수록 미국은 러시아에 주의를 돌릴 것이며 **김정일**이 머문 3주간 신경을 곤두세워 러시아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대미견제는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 즉 아메리카콤플렉스가 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다시 말하면 북한콤플렉스가 있다. 미국에게 **김정일**이 중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그 위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재부활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둘째, **김정일**이 탄 시베리아철도는 달리는 광고탑이 될 것이 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한반도를 잇는 남북의 철도와 연결하는 일은 동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뒤떨어진 시베리아개발, 특히 지하자원, 석유, 가스, 삼림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김정일일행의 24일간에 걸친 철도여행은 그야말로 달리는 광고탑이고, 이것만큼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는 이벤트는 없다. 러시아측이 특별한 광고활동을 안 하더라도 시베리아철도가, 시베리아가 전 세계에 3주일 이상이나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이상의 선전은 없는 것이다. 푸틴이 시베리아철도를 사용한다해도 이만한 화제는 될 수 없다. 그야말로 **김정일**이니까 화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기관은 **김정일**의 방러에 맞춰서 시베리아철도특집을 연재했다.

사실상의 북러군사동맹

북러공동선언은 북러관계가 정식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군사동맹 이상으로 밀접한,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격상된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러시아와 북한의 대미전략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군사동맹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조약에 의한 정식 군사동맹≫이고, 또 하나는 조약은 맺지 않지만 군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강화하는 것에 의한 ≪사실상 군사동맹≫이다.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라도 실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상 군사동맹≫은 현실의 정세를 반영해 대단히 유효한 경우가 많다. 북러공동선언 어디에도 군사동맹이나 공동방위라는 말은 없다. 단지 국제연합의 역할강화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정치적 교섭에 의한 해결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구축된 군사동맹은 후자에 속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나 대외정책 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대우는 사실상 북한이 밀접한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북러 공동선언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다음의 4가지를 합의한 것이 그 명백한 증거로 된다. 특히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요격미사일금지(ABM)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이고, 양국이 국제안전보장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결의

(2)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평화적이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게는 위협이 안됨

(3) 정치, 군사, 과학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

(4) 주한미군문제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 최우선사항

이것은 북러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력, 특히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을 탈퇴해서 미사일방위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이 일체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은 미국, 특히 부시정권에 의한 북한의 미사일위협설, 깡패국가설을 부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한 점이다. 그것은 미국이야말로, 주한미군이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의 위협요소라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요격미사일금지조약이 전략상 안전의 기초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해 7월19일에 평양에서 발표된 양국 지도자에 의한 북러 공동선언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이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작년과 같지만, ≪공화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첨가하고 있다. 지난해 선언에서는 ≪국방분야에서 협력을 실현한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올해 선언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향과 조치에 합의≫라고 되어 있어 더욱 더 전진했다.

물론 자세한 것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김정일**일행은 장거리로케트제조공장, 최신예전투기제조공장, 전차공장등을 시찰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 새롭게 담겨진 것이 주한미군문제이다. 러시아 주변에는 무수한 미군기지가 있지만 어디에서도 미군철수는 제기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미군철수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러지도자의 강한 합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또 하나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반도는 미군철수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1948년에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창건된 이래, 1961년까지 러시아(구소련)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북러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1961년 7월 6일에는 김일성



의 요청에 따라 조약에 의한 군사동맹이 수립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동맹은 러시아측 특히 푸틴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조약에 의한 것보다 더 유효하다.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

이번 방러는 **김정일**의 국제적 권위 고양,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네 가지로 명확해 진다.

첫째, 푸틴의 간곡한 방러요청과 군사동맹관계 수립요청. 러시아는 **김정일**의 방러를 거국적이고 파격적인 대우로 환영했다. 소국이나 약소국이 대국인 러시아에게 군사적 의존, 보호, 동맹관계의 수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으로 대미대결에 있어서 러시아측이 북한에게 밀접한 공동보조와 군사동맹관계수립을 요청했다.

이것은 북러국교수립이래 처음 있는 일로 러시아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고 동맹관계를 수립, 더 나아가 **김정일**의 방러를 요청하고 그 실현을 위해 북한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방위망을 둘러싼 미국과의 군사대결에 있어서 북한, 특히 **김정일**과의 군사동맹수립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부시정권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타격. ≪북한은 깡패국가≫라는 설, ≪북한의 미사일위협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불가결하다는 북러공동선언은 미국측, 특히 부시정권에게는 틀림없는 정치적・외교・군사적 타격이 되었다.

미국에게 ≪북한 깡패국가설≫, ≪북한 미사일위협론≫을 부정당하는 것과 주한미군이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것은 엠디계획과 대북강경론이 근원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두 개의 주장은 부시가 러시아에 바라는 요격미사일금지조약 파기의 근거로써, 그것을 러시아가 완전히 일축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하고 안정돼 있는 정치현실과시. 통상적으로 국가수뇌가 자국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1주일이고 그 이상이 되면 국정에 중대한 악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이른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정치 경제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국가 수뇌진이 일주일이상이나 해외에 나가있으면 국정이 혼란해져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측으로부터 침략이나 파괴공작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김정일**의 방러를 지켜본 미국정보기관은 **김정일**이 없는 동안에 특별파괴공작원을 북한에 침입시켜서 체제전복을 꾀할 가능성을 온갖 채널을 통해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시사저널 8월 16일자 보도)

김정일은 시베리아풍경을 즐기면서 가끔씩 하차해서는 철도여행을 천천히 만끽했다. 동행한 러시아고관에 의하면 **김정일**은 러시아어가 유창하고 시베리아와 러시아사정에도 정통하다고 한다. 유럽과 미국수뇌들은 나라를 3주일 이상이나 비울 여유도 없고, 최고의 사치인 철도여행을 즐기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철도여행을 하면서도 **김정일**은 기차안에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해서 세계정세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다. 기차안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있어서 하나는 현재 위치를 표시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에 접속돼 있었다. **김정일**의 해외시찰여행은 끊임없이 발이 땅에 닿아 있다.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는 국외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는 탓일까 발이 땅에 닿지 않아, 견디기 힘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넷째,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정치, 외교, 군사지도자 **김정일**. 이번 방러는 **김정일**이 세계 초특급의 탁월한, 유례가 드문 정치, 외교, 군사 지도자인 것을 말해 주었다. 러시아의 푸틴은 부시, 클린턴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지도자를 러시아로 초대한 적은 있지만 이만큼의 대우를 한 적은 없다.

이번 방러는 푸틴이 대미군사외교전략에 있어서 **김정일**을 단순히 대등한 동맹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스승으로서 삼고의 예(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은 고사)를 다해서 맞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김정일** 방러의 거의 모든 일정에 동행하고 있는 프리코흐스키 극동관내 러시아대통령전권대표는 14일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국가지도자인 표트르(황제18세기 러시아 근대화 지도자)에 비할만한 정치가로, 대단히 뛰어난 진보적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번 방러는 21세기 국제적 대미포위망을 구축하고 미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김정일**밖에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슈퍼 김일성인 것이다.

김정일장군의 노래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신운호 작사, 설명순 작곡)는 시대와 혁명의 진두에 높이 서시여 세련된 령도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여주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담아 창작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인적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이 나라 천만 심장들이 터친 만세의 환호성을 그대로 노래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려는 겨레의 충효심과 더불어 불멸의 송가는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과 함께 온 세상에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김정일화



김정일화의 탄생

1980년대중엽에 이르러 새로운 품종의 꽃 ≪**김정일**화≫가 태여나 7년 남짓한 사이에 세계 5대륙의 수십여개 나라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국제적인 기구까지 조직되였다는것은 력사적 사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김정일**화≫는 일본 시오즈까현 가께가와시 가모창포원 주임인 가모 모도데루가 20여년동안 정력적인 탐구 끝에 육종해낸 새로운 품종의 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김정일** 장군님을 열렬히 신뢰하고 흠모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의 고마운 은정에 보답하려고 자기가 육종해낸 가장 아름다운 꽃에 **김정일**의 존함을 모시여 ≪**김정일**화≫라고 명명했다.

주체77(1988)년 2월 16일, 가모 모도데루는 이 ≪**김정일**화≫ 꽃을 정식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옮겨와 이 소박한 복풀 선물을 **김정일**의 탄생 46돐에 올렸다.

김정일화의 상징적의미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향도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상징으로 이 강산에 만발하고 있는 ≪**김정일**화≫,이 불멸의 꽃은 시대의 지향과 인류의 축원을 담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제12차 국제화초전시회에서 받은 특별상과 금메달은 ≪**김정일**화≫의 ≪열매≫의 상징이고 또 세계인민의 환심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김정일화의 특성

≪**김정일**화≫는 관상적특성과 품종적특성도 특이하게 갖고 있다.

꽃색갈은 윤기나는 매우 정열적인 붉은색, 꽃모양은 고도로 정연하게 째인 만첩꽃, 꽃크기는 잘 키우면 20㎝ 안팎으로 꽃핌, 기본줄기와 꽃대는 다 굵고 단단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어 령도자의 풍격을 방불케 한다. 또 질병이나 병해충에 강하며 낮은 온도 특히 겨울온도에서도 꽃을 피우고, 무더운 날 60%의 빛만 요구하는 독특한 품종의 꽃이다.

≪**김정일**화≫는 불멸의 꽃이라는 이름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개화가 가능하는데 의해 손색이 없다.



10月 찬가

박일

세월의 흐름 따라 10월은 해마다 찾아오건만
영광차라 이 해의 10월은 시대의 최정상에 빛발치도다.
인류사에 금문자로 기록될 주체연호를 시행하여 처음 맞이하는 10월.
어버이 **김정일**영도자님을 총비서로 추대한 무상의 감격 속에
이북의 조선노동당이 창당 52돌을 경축하는 10월.
그래서 이 10월에는 그 품에 꽃펴난 이북 사회주의가
보다 찬연한 광망에 휩싸였도다.
제국주의의 광풍을 맞받아 그 손길이 치켜든 신념의 붉은 기.
하늘땅 꽉 덮으며 더욱 펄럭이도다.
정녕 그 때문에 영남의 노란 벼이삭들.
이해의 10월엔 더욱 기뻐 넘실대며 경사의 윤무를 펼치는거 아니냐.
멸악산의 단풍들 이 격정 못 참아 이 10월엔 더욱 빨갛게
온몸을 활활 태워가는거 아니냐.
아 10월이여 7천만을 한 품에 다 불러들여 머지않아 화목한 한 식솔을 꾸려주실
위대하신 어머니가 환생하신 달이여.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어 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받드는
남녘의 티없는 민심이 비껴 통일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비껴
우심한 하늘조차 푸르청청한
오 주체 86년의 10월 **김일성**민족 부흥의 계절이여.



축원

박일 / 구국전선 1997년 10월 11일

한없이 귀중하신 분
이제는 더욱 소중해지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아, 경모하는 **김정일**영수님

남과 북 온 겨레를
해님처럼 보살피시는 분
하늘처럼 품어주시는 분
안녕을 바라는 마음
이남에 산다고 어이 다르오리까

내 만일 농부라면
한 몸 그대로 밑거름이 되서라도
천만년 불로장수의
희귀한 산삼을 가꿔올렸으리라

내 만일 화가라면
태백의 밀림 붓으로 삼아
가없는 저 하늘 병풍으로 삼아
장군님 옥체만강기원의
십장생도 그려넣었으리라

허나 나는 이땅의 무명시인
노래를 좋아하시는 그분
시를 사랑하시는 그분
한 줄만 읊으셔도 만 시름 잊으시게
한련만 읽으셔도 10년 젊어지시게
주옥 같은 시어 고루고 골라
축원의 시다발 엮어가거니

축하를 받으시라
영광을 받으시라
통일감격의 그날을 펼쳐
통일조국의 영수로 높이 추대되신
아, 우리 운명의 구세주이시어

김일성민족의 부강을 위해
21세기의 번영을 위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주석님을 향한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가장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한편 하루빨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집니다.

전 세계가 최대의 슬픔을 겪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만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태양위인상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게 되었으며 그간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효도덕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태양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불멸의 대위업을 달성하신 수령 중의 수령,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향도이념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 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영세불후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수억만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사상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연전연승하시는 세기적 기적으로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으며 일제를 타도하시고 미제를 내리막길로 끌어내리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단 한번의 편향도 없이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민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의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며 탁월하게 향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반제자주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달성하시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관되게 조국통일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최고업적은 바로 수령승계문제의 빛나는 해결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 그대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이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시는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십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고 있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사상을 옹호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혁명사에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강의 선군혁명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굴복시키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주체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전망할 수 있는 대위업을 달성하시었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 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감격적인 평양상봉을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심으로써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신기원을 개척하시었습니다.

이남민중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신데 이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해 주석님의 통일위업을 기필코 우리 대에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위인상에 탄복하는 한편 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강성대국을 하루속히 건설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이며 한민전의 향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열화같은 맹약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통일변혁의 기본열쇠로 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제기된 변혁과업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온 나라에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지도핵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성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절대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동지들과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서울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돌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사회주의붕괴 이후 붉은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명예의장대의 분열행진 속에 레닌묘를 찾아 헌화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새 세기 들어 더욱 영광스런 조선노동당의 창당 56돌을 맞이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창건하신 조선노동당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세련된 향도 하에 백전백승하며 혁명청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쌓아왔습니다.

조선노동당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수위에 높이 모시고 전진하여온 지난 56성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며 주체위업완성으로 나아가는 전인미답의 혁명노정이었으며 강철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전대미문의 난관을 돌파하여온 영광찬 승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며 혁명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을 인류혁명사에 처음으로 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 근로민중의 대중적 당으로 창건하시었으며 이후 주체성이 강하고 광범한 대중지반을 갖추며 영도의 계승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한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역량을 강화하고 그 정치적 기능을 제고하는 주체의 원칙을 선행하시며 두 제국주의와의 준엄한 전쟁과 여러 단계의 간고한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히 영도하시며 역사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ㅌ.ㄷ≫이래 조선노동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었으며 조선노동당의 모든 영도업적은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앞으로도 수령님을 떠난 조선노동당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이시고 조선노동당과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을 어버이수령님을 향한 충효의 결정체로 다져놓으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당건설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 전례 없는 불후의 대공적입니다.

천재적 사상가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당건설노선을 계승발전시키시고 혁명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노동당을 전당에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립되고 조직사상수준이 최상에 이른 강위력한 당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민중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습니다.

장군형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이자 군이며 군이자 당이라는 독창적인 혁명철학으로 군을 강화하여 당을 강화하고 혁명적 군풍으로 당풍을 세워나가심으로써 당건설과 군건설이 함께 진행되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완성의 담보가 마련된 위대한 선군혁명의 역사를 창조하시었습니다.

당과 군을 혁명의 2대 기둥으로 삼으시고 선군정치로 혁명을 개척하여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영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은 오늘 제국주의포위환속에서도 한치의 동요 없이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는 혁명의 금성철벽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수위에 이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다보는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과 한결같은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등대로 거연히 솟아 웅장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조국통일의 비약적 국면을 창조하시는 한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하시며 90년대 총포성 없는 조미대결전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심으로써 조선노동당 창당 5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기념하시었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이시며 노련한 정치외교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도 장장 20여일간의 러시아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미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대미포위망을 완성하시었으며 더불어 조선노동당과 주체조선의 국제적 권위도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으시었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가 선군영도와 신묘한 전략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는 한편 유일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국제적인 수령, 향도의 태양으로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인 사상과 비범한 전략, 고매한 덕망, 불멸의 위업으로 21세기 자주시대를 거침없이 개척하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이시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승리만을 거듭하는 조선노동당이야말로 가장 존엄 있고 위력한 당이요, 노동당시대야말로 가장 영광 넘치는 위대한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하에 조선노동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은 이남의 변혁투사들과 애국민중에게도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며 통일혁명투쟁을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의 마음이 미 제국주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전당과 전민을 주체의 통일강성대국건설의 지름길로 영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향하며 장군님의 권위가 날을 따라 비상히 고양되고 나아가 절대화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경사스런 당창건 56돌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장군님의 위대성과 전위당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선행하는 한편 당면한 전술단계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하며 반미반이회창투쟁에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겠다는 열화 같은 투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백전백승 전위당이 있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필승의 투쟁전략이 있기에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온 겨레와 인류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10월 10일

서울